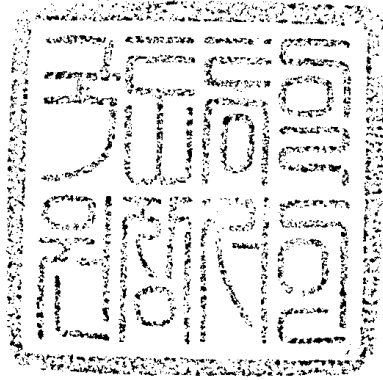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처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作家들의 生活相

— Living Conditions of the Writers
in North Korea —



Handwritten notes in Korean, including a date '1954년 11월 16일' and other illegible characters.

研究執筆責任：李 恒 九

刊行責任：崔 炳 輔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調査研究室

要 約 文

북괴는 作家를 小說家·시인·희곡작가·평론가·아동문학작가·번역작가 등으로 구분한다. 作家의 수는 도합 350명 정도이다.

作家들에게 부여된 任務는 党的 文芸政策에 의거, 文学이란 수단으로 大衆을 党的 요구대로 引導하거나, 고무추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作家들의 生活과 活動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10개의 章으로 구분하였다.

1章 「作家」에서는 北韓에서 作家로 되는 길, 候補盟員과 正盟員, 직장을 가진 作家와 소위 「解放作家」, 「秘密作家」 등 作家의 類型, 作家들에 대한 待遇 등을 서술하였고, 2章 「作家同盟」에서는 作家同盟의 構成, 任務와 機能, 作家들의 分課別, 地方別 分布, 加盟 節次와 作家들에 대한 統制 實態, 「文学芸術總同盟」과의 關係, 中央党 文学芸術部와의 關係 등을 서술하였다.

3章 「党的 指導·統制·監督」에서는 党的 文芸政策과 文学에 대한 監督 統制 그리고 創作 實踐에 대한 구체적인 統制 實相을 다뤘으며, 4章 「作家同盟 機關紙·雜誌」에서는 「文学新聞」·「朝鮮文学」·「青年文学」·「兒童文学」·「詩文学」·「劇文学」과 「現代文学」 편집부들의 내용과 성격을 취급하였다.

5章 「作家들의 日常生活」에서는 職場에 나가는 作家와 「解放作家」들의 日常生活과 作家들의 党組織 生活 그리고 作家들에게 특수한 몇가지 生活樣式과 娛樂·飲酒 등의 生活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6章 「作家들의 創作生活」에서는 創作計劃의 수립으로부터 取材活動, 執筆過程, 創作室 生活 소위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마」의 統制 등 創作生活의 全般的인 實態를 서술하였다.

7章 「作家들의 苦悶」에서는 日常生活에서의 苦悶, 凶式主義와 作家들의 苦悶, 「革命傳統」主題 作品 創作에서의 苦悶, 「戰爭」主題 作品 創作에서의 苦悶, 「社會主義」建設主題 作品 創作에서의 苦悶, 「祖國統一」主題 作品 創作에서의 苦悶, 翻譯作家들의 苦悶 등을 實例를 들어 서술하였다.

8章 「作家들 속에 일어난 事件·事故」에서는 詩人 金宇哲·自殺事件, 詩人 金鉄과 朴明子 事件, 詩人 黃河一의 反抗事件, 「回想記」 執筆拒否事件, 複雜한 異性交際 등 여러 事件·事故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9章 「異質的인 風土」에서는 60년 에 中半에 있었던 「作品 飢饉」, 作家 努力動員 實態, 硯閣 集体創作 軍專屬作家 配置 등 異質的인 몇가지 現象들을 서술하였다.

10.章에서는 拉北·越北作家들의 그후 運命을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春園 李光洙·尙虛 李泰俊·仇浦 朴泰遠을 비롯하여 무자비하게 숙청 당한 南韓出身 作家들의 비극적인 北韓에서의 生活을 浬급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筆者가 北韓에서 作家가 된 경위와 作家로서의 生活 體驗談을 첨가하였다.

이 體驗談 속에 1960年代 초의 대대적인 作家 芸術人 숙청, 現代版 焚書 事件 등을 다뤘다.

이상. 서술에서는 북괴 치하 作家들이 党的 待女로 되라는 강요를 받고 있으며, 개성과 藝術性을 무참히 유린 당한 生活을 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作家들의 개성과 스타일 그리고 藝術性을 유린 당한 곳에 진정한 文學이 존재할 수는 없다.

자연 진정한 文學이라고는 볼 수 없는 宣傳煽動文들이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뜻 있는 北韓 作家들의 苦悶이 있으며, 그를 解決해 보려는 움직임이 가끔 고개를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매번 独裁의 大刀을 맞고 수그러진다. 北韓의 文學을 구원하는 일은 北韓 作家들의 問題인 동시에 우리 民族이 解決해야 할 問題의 하나이다.



目 次

要 約

序	9
1. 作 家	11
가. 作家란?	11
나. 作家的 類型	12
다. 作家로 되는 길	13
라. 候補盟員과 正盟員	16
마. 作家待遇	17
2. 作家同盟	21
가. 作家同盟의 構成	21
나. 任務와 機能	21
다. 作家들의 分布	23
라. 加 盟	27
마. 文芸總과의 關係	29
바. 党 文學藝術部와의 關係	30
3. 党的 指導・統制・監督	32
가. 文芸政策	32
나. 文學에 대한 監督・統制	36
다. 創作實踐 型態과 統制	43

4. 作家同盟 機關紙・雜誌	52
가. 「문학신문」	52
나. 「조선문학」	53
다. 「청년문학」	54
라. 「아동문학」	56
마. 「시문학」	57
바. 「극문학」	57
사. 「현대문학」 편집부	58
5. 作家들의 日常生活	60
가. 職場에 나가는 作家의 生活	60
나. 「解放作家」의 生活	64
다. 作家들의 黨組織生活	65
라. 作家들의 禮拜風習	66
마. 名節特記	67
바. 「革命戰蹟地」踏査	69
사. 作家들의 娛樂	70
아. 飲 酒	71
6. 作家들의 創作生活	73
가. 創作計劃	73
나. 取材活動	76
다. 創作室	80

라. 「革命的 大作創作 指導千루冊」	82
7. 作家들의 苦悶	85
가. 日常生活에서의 苦悶	85
나. 凶式主義의 作家들의 苦悶	86
다. 「革命傳統」主題 作品創作的 苦悶	88
라. 戰爭主題 作品創作的 苦悶	91
마. 「社會主義建設」主題 作品創作的 苦悶	93
바. 「祖國統一」主題 作品創作的 苦悶	95
사. 翻譯作家들의 苦悶	96
8. 作家들 속에 일어난 事件·事故	98
가. 詩人 金宇哲自殺事件	98
나. 詩人 金 鉄과 朴明子	99
다. 詩人 黃河一의 反抗	101
라. 「回想記」執筆拒否事件	103
마. 複雜한 異性交際	104
9. 異質적인 風土	108
가. 作品 「餓鐘」	108
나. 作家 「勞力動員」	110
다. 後 閱	111
라. 集体創作	112
마. 軍所屬 作家	113

바. 素材求乞	114
10. 拉北・越北作家藝術人들의 그後	117
11. 나의 길	130
가. 韓雪野와 나	130
나. 作家藝術人 肅淸	137
다. 現代版 「焚書坑儒」	141
라. 李泰俊의 아들	151
맺는 말	161

序

이 글을 쓰며 있어서 두가지 점에 留意하였다.

첫째, 筆者가 北韓에서 作家로 創作活動을 하던 1958年~66년까지에 體驗한 바를 위주로 쓰되 있는 그대로 客觀的 立場에서 서술하며, 들찌 機構名, 人名, 地名 등을 具體的으로 記錄하여 資料가 되도록 서술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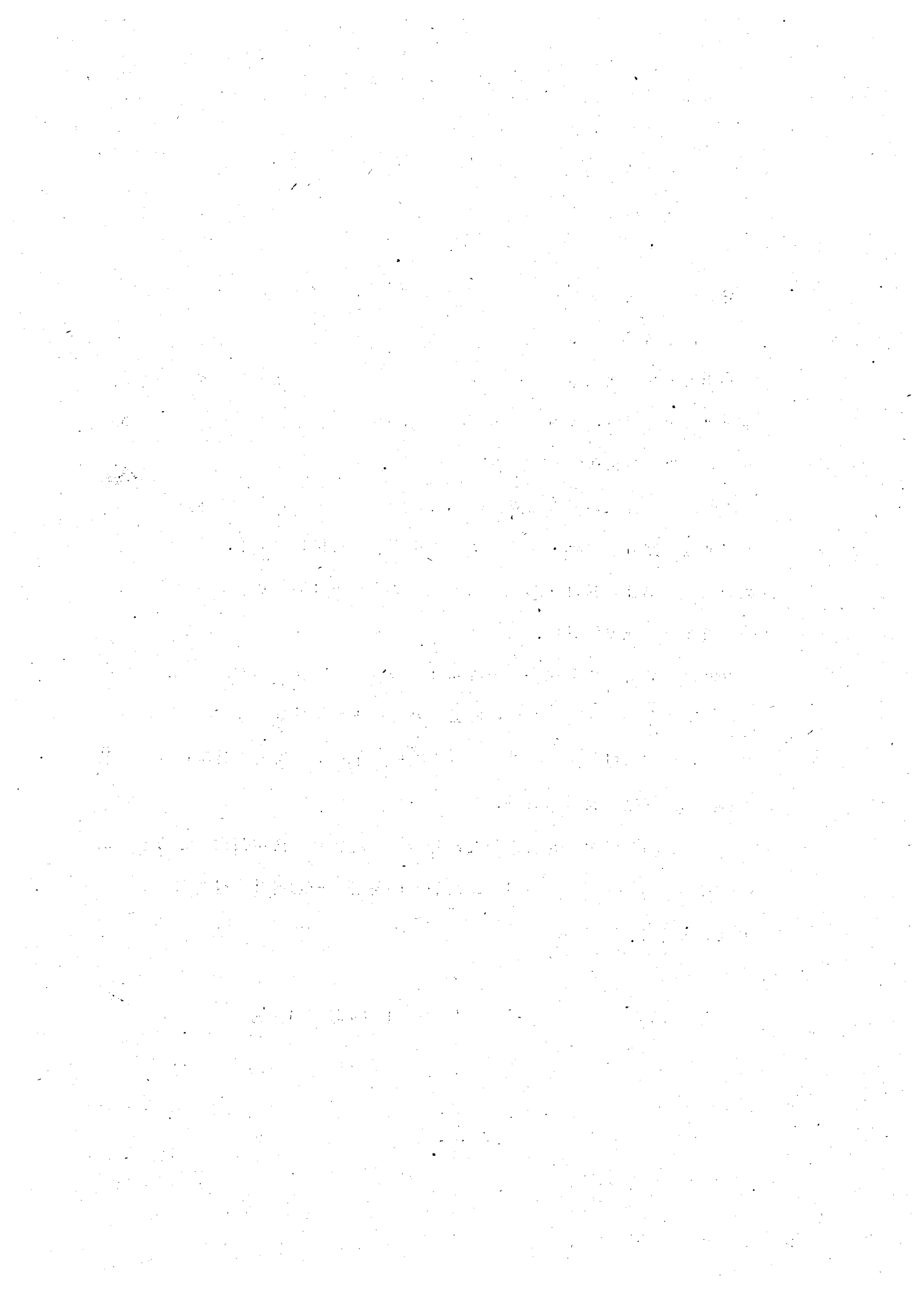
그리하여 作家와 作家同盟, 作家들의 日常生活과 創作活動, 作家들에 대한 黨의 監督·統制 그에 따른 作家들의 苦悶, 事件·事故, 異質的인 風土, 拉北·越北作家들의 그後 實態等으로 대별하여 될수록 자세히 収録하였다.

그리고 北韓 作家隊列 속에서의 筆者의 體驗을 添附하였다.

北韓 作家隊列에서 떠나온지도 어언 13年이란 긴 세월이 흘러 作家名, 地名 등이 생각나지 않아 간혹 누락된 것이 있고, 具體的인 實例들도 빠진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이 北韓 研究, 특히는 北韓의 文學藝術 分野를 研究하시는 분들에게 參考가 되기를 바라는 一念에서 상세히 記錄하려고 애썼다.

1979年 10月



1. 作 家

가. 作家란?

北傀 治下에서 作家란 所謂 「조선작가동맹」 正盟員을 말한 다.

作家로 되기 前에 3年間 候補盟員 期間을 가져야 한다. 특 출한 作品을 發表했을 때는 候補盟員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北傀는 作家를 小說家·詩人·戯曲作家·評論家·兒童文學作家·翻譯 作家로 区分한다.

作家의 資格 基準은 첫째 北傀 勞動黨의 文芸政策에 부합되는 作品活動을 하여 상당한 評鑑를 받은 者, 둘째 出身成分 ~~과~~ 本 人成分이 「敵對階層」에 속하지 않으며, 政治的 背景과 経歴에 「不純」한 점이 없는 者, 셋째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 登錄되어 3年 以上の 候補盟員 期間이 經過한 者, 넷째 北傀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 관철에 献身하고, 作家同盟의 規約을 承認하는 者 等이다.

作家의 任務는 첫째 北傀 勞動黨의 文芸政策을 철저히 관철하 며, 둘째 作家同盟에서 賦與하는 創作 課題를 無條件 充實히 完 遂하며, 셋째 創作活動으로 大衆을 黨의 路線과 政策 관철을 위 한 鬪爭으로 「인간정신의 기수」답게 말하고 行動하여 大衆의 模範이 되며, 다섯째 黨의 文芸政策에 어긋나는 創作 行爲에 대

하여는 무자비한 鬪爭을 展開할 것등이다.

나. 作家의 類型

北韓 作家의 類型은 소위 「해방작가」, 職場을 가진 作家, 秘密作家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방작가」란 職場에 屬하지 않고 創作生活만을 하는 作家에 대한 속칭이다. 「해방작가」들은 作家同盟 道支部들에 속해 黨 組織生活과 創作活動을 한다. 「해방작가」는 作家 總數의 約 20% 정도이다.

職場을 가진 作家란 北傀 黨·政務院·言論機關·教育機關 等に 소속되어 出勤하는 作家들을 말한다. 이 部類에 속하는 作家는 年間 45日~60日의 創作休暇를 받을 수 있다. 北韓 作家의 絶對多數인 80%를 점하고 있다.

秘密作家란 北傀가 對南心理戰을 위하여 中央黨 文化部(對南心理戰의 參謀部) 創作室에 전속시켜 秘密裡에 글을 씌우고 있는 作家들을 말한다.

秘密作家의 數는 15名 内外이며, 文化部에 出退勤을 秘密裡에 하고 있다.

秘密作家들은 거의 南韓 出身들로 1965년에는 小說家 엄홍섭, 김영석, 강현구, 현 덕, 유헌립, 박 훈, 안희남, 詩人 전초민, 임호건, 김상오 등이 속해 있었다.

秘密作家의 任務는 첫째 南韓地域에 撒布할 心理戰用 偽裝冊字에 실릴 小説·詩의 創作, 둘째 對南心理戰用 伝單 原稿의 文學的인 調色, 셋째 日本에서 發行되는 北傀 讚陽冊字·雜誌들에 「統革黨 목소리 放送」의 일부 原稿作成 등이다.

秘密作家들은 자기 創作權限을 完全히 빼앗기고 北傀의 對南心理戰用 들만 쓰도록 철저한 統制를 당하고 있다.

北傀는 秘密作家들의 文体를 통한 身分 露出을 防止하려고, 秘密作家들이 北傀 治下에서 發行되는 新聞·雜誌·單行本들에 글을 發表하지 못하도록 強力히 統制하고 있다. 또한 作家 아파트의 일감을 따로 区分하여 秘密作家들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外部와의 接觸을 될수록 하지 못하게 統制하고 있다.

다. 作家로 되는 길

北傀 治下에서 作家로 되는 길은 두가지로 大別해 볼 수 있다.

하나는 工場·企業所·協同農場·機關·軍隊 등에 組織되어 있는 文學서클에 參與하여 作品을 創作, 担当指導作家의 추천을 받아 현상모집에 응모, 입상하거나 「청년문학」을 비롯한 文芸誌에 作品을 실어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 登錄되어 候補盟員 過程을 거쳐 作家同盟 正盟員이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大學에서 正規教育을 받는 過程에 指導敎授의 추천을 받아 현상모집에 応募 입상 또는

文芸誌에 作品을 실어 候補盟員 過程을 거쳐 作家同盟 正盟員이 되는 길이다.

作家同盟 正盟員이 되기까지는 현상응모에 입선 또는 文芸誌에 作品 發表後 3年以上의 時日이 소요되므로 이 두가지 길이 複合되는 경우도 있다.

筆者의 경우는 興南肥料工場 文學서클員으로 候補盟員이 되었고 그후 平壤文學大學 2學年 在學中에 中編小說을 發表하여 正盟員이 되었다.

年間 5~8名이 作家同盟 正盟員이 되어 作家로 되는데 그중 7割이 文學서클 出身이다.

○ 文學서클 出身의 경우

文學서클은 工場・企業所・協同農場・機關・軍隊에 거의 一瞥없이 組織되어 있다. 該當 企業體 規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5~20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文學서클의 運營은 工場・企業所・機關의 경우에는 該當 職業同盟 文化部에서 擔當하고 있으며, 協同農場의 경우는 農業勤勞者同盟 文化部에서, 軍隊의 경우는 社會主義勞働青年同盟에서 擔當하고 있다.

現地 派遣 作家들이 文學서클의 實質的인 指導를 한다.

該當 文學서클의 指導作家는 文學서클員들에게 文學原論・文學史・創作技法에 대한 講義 또는 집체담화를 하며, 文學서클員들이 創作한 小說・詩・戯曲・評論 등에 대한 個別指導를 한다.

그 作品들 中에 發表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청년문학」을

비롯한 文芸誌 또는 현상모집에 추천한다.

그러나 이렇게 추천할만한 作品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므로 現地派遣 作家들은 新人 養成의 기여도 評価 때문에 적지않은 고심을 한다.

新人 養成에 기여도가 적으면 作家同盟에서 批判을 받는다.

그리하여 現地派遣 作家들은 素質이 있는 자를 發見하면 그에게 集中的인 指導를 하여 実績을 올리려고 애쓴다.

해마다 作家로 되는 수가 지극히 적기는 하지만 文學서클 出身이 7割을 점하고 있는 것은 該當 서클員이 생생한 現場體驗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現地派遣 作家들의 作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文學서클員이 作品을 發表, 일단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 登錄되고 候補盟員으로 加盟하면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서 直接 그들 作家로 養成하기 위한 事業을 한다.

新人指導部の 事業이란 作家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各種 教材들의 定期的인 供給, 優秀한 作家들의 個別指導를 받을 수 있도록 措置, 年間 1個月以上の 定期的인 講習會 組織등이다.

新人指導부에 登錄된 文學서클員과 候補盟員들에 對한 文學講習會는 平壤 또는 各道 所在地에서 該當者들을 集合시켜 進行한다.

職場 責任者들은 該當者를 特別한 理由없이 不參시키면 黨으로부터 制裁를 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빠짐없이 보낸다.

○ 定規教育 履修出身의 경우

金日成綜合大學 語文學部와 人文單科大學 語文科 系統 學生들
中에 文學作品을 創作, 該當 指導教授에 추천을 받아 현상응모에
當選하거나 文芸誌에 作品을 실은 자의 경우는 文學서클員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 登錄되어 指導를 받으나 指
導作家를 새로 선정해 주지 않고 總統 指導教授의 指導를 받도록
하며, 文學講習會에 소집하지 않는다.

其他 正盟員이 되는 節次는 文學서클員의 徑과 같다.

自然系 大學에는 文學서클이 組織 運營되며, 그 서클의 機能은
企業體 文學서클과 같다.

라. 候補盟員과 正盟員

○ 候補盟員

候補盟員은 作家라고 呼稱하지 않는다. 作家同盟에서 組織하
는 各種 會議에 參席할 수 있으나 發言權만 가질 뿐 決定에 參
與할 權利는 갖지 못한다. 該當 職場 職級에 의한 待遇를 받으
며 正盟員이 받는 惠次를 받지 못한다.

候補盟員의 稿料는 正盟員의 50%이다.

候補盟員 期間 3年이 지나도록 正盟員이 되지 못하면 1年間을
더 延長해 주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除名한다.

○ 正盟員

正盟員의 定數는 350名(1966年 現在)이다. 이 定數는 絶對로 超過할 수 없다. 왜냐하면 正盟員은 中央供給對象 8号(政務院 局長級 待遇) 該當者로 衣服과 食糧·住宅을 配定 받는 定數制이기 때문이다.

1966年 現在 약 15名の 여유가 있었다.

正盟員은 자기 職責이 8号對象보다 높을 경우 職責에 의한 待遇를 받으며 職責이 8号對象보다 낮을 경우에는 正盟員에 該當한 待遇를 받을 수 있다.

後者の 경우 住宅 配定과 食糧과 衣服 配給을 作家同盟에서 받아야 한다.

마. 作家의 待遇

作家同盟 正盟員은 中央供給對象 8号 該當者이므로 衣服과 食糧·住宅 配定에서 상당한 待遇를 받는다.

○ 衣服

每年 夏服(毛織) 1착, 冬服(毛織) 1착을 받으며, 3년에 외투(모직) 1착을 받는다.

衣類 配給은, 錢으로 받으며, 洋服部에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맞춰 입을 수 있다. 洋服 1착의 公전은 12원~15원이다. 대체로 스텝카라 式으로 지어 입으나 간혹 벅타이를 댈수 있는 式

으로 만들어 입기도 한다.

北韓에서는 입고 있는 옷의 천에 따라 身分을 區別해 볼 수 있으므로 郡黨 責任秘書보다도 上位級 옷을 입고 다니는 作家들을 우대하며 그러한 社会的 분위기가 作家들의 榮譽感을 북돋는 与件들 中의 하나로 되고 있다.

○ 食 糧

作家는 1日 800그램(白米 8割, 雜穀 2割)의 食糧을 配給받는다. 1975年부터 節約米 100그램을 除外한 700그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이 많지 않은 作家들은 食生活에서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있다.

○ 住 宅

作家들은 作家 아파트를 配定 받는다.

作家 아파트는 平壤市 중구역 대동문동에 位置하고 있으며, 規模는 約 100세대를 收容할 수 있는 정도이다. 地方作家들과 職責에 따라 配定받은 住宅에 사는 作家들이 있으므로 住宅問題 때문에 困難을 當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作家 아파트 정면길 건너편에 高位層의 전용 宴會場인 玉流館이 있다.

作家 아파트는 「색찌아」式으로 1世代당 방 두개(온돌방 1個, 다다미방 1個) 応接室로 쓸수 있는 마루 1個, 부엌, 倉庫, 변소(수세식) 등 約 23.坪 정도이다.

作家 아파트는 北韓가 다분히 手工業的인 일에 從事하는 作家들에

게 個人主義・自由主義 傾向이 濃厚하다고 보고 그들의 個人生活마저 強力히 統制・掌握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作家들은 家庭에 돌아와서도 作家들과 그 家族들로 構成된 「인민반」의 相互 監視・統制 속에서 불안스러운 生活을 해야 한다. 특히 作家들은 比較的 事態判斷에 예리하고 情勢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自尊心이 강한 特性을 지니고 있어서, 監視에 대한 不安과 統制에 대한 緊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어느 한 作家나 그 家族에 의한 다른 作家나 家族에 대한 批難 或은 批判은 극히 예리한 反應을 일으켜 심한 싸움을 誘發하는 比道德的 狀態를 자주 겪게 한다.

小説家 윤세중 (代表作 長篇小說 「시련 속에서」)의 아내가 이 웃과 자주 다투는 신경과민의 生活을 하다가 精神異狀이 돼 버린 것은 그 實例의 하나로 된다.

○ 原稿料

短篇小說 1篇 (80枚 基準) 300원, 서정시 1篇 100원, 短幕戲曲 1篇 (30分 基準) 300원, 中・長篇小說과 評論 枚当 (200字 原稿紙) 2원 50전, 翻譯物 枚当 1원 등이다.

單行本の 경우는 四版까지 版權에 의한 稿料 支払을 認定해 주며, 재판은 原稿料의 50%, 3版은 30%, 4版은 20%를 加算한다. 原稿料에 대한 税金은 없다.

作家同盟 正盟員이 아닌 사람의 原稿料는 正盟員의 50%이다. 原稿料는 比較的 높은 편이나 党 文芸政策에 의한 계약, 創作

与件의 不便, 創作生活에 대한 統制, 編輯部와 檢閲部의 間涉과 作用 등으로 創作契機을 돌리기 어려운 形便이므로 실지 作家들에게 돌아가는 額數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2. 作家同盟

가. 作家同盟의 構成

소위 「朝鮮作家同盟」은 1946年3月 「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의 結成과 함께 그 傘下 團體로서 發足하였다.

作家同盟에는 委員長·副委員長 2名, 書記長·組織部·新人指導部·小說分科委員會·詩分科委員會·戲曲分科委員會·兒童文學分科委員會·古典文學分科委員會·評論分科委員會·外國文學分科委員會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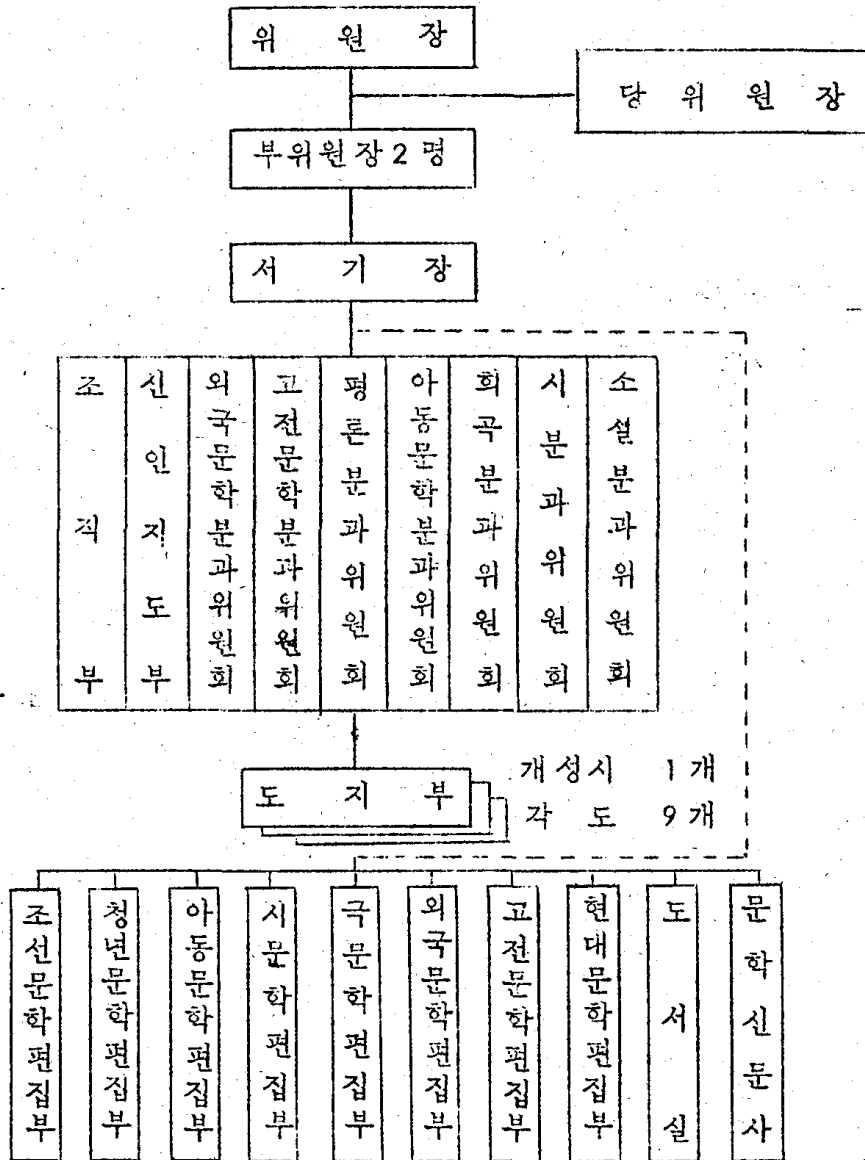
(別紙 機構圖 參照)

이밖에 平壤市·開城市·各道 所在地에 支部를 두고 있으며, 傘下 機關誌 發行 機構로 「문학신문사」와 文藝誌 「조선문학」·「청년문학」·「아동문학」·「시문학」·「극문학」·外國文學·古典文學·現代文學(單行本 發行부서) 編輯部들이 있다.

나. 任務와 機能

作家同盟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作家들이 黨의 文藝政策을 잘 알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指導 統制하며, 둘째 作家들이 黨이 要求하는 作品을 적시에 創作해 내도록 創作 指導 策을 하며, 셋째 作家들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하고, 共產主義 敎養을 實施하며, 넷째 作家同盟 盟員 또는 候補盟員의 加盟과 離盟 權限

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구도



으로 문단등용 및 축출문제를 決定하며, 다섯째 作家同盟 黨委員會를 통하여 作家들에 대한 党的인 統制를 實施하며, 여섯째 正盟員들에 대한 生活 惠沢(食糧·被服 配給等)을 保障한다는 것 등이다.

作家同盟은 形式的으로는 創作團體의 性格을 지니도록 組織된 社會 團體이나, 文學에 대한 党的인 指導·統制 強化의 必須的인 要求로부터 사실상 行政機構나 다른없는 組織이다. 食糧·衣服·配給·住宅·配定 그리고 創作 計劃으로부터 作品 發表에 이르기까지 일체 創作 活動을 관장하는 機構가 社會團體로는 될 수 없다.

作家同盟은 中央黨 文學藝術部 文學課의 直接的인 指導下에 作家들을 묶어세워 党的 要求대로 내모는 道具라고 볼 수 있다.

다. 作家들의 分布

1960년부터 1966년까지 北韓 作家들의 分課別·地方別 分布는 다음과 같다. (기억나는 作家名 収録)

(1) 分課別 分布

◎ 小說分課委員會

- 委員長 黃 健
- 指導員 김덕칠
- 所 屬 正盟員

이상현, 윤세중, 윤시철, 김병훈, 이근영, 박효준, 이정숙, 김홍무, 박태민, 백철수, 김복향, 김근오, 이병수, 이택진, 김승권, 김형구,

김재규, 유근순, 이윤영, 현승걸, 현희균, 변희근, 김석형, 김규엽, 이복명, 최국명, 이갑기, 윤광영, 석윤기, 신진순, 최학수, 진재환, 최창학, 최명익, 유도희, 김영석, 엄홍섭, 강현구, 현 덕, 유항람, 박 훈, 천세봉, 박용걸, 이인집, 허준식, 박태원, 전주걸, 적인태, 안화남, 천청송, 筆者等.

◎ 詩分課委員會

- 委員長 鄒曙村
- 指導員 이광근
- 所 屬 正監員

조벽암, 정문향, 김학연, 김상오, 김우철, 석광휘, 김순석, 허우연, 이 맥, 오영환, 오영재, 이호일, 이호남, 이달우, 상 민, 최지동, 이 찬, 동승태, 한명천, 김영철, 박승수, 김복원, 김희준, 박팔양, 박세영, 최영도, 김동전, 김조규, 김창식, 송승태, 송순현, 박세욱, 김시권, 최호사, 김 혁, 마우룡, 김귀현, 조 운, 이선을, 황하일, 박상운, 이용악, 임호전, 김상민, 김상훈, 이병철, 이정구, 한윤호 (한재덕의 장남), 한진식, 김경일, 송정숙, 양운한, 홍종린, 안용만, 신동철, 이효운등.

◎ 戲曲分課委員會

- 委員長 朴 革
- 指導員 이태환
- 所 屬 正監員

신고송, 이종순, 박영보, 탁 진, 한 성, 조영출, 조백령, 오병초, 김광현, 백인준, 오철순, 송 영, 남궁탄, 이지용, 김명수, 한태천,

박태영, 최복선, 노재룡, 이동춘, 한상운, 주동인, 박태홍, 김세륜, 한
태갑, 김승구, 윤두헌, 유기홍, 권준원, 박종식등.

◎ 評論分課委員會

- 委員長 嚴虎石
- 指導員 김창호
- 所屬 正盟員

안함광, 신구현, 김하명, 염장열, 이상태, 김현순, 박종식, 김
진태, 박연승, 장현준, 강능수, 김병걸, 윤세평, 김명수, 김 하, 한 옥,
한형원등.

◎ 兒童文學分課委員會

- 委員長 李園友
- 指導員 문영숙
- 所屬 正盟員

윤복진, 김정태, 김경태, 민병준, 정기영, 송찬응, 김옥녀, 최복
순, 소명숙, 원웅진, 박병유, 강호순등.

◎ 外國文學分課委員會

- 委員長 崔一龍
- 指導員 김생급
- 所屬 正盟員

서만일, 송고천, 최창섭, 최규환, 박홍석, 장창현, 강석환등.

(2) 地方別 分布 (肅淸者 除外)

○ 平壤市

황 건, 이상현, 장현준, 석윤기, 송 영, 박세영, 이갑기, 신진
순, 최학수, 오영재, 김시권, 진재환, 최창학, 이정숙, 윤복진, 유도희,
윤광영, 권정웅, 김정태, 허우연, 김창식, 정동우, 김순석, 신구현, 박태
민, 손승태, 송순현, 최명익, 김홍무, 박종모, 이상건, 정기영, 백 하,
허준식, 엄호석, 안함광, 김하명, 염장열, 이상태, 김현순, 박종식, 김진
태, 박연승, 김광현, 박 혁, 신고송, 조백명, 오병초, 최복선, 이동춘,
한상운, 주동인, 이종순, 김영철, 박승수, 정서춘, 김학연, 이 백, 오영
환, 이광근, 이태환, 김덕철, 김생금, 이호일, 이호남, 상 민, 천초민,
이달우, 이 찬, 김영석, 엄홍섭, 현 덕, 유항립, 오철순, 박 훈, 박태
원, 강능수, 전주설, 안희남, 신구현, 조벽암, 김문화, 송찬용, 정기영,
김옥녀, 원용건, 김홍무, 박세욱, 조 빈등.

○ 平安南道

박효준, 이근영, 이복명, 최국명, 김규엽등.

○ 平安北道

김학연, 현희균, 백인준, 양운환, 안용만등.

○ 咸鏡南道

박영보, 김재규, 이윤영, 유근순, 서 청, 김우진, 현승걸, 민병
춘, 김병걸등.

○ 咸鏡北道

이택진, 박팔양, 최영도, 김현구, 김동전, 김승권, 최창섭등.

- 黃海北道
윤시철, 변희근, 한 성, 김희준, 김석형등.
- 黃海南道
김병훈, 김복원, 홍원덕등.
- 江原道
장분향, 택 진, 동승태, 유 벽등.
- 慈江道
백철수, 김복향, 김세륜, 김경태등.
- 兩江道
김근오, 김조규, 이병수등.
- 開城市
김광섭등.

◎ 作家同盟 指導部

- 委員長 千世峯
- 副委員長 최영화, 강효순
- 書記長 이인집
- 組織部 노태순, 차명문

(以上 1966年 現在)

라. 加 盟

作家同盟 正盟員으로의 加盟은 候補盟員 期間 3年 (特出한 경

우 短縮할 수도 있다)이 경과된 자로 出身 및 社会成分이 「敵對階層」에 속하지 않고 經歷과 環境이 「불순」하지 않으며 상당한 水準의 作品을 發表한 자를 作家同盟 常任委員會에서 선정, 手續을 밟게 한후 審査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形式上으로는 候補盟員이 加盟願書를 提出하여 手續 절차를 自發的으로 밟는 式으로 進行된다.

우선 正盟員으로 加盟하려는 候補盟員은 「作家同盟의 規約을 承認하고 一定한 組織에서 充實히 일하겠다」는 內容이 담긴 「가맹원서」와 자서전, 履歷書, 創作業績表, 正盟員(3年以上 經歷을 가진者) 3名의 保證書를 該當 分課에 提出한다.

該當 分課委員會는 이를 심의하여 결격사항이 없을 때는 同盟 組織部에 提出한다.

同盟 組織部에서는 이를 檢討한 後 同盟 中央委員會 常任委員會에 提出하며 常任委員會에서는 이를 심의, 加盟 또는 부결을 決定한다.

加盟한 候補盟員은 新人指導部 所屬으로부터 該當 分課委員會 所屬으로 이적된다.

候補盟員의 加盟이 부결되면 候補盟員으로부터도 黜盟시킨다.

단, 作品水準 問題로 부결되는 경우에는 候補盟員 期間을 1年間 더 延長해 주며 그래도 正盟員으로 되지 못할 때 黜盟시킨다.

黜盟 당한 者는 어디에도(工場新聞 包含) 作品을 發表할 수 없다.

마. 文芸總과의 關係

文芸總의 前身인 「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은 1950年 일단 解散되었다가 1961年3月2日 再組織 되었다.

이것이 現存하는 소위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이다. (文芸總은 稱)

文芸總은 傘下에 作家同盟·音樂家同盟·美術家同盟·舞蹈家同盟·演劇人同盟·映畫人同盟·寫真家同盟 등을 두고 있다.

初代 文芸總 委員長은 韓雪野였으며, 現在는 李箕永이 맡고 있다.

文芸總은 委員長·副委員長 3~5名, 組織部·宣傳部·教養部 등으로 指導部를 構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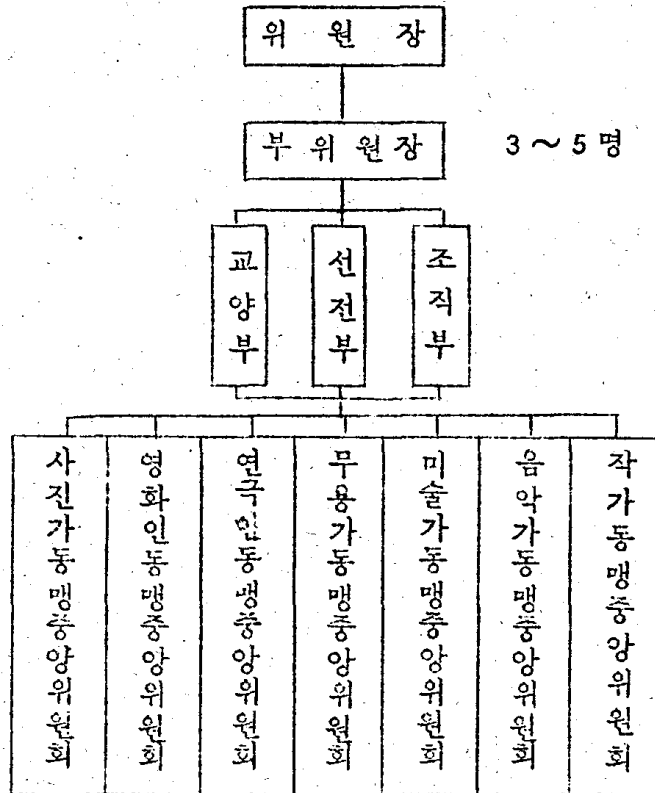
1966年 副委員長들로는 조대원(黨委員長 兼任)·조영출·박명화·이면상·정관철등 5名이며, 實質的인 運營은 副委員長 박명화가 맡고 있었다.

文芸總은 文學藝術 分野의 各 社會團體를 統合 指導하기 위한 聯合團體로 組織되었으나 事實상 傘下 社會團體들을 強力히 指導할 權限은 갖지 못하고 있으며, 또 指導도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各 社會團體를 中央黨 文學藝術部에서 直接 指導·統制·監督하기 때문에 생겨난 必然的인 現象이다.

作家同盟의 경우도 中央黨 文學藝術部 文學課의 實質的인 指導·統制·監督下에 運營되기 때문에 文芸總과 事業問題들에 대한 緊密한 연계는 없다.

문예총기구도



더구나 文芸總은 道支部조차 없어 오히려 道支部들을 가지고 있는 作家同盟의 役割이 文芸總보다 두드러진 形便이다.

바. 中央党 文学芸術部와의 關係

作家同盟은 中央党 文学芸術部の 党的인 指導・統制・監督下에 運營된다.

作家同盟에 대한 實質的인 指導部署는 文学芸術部 文学課이다.

文學課는 作家同盟 加盟과 總盟, 作家別 年間 創作計劃, 創作活動, 作家同盟 機關誌의 運營, 長·中篇小說의 發刊, 作家들에 對한 創作 指導 및 日常生活의 指導·統制·惠沢 賦與等 일체 問題에 對해 指導·問涉·統制하며 加盟과 總盟等 決定이 必要한 問題에 對하여 비준권(思想担当 秘書의 名의로 行事)을 行事한다.

1960年代 初半 中央黨 思想担当 秘書는 金昌滿이었으며, 文學 藝術部長은 高 革, 副部長 최충국, 文學課長 서준걸(朴金喆의 처남), 責任指導員 배단수, 指導員 최철웅外 多數였다.

月 1回 열리는 作家同盟 黨總會에는 文學課 指導員 또는 責任 指導員이 반드시 參席하여 會議을 指導하며, 作家同盟內에 問題가 야기되면 그 比重에 따라 課長·副部長·部長 등이 直接 參席한다.

1962年末, 韓雪野系列 肅清除去를 위한 黨總會에는 金昌滿이 直接 會議에 參席하여 진두지휘를 하였다.

이와 같은 上級兒 특히 中央黨의 直接的인 問涉과 指導 統制는 作家들에게 精神的 苦痛을 주며, 위축된 生活을 하도록 만들어 創作活動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黨의 問涉이 나날이 우심해지는 것은 作家들 을 黨의 侍女로 竊들여 黨이 要求하는 글만을 쓰도록 유도하거나 統制하기 위한 策動인 것이다.

그러면 作家同盟, 具體적으로는 作家들에 對한 黨的인 指導·統 制·監督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党的 指導 · 統制 · 監督

가. 文芸政策

党은 文学分野에 세가지 要求를 提起하였다.

첫째 文学作品 創作에서 「社会主義的 写實主義 創作方法」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며, 둘째 온갖 文学活動에서 「党性 · 階級性 · 人民性」을 고도로 발양할 것이며, 셋째 党的 路線과 政策에 철저히 입각하며, 그의 관철을 위한 武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文学藝術은 社会主義的 写實主義 가치를 높이 들고…… 思想的 面에서나 藝術的인 面에 있어서나 勤勞者들과 靑少年들을 그 어떤 간고하고 長期的인 革命의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党的 가치를 따라 前進하는 共產主義 鬪士로 敎養할데 대한 課業을 充實히 遂行하여야 한다』(1965年 文芸總 党總會 決定書)는 要求가 그를 잘 立証해 주고 있다.

그러면 党이 提示한 세가지 要求의 具體的인 內容은 어떤 것인가?

(1) 「社会主義的 写實主義 創作方法」

北傀가 내세우고 있는 「社会主義的 写實主義 創作方法」이란 『……전형적 環境에서 依形的 性格을 歷史的 具體性과 革命的 發展過程 속에 眞實하게 묘사하되, 共產主義的인 「肯定的 主人公」을 주도적인 立場에 세워 형상화하는 創作方法』이다.

이로부터 「社会主義的 写実主義」의 基本原則들은 다음과 같은 要求들을 提起한다.

첫째로 現實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現實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함은 現實속에 實際적으로 存在하거나 存在할 수 있는 것을 그리되, 그것이 社会的 本質이 되어야 하며 소위 「共産社会」로 이행하는 「一般的 合法則性」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写実主義」는 이러한 本質을 歷史的인 具体性和 「共産革命 發展過程」에서 묘사할 것을 主張한다.

둘째로 共産主義者-소위 「肯定的 主人公」을 主導的인 主人公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社会主義的 写実主義」 文学藝術은 共産主義를 肯定하고 指向하는 文学藝術이기 때문에 소위 「새 것을 指向하는 共産主義者의 전형」을 基本 主人公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大衆을 社会主義・共産主義 思想으로 敎養하는 課業을 遂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創作方法의 발의부터가 社会主義・共産主義 思想을 宣傳 敎養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問題를 가장 重要的 要求로 提起하고 있다.

(2) 党性・階級性・人民性

北傀가 내세우고 있는 文学의 階級性이란, 社会的 意識의 立場을 대변하며, 그것을 絶對 支持하고 擁護하는 性格을 지니게 된

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文学作品은 例外없이 階級的 性格을 띠며, 自己階級的 利益을 擁護하는 思想的 武器로 된다는 것이다.

階級社会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의 階級文化와 상반되는 階級的 利益을 대변하는 文化가 어느 때나 兩立하게 되며 階級的 立場에서 물러선 「超階級的 文化」란 存在하지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고로 소위 「푸롤레타리아文學」은 주저없이 그 階級性을 公開적으로 宣布하며 그를 보다 예리하게 드러내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文學의 党性이란 무엇인가? 상술한 바와 같이 文學은 철저히 階級性을 띠며 党性과 階級性은 서로 分離할 수 없는 사이에 있음을 前提로 한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目的 意識적으로 表現되는 強한 階級性을 党性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위 「마르크스·레닌主義 党性」은 곧 「푸롤레타리아文學」의 党性이며, 文學 藝術의 思想的 傾向性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文學은 黨의 組織되고 計劃된 事業의 한 構成部分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文學이 共產主義 思想의 案內者가 되어야 하며 共產黨의 事業을 促進시키며 黨의 思想과 政策을 文學性을 가지고 大衆에게 傳達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소위 「科學性」 즉 共產主義가 반드시 勝利한다는 理論과 革命性을 結合시켜 現狀을 變革하기 위한 하나의 武器로 되어야 한다는 要求도 있다.

뿐만 아니라 「党性原則」은 作家들로 하여금 黨이 提示한 초기의 問題들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반영할 것도 要求한다. 한마디로 党性이란 文學을 철두철미 黨에 예속시키려는 精神인 것이다.

文學의 人民性이란 무엇인가? 共產主義者들은 人民性を 『共產主義를 完成하는데 理解關係를 가지고 있는 大衆의 利益만을 대변, 반영하는 思想이며 그들에게 복무하는 性格』이라고 한다.

때문에 人民性은 階級性和 統一되어 있다는 것이다. 國民性を 國家와 民族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원들의 理解關係를 나타내는 思想과 性格으로 解釋하고 있는 立場과는 전혀 다르다.

人民性を 評價하는 基準은 우선 共產主義를 指向하는 大衆의 運營에 重要的 關係를 가지며, 人民 大衆의 理解關係上 重要的 관심사로 되는 問題를 設定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階級社會에서는 「共產主義 實現을 위한 大衆의 鬪爭」 問題들을, 社會主義 社會에서는 「共產主義 建設을 더욱 促進시키기 위한 鬪爭」問題들을 取扱해야 할을 意味한다. 또한 作品에서 提起한 問題에 대하여는 共產主義的인 것이 반드시 勝利한다는 解釋과 結論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作品이 大衆에게 充分히 理解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側面들이 統一되어 作品에 充分히 表現되었을 때 그 作品은 「人民性이 높은」 作品으로 된다고 한다.

나. 文學에 대한 監督・統制

北傀 文芸政策의 實現過程은 理論과 實踐間의 矛盾이 複雜하게 뒤얽힌 가시밭길이며, 作家들과 그들의 作品의 처참한 受難의 과정이다.

矛盾은 우선 그 「무자비한 統制性」에서 나타난다.

北傀는 文芸政策 實踐을 위한 統制를 두가지 側面에서 强행하고 있다.

하나는 作家들의 創作 實踐에 대한 철저한 統制이며, 다른 하나는 作品 出版에 대한 嚴格한 統制이다.

(1) 創作實踐에 대한 監督・統制

作家들에 대한 統制는 우선 그들의 創作에 대한 計劃의 하달로부터 始作된다. 具體적으로 作家同盟은 每 作家들에게 創作計劃을 年・分期・月別로 作成 提出할 것을 强要하는 바, 이 計劃은 그 取扱하는 問題 設定이 尙當해 준 範圍에 반드시 遵해야 한다.

1963年부터 1966年 사이에 「主題別 割當」은 소위 「革命傳統主題」(過去 金日成 一黨의 反日鬪爭 業績을 捏造 讚揚하고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內容) 作品~3割, 「戰爭主題」(6.25 當時 北傀軍의 「英雄性」을 捏造 讚揚함으로써 배타적인 精神을 주입하고 호전성을 高취하는 內容) 作品~3割, 「社會主義建設主題」(北傀 發展相을 誇張하고 大衆을 努力 成果에로 高취하는 內容) 作品~2割, 「祖國統一主題」(南韓 現實을 歪曲 宣傳함으로써 「赤

化統一」 目的에 이바지하는 內容) 作品~ 2割로 되어있다.

每 作家들은 이 量的인 配當에 맞도록 年間·分期間·月間 創作 計劃을 作成 所屬 分課委員會에 提出한다.

作家同盟에서는 이를 綜合하여 中央黨 文學藝術部에 提出하여 批准을 받는다.

作家들의 創作은 無條件 이 計劃에 依拠해야 하며, 創作活動은 同盟 指導部의 嚴格한 統制下에 進行되어야 한다. (단 不得已 主題를 변경시켜야 할 경우에는 分課委員會에 사유서를 提出, 상부 承認後에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統制를 위하여 北傀는 作家들을 두가지 部類로 区分해 놓았다.

하나는 工場·企業所·協同農場으로 派遣된 作家(解放作家)群이고 다른 하나는 職場을 가진 作家 群이다.

現地派遣作家(解放作家)들은 開城市·各道 支部의 統制下에 創作 活動을 한다. (創作室欄 參照)

北傀는 이 現地派遣 作家들에게 큰 意義를 賦與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文學은 共產主義 社會建設에 「先導的 位置」에 선 「肯定的인 主人公」을 묘사할 課題를 提起하고 있는데 이 「肯定的인 主人公」은 바로 「勞動階級의 精神으로 武装한 새 형의 人間」이라는 것이며, 그런 人間은 工場 企業所와 協同農場等 「社會主義 建設이 치열히 進行되는 現實」속에 있다는 것이다.

『……勞動階級의 英雄의 性格이 가장 直接的으로 또는 날카롭게

드러나는 事件들은 그들의 모든 정열이 부여지는 創造的 勞動과 연결된 生活속에 存在한다』(1965年 文芸總 黨總會 決定書)

『……作家 藝術人들은 創作事業에서……生活 속으로 깊이 浸透하여 生活을 前進시킬 수 있는 積極的인 主題와 千里馬의 새 生活이 낳는 共產主義的 新 형의 人間을 作品에 민감하게 反映하여야 한다』(上同)

뿐만 아니라 北僑는 作家들이 勞動生活 속에 들어가 直接 손에 마치고 낫을 들고 勞動階級과 어울리므로써 「勞動階級の 革命精神」을 더욱더 하여 「새 형의 인텔리」로 改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現地派遣 作家들은 週 2~3日 創作室에 出勤하지 않고 作業現場에 나가서 勞動者 또는 農民들과 어울려 勞動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있다. (長·中篇 執筆中일 경우는 例外)

現場에서 勞動하며 取材하는 날자와 創作室에 出勤하여 執筆하는 期間等은 必要에 따라 調整되기는 하나 어쨌든 이 作家들의 生活은 주어진 創作計劃 課題를 完遂하기 위하여 機械처럼 鞭대를 늘리는 道具로 墮落되기 쉽다.

職場을 가진 作家들의 境遇는 創作課題를 現地派遣 作家들보다 적게 받는다. 勿論 量이 적고 많고가 問題로 되지는 않는다. 文學 作品은 그 質-藝術性의 높이로 먼저 재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職場을 가진 作家들은 職場事業에 묻혀 創作을 할 時間 餘裕가 없으므로 하는 수없이 眞이나마 참여 주었

다. 이들에게는 小説家인 경우 年間 短篇小說 4 篇程度, 詩人은 서정시 8~10 篇, 戲曲作家는 장막 1 篇 정도의 課題를 받는다.

北僞 治下에서는 한 職責을 맡은 사람은 그 責任外에 다른 일을 할만한 틈을 얻기 困難하다. 그래서 北僞는 「創作休暇」란 名目으로 저들에게 必要한 글을 「生産」할 수 있는 時間을 주고 있다. 「創作休暇」는 45 日~60 日 정도이다.

이와 같은 統制는 作家들이 가장 不可欠하게 必要로 하는 私的인 創意·嗜好에 의한 더 許容된 自由·思想과 想像·形式과 內容 구사의 自由等を 극도로 구속하여 참다운 意味에서 「創作의 空氣」에 젖을 수조차 없게 만든다.

사실상 現地派遣作家이건 職場을 가진 作家이건 間에 作品 創作의 自由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다.

北僞는 이 두 部類의 作家들에 대한 統一的인 監督·統制를 하기 위하여 分期에 1 回 作家同盟 黨生活 總和會를 소집한다.

(2) 出版에 대한 監督·統制

作品 出版에 대한 統制는 아주 嚴格하고 철저하게 감행된다. 이 統制야말로 作品 出版에 앞선 最終的인 閘門으로 되기 때문이다.

黨은 出版을 直接(出版總局 指導) 統制한다. 이 統制는 크게 세가지 方法으로 区分 實施한다.

作品의 회부과정, 作品의 檢閱過程, 作品의 出版 및 配布過程이 바로 그것이다.

작품의 회부과정은 提出된 作品을 編輯部에서 作家와 編輯員間의 檢討하는 過程인 바, 編輯部에서는 그 作品에 대하여 作家와 함께 共同責任을 지게되어 있어서 作品의 思想・藝術性을 두고, 여러 차례 修正할 意見을 提起하게 마련이다.

編輯部에서 作家에게로, 作家로부터 다시 編輯部에로의 原稿 修正은 거의 3~5次 심하면 그 以上 反復될 수도 있다.

北韓 作家들은 이 過程을 「운동카이(運動會)」라고 揶揄해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編輯部에서 採択된 原稿는 北韓 「政務院」出版總局 檢閱局의 檢閱을 받아야 한다.

檢閱內容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黨의 路線과 政策을 잘 反映하고 있는가?
- 「社會主義的 寫實主義 創作方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 「國家」 및 軍事秘密을 露出시킨 部分이 없는가?
- 社會制度의 不定的 側面이 묘사된 個所가 없는가?
- 資本主義的 思想 要素가 나타난 部分이 없는가?
- 大衆의 「共產主義 教養」에 도움이 되는가?
- 戰鬥性・革命性・階級性이 充分히 발양되었는가?
- 藝術的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 單語와 어휘 表現이 正確한가?

檢閱에 基本的으로 通過되어도 部分的으로 몇個所 修正할 意見이

提示되면 作家에게 반환하여 修正시켜 다시 提出케 한다. 統制가 얼마나 極甚한지는 몇가지 例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다.

小説 作品中 自然 描写도 軍事秘密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細密하게 할 수가 없다.

北韓의 軍事基地와 軍需工場이 散在해 있는 慈江道와 尙江道の 일정한 地域, 重要産業 企業所가 있는 地域은 비록 文学作品이라 할지라도 그 地帶의 名稱을 쓸수 없고, 自然描写와 環境描写도 할 수 없도록 規定해 놓았다.

檢閲에 通過되어 「檢閲印」을 原稿에 받아야 비로소 出版에 회부할 수 있다.

檢閲機關에서 가장 神經을 쓰는 것은 北傀의 路線과 政策에 부합되는 즉 北傀 指導層의 比위에 맞는 作品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金日成의 鬪爭業績을 捏造 讚揚한 소위 「革命傳統」작품에 대하여 지극히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잘못된」 것을 通過시켜도 責任을 지지만 金日成을 讚揚하는 作品을 芸術性이 저조하다고 부결해도 責任을 질 경우가 있다. 때문에 檢閲機關은 말할 것도 없고 出版社들에서도 저속한 作品을 눈감고 通過시키는 境遇가 허다하다.

그러면 北傀의 路線과 政策에 맞는 作品들이란 어떠한 것들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暴力鬪爭—戰爭 意慾을 고취하는 作品을 들수 있다. 이를 北傀는 「革命的인 作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自己의 政治的 支配를 確立하기 위한 鬭爭에서 革命的 暴力없이는 勝利할 수 없다』(金日成의 1968年 「9·9 節」記念 報告에서)

『作家 芸術人들은 党的 充實한 방조자로서 党的 提起한 初期의 問題들을 적시에 取扱해야 한다』(金日成의 1962年 11月 27日 「作家 芸術人들에게」演說에서)

이리하여 6·25 戰爭을 背景으로 한 作品들이 쏟아져 나왔다.

長篇小說 「포화 속에서」, 「시대의 탄생」1·2·3部, 「전사들」 등 藝術性を 운운할 여지도 없이 저속한 作品들이 橫行하게 되었다. (60年代)

이와 함께 金日成을 偶像化하고 暴力精神을 고취하기 위한 作品들이 大量 「生産」되었다.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教育은 個人督裁 體制를 強化함으로써 北德의 全体主義 制度를 維持해야 할 必然的인 要求이기도 해서 매우 성행하였다.

이 部類의 作品들로는 長篇小說 「청년전위」1·2部, 「서광」1·2部, 「역사」, 「아들딸」, 「고난의 역사」, 「수령과 함께」등과 8卷 (1966年 現在)으로 된 「抗日빨찌산 參加者들의 회상기」와 「인민들 속에서」등을 들 수 있다. (1966年 現在)

戰爭 및 「革命傳統」을 主題로 한 이런 作品은 北韓에서 「生産」되는 作品 總量의 6割을 計劃대로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北德의 비위에 맞는 作品들로 나머지 4割을 차지한 「社會主義建設 主題」作品, 「赤化統一」意慾 고취주제 作品들도 상술한

작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藝術적으로 저조한 形便에 놓여있다.

이런 北傀 指導層의 비위에 맞는 작품들은 그런대로 檢閱機關에서 되서리는 맞지 않으므로 어차피 우수한 作品創作을 斷念한 大部分의 作家들은 主題 選擇에서 편견을 가지게 마련이다.

出版에 회부시에도 「金日成 偶像化」와 호전성 고취에 요긴한 작품들은 「特」이란 빨간 도장이 찍혀 一列縱隊로 늘어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原稿들을 뒤로 물리치고 먼저 인계될 수 있다.

出版過程에서 造版, 재고지 등은 檢閱部와 編輯部에서 재차 檢討를 進行한다. 이토록 作家들의 創作生活로부터 作品의 出版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한 組織 統制는 은갖 矛盾을 빚어내는 禍根으로 된다.

다. 創作實踐 統制

北韓에서는 年間 長篇小說 20篇, 短篇小說 450~500篇, 詩集 10卷, 서정시 750~800篇, 장막희곡 20篇, 영화시나리오 30篇, 무용극 대본 약간을 「生産」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 「生産」하면 單行本 및 各種 雜誌 出版社 19個의 劇場, 531個의 映畵館(1966年 現在)을 運營하여 大衆敎養의 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타산한다.

文學作品 「生産部隊」는 小說家 70餘名, 詩人 150餘名, 劇作家 60餘名, 兒童文學家 40餘名, 翻譯作家 30餘名, 評論家 40

餘名 정도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創作의 收穫은 人員의 머리수와 正比例하는 것이 아니다. 상술한 여러 矛盾들로 하여 作品의 質은 매우 低俗하며, 심한 경우는 文學 作品이라는 이름조차 붙이기 부끄러운 것들이 많다.

記錄主義的인 「実記文學」이란 文學以前의 「作品」들과 그 社會 制度를 아름답게 粉飾만 하라는 데로부터 아무런 生活的인 바탕이 없는 허황하고 공상적인 妄想만이 支配하는 公式主義的인 作品들이 橫行하게 되었다. 하여 大衆은 文學作品을 어느 理論 書籍이나 敎養講座를 내하는 態度로 다루게 되었다.

이는 北傀 自身이 내세운 「文學藝術을 特殊한 敎養手段으로서의 使命」을 「遂行」시키려고 하는 要求에도 어긋난 것이었다. 結局 文學의 現象은 北傀 指導層을 當황하게 하였다.

北傀는 文學이 이런 形便에 떨어지게 된 重要原因을 크게 세가지로 分析하였다.

첫째는 作家들에 대한 指導와 統制를 잘하지 못한데에 있다. 특히 作家들의 創作團體인 作家同盟이 官僚的인 行政團體로 變質하여 行政的인 指導·統制만 하고 創作의 양양을 위한 創作指導 事業을 게을리한데 있으며, 둘째로 作家 藝術人들이 아직도 「부르조아思想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勞動階級의 精神」으로 武装하지 못한데서 「共產主義 建設」의 主人公들의 「鬪爭」을 觀照的으로만 觀察하여 共產主義 「鬪士」들의 內面世界의 심오한 眞實을 포착하지 못한데 있으며, 셋째로는 作家들 속에 潛在하여 있는 反党的인

有價로운 要素를 除去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다.

이 소위 「癌」을 「手術」하려는 試圖는 長期間에 걸쳐 進行되었다.

우선 作家들 속에 黨의 路線과 政策을 文學에 反映시킴에 對한 要素를 除去하려는 試圖는 作家들 속에 潛在해 있는 「부르조아思想」을 除去한다는 名目으로 단행되었다.

이는 全體主義 制度下에 肅清의 必然性·不斷性이 文學分野에 反映된 것이기도 하다.

文學藝術 部門에서 「思想鬭爭」은 1952年 末頃 南勞黨系列 作家들의 肅清으로부터 始作되었다. 林和(詩人·文芸總 副委員長), 金南天(文芸總 書記長), 趙一鳴(文化宣傳省 部長) 등 文芸界 거물급을 비롯한 南韓 出身 作家들이 된서리를 맞고 絞首臺의 이슬로 지거나 流配살이로 쫓겨났다.

1956년에는 文芸總 副委員長 李泰俊을 비롯한 이른바 「社會主義的 寫實主義 創作方法에 挑戰한 純粹文學派」와 이들에게 동조한 親屬系 奇石福·鄭律(文化省 部長)들에 對한 肅清이 감행되었고, 세번째 고비는 黨 4次大會(1961年)에서 強力히 提示한 소위 「思想革命·文化革命·技術革命」을 完遂하기 위하여 그 「前哨部隊」로 되는 作家 藝術人들의 「隊列整備」였다. 이는 北韓 「文化革命」의 서전으로도 되었다.

文芸總 委員長 韓雪野·詩人 閔丙均·만담가 申不出·무용가 崔承喜等 無수한 作家 藝術人들이 「黨文學」에 挑戰하고 「그 어떤

새 「文學藝術」을 추구한다는 「罪名」이 붙어 肅清 당하였다.

北傀는 이러한 肅清過程에서 該當人物의 除去에 만 머무르지 않고 연일 繼續되는 會議와 個別 接觸을 통하여 作家 藝術人들의 思考 方式을 「党的 思想體系」의 틀에 얽어 매려고 試圖하였다. (作家 藝術人 肅清欄 參照)

『……오늘날 우리 앞에는 「인테리」들을 革命化해야 할 重要한 課業이 나서고 있다. 「인테리」를 革命化하며 勞動階級化 한다는 것은 「인테리」들의 意識속에 남아 있는 資本主義思想 잔재를 完全히 없애고 그들을…… 共產主義 思想으로 武裝시켜…… 열렬한 共產主義者로 改造한다는 것을 意味한다』(金日成, 1967年10月 党 2次 代表者會議 結論에서)

作家들에 대한 思想的 統制는 갈수록 強化되어만 갈 것이 뚜렷하다.

또한 作家同盟을 創作團體로 고쳐 보려고 試圖하였고, 또 집체적인 「創作구름」을 組織도 하였다. 1964年末에 組織된 소위 「革命的 大作 創作指導 구름」은 그 實例의 하나이다. 이는 作品의 質을 높이려는 對策과도 결부되었다. (「革命的 大作 創作指導 구름」參照)

北傀는 이의 效果的인 實踐을 위해 中堅 評論家와 作家들을 망라한 「大作創作審議會」를 10명정도로 組織하여 「創作구름」에 망라된 作家들의 作品 主題의 選定·푸릇·構成·執筆過程 등을 일체 干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金日成이나 그 側近者들에게 信任을 얻은 자들로 組織

된 「大作創作審議會」는 金日成에게 아부하는 作品만을 量産하는데 「貢獻」하였다.

金日成의 過去 鬭爭業績을 捏造 讚揚한 長篇小説 「아들 딸」, 「숲은 설레인다」, 장막희곡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 「해바라기」등 아침에만 精神을 쏟은 졸렬하고 低俗한 作品들이 「生産」되었다.

『……일련의 作品들이 나왔으나 党이 要求하는 大作 創作에 对 答할만한 作品은 없다. 革命的 大作이란 一作品에 描写되는 一定한 時代와 人民生活의 歷史에 대한 심오한 洞見이며 거대한 歷史的 흐름 속에서 겪는 각이한 階級들의 社会的 運命에 대한 이야기이며, 수다한 時代的 전형의 創造이다…… 우리는 党의 期待에 보답하기 위하여 芸術的인 저조성에서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한다』

(1966年 文芸總 中央委員會 決定書에서)

北韓에서 틀스토이나 고리끼와 같은 文豪가 誕生하리라는 허망한 空想的인 꿈을 가진 것만도 참으로 「대담한」 일이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고리끼는 다시 北韓 땅에 復活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그 그림자조차 비치지 못할 것이다.

「革命的 大作」은 커녕 北韓에서는 「作品凶年」으로 出版社·新聞社에 「作品饑饉」이 엄습하여 큰 混亂이 야기될 일마져 있었다.

1963년부터 64년에 이르는 동안 韓雪野를 비롯한 文芸界 거물들을 肅清하는 「思想檢討會」가 연일 繼續되어 作家 藝術人들은 더욱 위축되어 創作活動은 完全히 沈滯狀態에 빠졌다.

여러 出版社와 劇場들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다. 編輯員들이 줄을 서서 作家들의 住宅 문설주가 닳도록 드나들었으나 글은 나오지 않았다.

中央黨 文學藝術部에서는 부득이 「思想檢討會」를 중단하고 創作할 時間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作家들은 時間이 없어서만 創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黨 文芸政策에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하거나, 文芸政策을 어느 정도 把握했다 할지라도 그런 구속에 얽매인 作品을 쓸 意慾이 나지 않거나 또는 藝術的 水準이 너무 낮은데 원인이 있었다.

이에 당황한 中央黨 文學藝術部에서는 作家同盟을 통하여 매 作家들에게 創作計劃을 새로히 하달하고 그를 집행하도록 독촉할 것을 強要하였다. 또한 計劃을 미달하면 엄한 賞罰이 適用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造成해 놓았다. 마치 어느 工場에서 製品을 단드는 式인 「作品生産」이 強要된 셈이다.

文學의 범주에 包含시킬 수조차 없는 低俗한 作品들이 또 다시 「量産」되어 겨우 「餓饉」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이 過程에 北俄 文芸政策의 矛盾이 여실히 暴露되어 버렸다.

黨과 作家同盟에서는 作品의 質이 저조해져만 가는 原因을 재차 규명하였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原因을 作家들이 「勞動階級의 精神, 黨的인 思想体系」로 武装하지 못하고 「黨에 充實한 共產主義者—勞動階級の 戰鬪場」인 生活 現實에 몰인식한데 있는 것이라는 단정을 내

렸다.

『作家 芸術人들을 現實 속으로!』라는 구호가 다시금提起되었다. 作家 芸術人들을 「勞動階級」이 일하는 現實 속으로 侵透시키므로써 「勞動階級の 精神」을 터득하여 「진정한 共產主義者の 典型을 創造하려는 慾望」이 생긴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制度의 優越性은 國家 經濟力의 成長을 規定할 뿐만 아니라 人民生活의 이리저리한 습관에도 깊은 變化를 規定한다. 各 分野에서 創造的 勞動이 이룩한 成果, 이 成果로 하여 豐富化되는 人間精神의 變化는 거대한 創作的 素材를 作家 芸術人들 앞에提起한다. 作家 芸術人들은 群衆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이 素材를 發見해야 하고 그를 藝術化해야 할 榮譽로운 課業을 짊어지고 있다』(金日成 1962年 11月 27日 演說 「作家 芸術人들에게」에서)는 말을 具體化하여 文藝總은 中央委員會 「決定書」(上同)에서 『……勞動階級の 性格이 가장 直接的으로 또한 날카롭게 드러나는 事件들은 그들의 모든 정열이 부어지는 創造的 勞動과 연결된 그런 生活속에 있다. ……作家 芸術人들은 現實 속으로 깊이 侵透하여 生活을 前進시킬 수 있는 積極的인 主題와 千里馬 새 生活이 낳은 共產主義的 새 형의 人間을 作品에 민감하게 反映하면서 党性・階級性 原則을 철저히 고수하며…… 부르조아 美學思想의 影響과 침습을 추호도 容納하지 말고 그와 堅決히 鬪爭하면서 文學藝術의 戰鬥性을 加一層 擧고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이리하여 1964年 末과 1965年 上半年에 수많은 作家들이 勞動現場으로 派遣되었다.

그러나 現場에 派遣된 作家 芸術인들의 大部分은 두가지 고통만을 體驗하였다.

하나는 北德가 그토록 「主人公」이라고 떠들고 있는 「勞動階級」이 酷甚한 勞動에 苛酷하게 내몰리고 있는 生活의 비참성에 대한 認識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對象을 다시 본 괴로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勞動階級」속에 그들과 어울리는 過程에 참을 수 없이 힘겨운 고역에 대한 體驗에서 얻은 괴로움이었다.

性質이 급하고 反抗心이 강한 일부 作家들은 慘酷한 現地 笑態를 사실대로 典型化하여 描写하는 作品을 썼다가 檢閱機關의 무차비한 「大劍」에 맞아 동정과 비웃음이 엇갈린 不調和의 作家隊列에 파문을 던지고 그 隊列에서 쫓겨난다.

그런대로 黨의 要求에 부합되는 글을 쓰려고 努力한 사람들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慘酷性에 동정하는 뜻이 비쳐 「檢閱의 閨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結局 創作은 여전히 부진하였다.

黨은 作家들의 자유분방한 手工業的인 創作態度가 하루 아침에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고 다시금 行政的인 組織의 틀에 얽어매어 強力히 統制하기로 하였다.

「創作室」(「創作室」欄 參照)에서의 「集体執筆」生活은 加一層 嚴格히 統制되었다. 「創作하는 機械로서의 生活」이 無條件 強要된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党은 自己 路線과 政策에 文学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막다른 궁지에 몰린 「社会主義的 写実主義」를 구원하고, 文学의 「党性·階級性·人民性」을 確立하려고 모대기 질치고 있지만 이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대짐인 것이다.

北傀의 文芸政策은 一見 뚜렷한 것 같으면서도 文学 芸術이 가지는 여러 特性和 부딪쳐 發生되는 矛盾들로 하여 심각한 위기에 直面하고 있다. 北傀가 모대기질 치면 칠수록 矛盾과 矛盾이 차차 바뀌처럼 엇갈려 空轉하는 속에 끼운 作家 芸術人들의 비참한 신음 소리만 높아갈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北韓의 作家들은 作家들의 宿命인 創作을 위하여 어떤 人間社会·制度가 必要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미 깨달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北傀 文芸政策을 批判하고 자기 責任을 實現하려고 努力할 날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4. 作家同盟 機關紙・雜誌

作家同盟 機關紙로는 「문학신문」이 있고, 機關 雜誌들로는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극문학」, 「시문학」이 있는 바 그 實態는 다음과 같다.

가. 「문학신문」

「문학신문」은 1961年 3월에 創刊된 隔日刊紙이다.

主筆・副主筆・編輯局長・編輯記者 13名 포함 46名이 일하는 小規模 新聞社이다. 1966年 當時 主筆은 권정훈, 副主筆 이 맥, 編輯局長 원용건등이 간부진을 이루고 있었다.

4面紙로 1面은 党的 文芸政策 宣傳, 2面은 新作小說 및 詩・評論 掲載, 3面은 文學界 消息과 模範의 일반화 記事, 4面은 海外 文化 消息 및 外國作家들의 作品 掲載 등으로 構成된다.

優秀한 作品이나 南韓의 小說(「오발탄」・「분지」등 掲載)을 실을 때에는 2・3面을 모두 할당하기도 한다.

「문학신문」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作家 藝術人들을 党的 路線과 政策 貫徹에로 鼓舞推動할 것이며, 둘째 党的 文芸政策에 위배되는 作品活動에 대한 紙上 批判事業을 展開하며, 셋째 作家들에게 수시로提起되는 創作方向을 적시에 傳達하며, 넷째 北傀가 要求하는 優秀한 文學 作品의 模範을 一般化하며, 다섯째 作家들이 부과된 創作課題를

제때에 完遂하도록 積極 鼓舞 推動하며, 여섯째 討論할 必要가 있는 作品(주로 短篇小說·서정시)들을 地上에 公開하여 討論회를 組織하고 그에 대한 党的 結論을 提示하며 일곱째 소위 共產陳營 여러나라 先進文化를 소개하며 作家들의 創作 美術水準을 높이기 위한 事業을 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문학신문」은 北韓의 作家 藝術인들이 党的 文芸政策을 成果的으로 貫徹하며, 党이 要求하는 方向의 文學藝術을 創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道具이다. 그래서 「문학신문」의 紙面은 党的 政策, 党이 提起한 創作 目標과 課題, 党이 排斥하는 글에 대한 批判 등의 內容이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

나. 「조선문학」

月刊 文學雜誌 「조선문학」은 作家同盟 機關誌로서 文芸總 出版社에서 發行하며 平壤 綜合印刷工場에서 印刷된다.

「조선문학」에는 연재소설 1~2篇, 短篇小說 7~10篇, 서사시·서정시 40餘篇, 評論과 其他 4~5篇 정도가 실리며, 면수는 4×6 배판 200페이지 內外이다.

1966年 「조선문학」編輯部는 部長 김분화, 編輯記者 조경환·오영환·김창호·윤경자外 2名등 도합 7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조선문학」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作家들에게 党的 文芸政策과 文學藝術 分野에 수시로 提起되는 党的 施策을 宣傳하고 그의 관

철을 위한 事業에 鼓舞推動하며, 둘째 作家들의 創作活動을 党이 要求하는 方向으로 引渡하고 創作結果를 소개 發表하는 活動場을 提供하며, 셋째 党이 要求하는 文學 作品을 掲載하여 成人들의 教育 敎養에 기여하며, 넷째 作家들에 대한 唯一思想體系 確立과 共產主義 敎養에 이바지하며, 다섯째 党的 文芸政策에 어긋나는 作品들을 批判하고 紙面을 통해 그 시정을 促求하며, 여섯째 共產圈을 비롯한 修交諸國과의 文化 交流에서 北傀의 文學 實態를 보여주는 代表的인 雜誌의 役割을 할 것 등이다.

이러한 制約으로 하여 「조선문학」은 文芸雜誌이나 政治色이 짙은 內容만을 실게 되어 일반 社会科学 雜誌와 別로 다른 實態이다. 다만 小說·詩·戲曲·評論등 文學의 범주에 속하는 形式의 글을 실었다는 것이 다르나, 그것도 소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 創作方法」의 틀에 얽매어 강한 傾向性을 띤 것들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實例로 党에서 作家同盟을 통해서 「朝鮮文學」에 掲載할 作品들도 소위 「革命傳統 主體」 3割, 「戰爭主體」 3割, 「社會主義 建設主體」 2割, 「祖國統一 主體」 2割이 되도록 할당해 주는 등으로 철저히 統制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다. 「청년문학」

月刊 文學雜誌 「청년문학」은 作家同盟 中央委員會 機關誌로 文芸總 出版社에서 發行하며, 平壤 綜合印刷工場에서 印刷된다.

「청년문학」에는 既成作家들의 短篇小説·詩·戯曲·評論들과 新人들의 小説·詩·戯曲·評論들을 掲載한다. 「청년문학」의 크기는 4×6 배판 120 페이지 内外이다.

1966年 「청년문학」 編輯部는 部長 백 하, 編輯記者 김한운, 이호인, 이숙녀, 조 빈, 소명숙등 6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청년문학」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党 文芸政策과 수시로 提起되는 文芸施策을 青年 文學徒들에게 宣傳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事業에로 鼓舞하며, 둘째 文學部門 新人들의 創作活動 方向을 인도하고 문단 進出의 길을 터주며, 셋째 北傀가 要求하는 文學作品들을 掲載하여 靑少年들의 敎育 敎養에 기여하며, 넷째 兎 文芸政策에 어긋나는 詩人들의 作品들을 批判하고 紙面을 통해 그 시정을 促求하며, 다섯째 青年들 속에 唯一思想体系 確立과 共產主義 敎養에 이바지하며, 여섯째 新人들의 문단 登용문의 역할을 하며, 일곱째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의 대변자 役割을 한다는 것 등이다.

「청년문학」은 新人 文學徒들의 문단 登용문이며, 青年들 속에 党的 文芸政策을 관철하기 위한 道具이다. 그렇기 때문에 新人의 文學作品 한편을 실는데 있어서도 그의 政治的 背景을 文學的 才能보다 重視하여 優秀한 文學作品이 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實例로 「敵對階層」成分을 가진 자를 親戚에 두고 있는 青年 新人이 優秀한 文學作品을 創作하여 보내왔다 하더라도 「청년문학」 編輯部에서는 그 글을 실을 수가 없도록 党的인 統制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라. 「아동문학」

月刊 文芸誌 「아동문학」은 作家同盟 中央委員會 機關誌로서 文芸總 出版社에서 發刊하며, 平壤 綜合印刷工場에서 印刷한다.

「아동문학」에도 兒童文學作家들이 쓴 兒童小說·童詩·童謠·評論과 兒童들이 創作한 作品 약간이 실린다.

「아동문학」의 크기는 4×6 판 200 페이지 정도이다.

-1966年 「아동문학」 編輯部는 部長 송찬웅, 編輯記者 정기영, 김옥녀外 2名 포함 5名이었다.

「아동문학」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文學作品을 통해 黨의 路線과 政策을 兒童들에게 宣傳하며, 둘째 文學을 통해 金日成 偶像化와 唯一思想體系 確立에 기여하며, 셋째 兒童들의 共產主義 敎養에 이바지하며, 넷째 兒童들의 文學的인 소양 開發과 文學 創作才能 培養에 기여한다는 것 등이다.

「아동문학」은 共產獨裁體制의 強化와 사람들을 어린시절부터 철저히 노예화하기 위한 策動을 文學作品으로 보조하는 手段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의 內容은 金日成·偶像化, 集團主義 精神 주입, 「포마 7個年計劃」等 勞動參與·의식고취 등의 內容이 위주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아동문학」은 어린이들을 獨裁者의 노예로 길들이기 위한 手段이며, 어린시절부터 人間的인 것을 말살하고 共產 노예화하기 위한데 服從하는 道具라고 말할 수 있다.

마. 「시문학」

季間 文芸誌 「시문학」은 作家同盟 詩分課委員會의 機關誌이다. 「시문학」은 文芸總 出版社에서 發行하며, 平壤 綜合印刷工場에서 印刷한다.

「시문학」에는 서사시·서정시·詩評·論文·詩人들의 創作 동향기 사 등이 掲載된다. 「시문학」의 크기는 4×6 배판 70 페이지 内外이다.

「시문학」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詩人들에게 黨이 詩文學 分野에 提起한 施策을 傳達하고, 그의 철저한 관철을 促求하며, 둘째 서정시·서사시·叙情叙事詩·歌詞 등을 실어서 公開討論을 위한 資料를 提供하며, 셋째 詩人들 속에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하고 共產主義的 人間型으로 精神 武装시키는데 기여하며, 넷째 詩 分野의 地上討論을 組織한다는 것 등이다.

「시문학」은 作家들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詩人들을 黨의 要求에 無條件 充實하도록 만들어 宣傳煽動 事業에 더욱 效果的으로 利用하기 위해 刊行하는 雜誌이다. 그러므로 「시문학」에는 黨이 詩文學 分野에 提起한 課題를 成果的으로 完遂하자는 論文·解説·評論들이 많이 실린다.

바. 「극문학」

季間 文芸誌 「극문학」은 作家同盟 戲曲分課委員會 機關誌이

다. 文芸總 出版社에서 發行하며, 平壤 綜合印刷工場에서 印刷한다.

「극문학」의 크기는 4×6 배판 70 페이지 内外이다.

「극문학」의 任務와 機能은 첫째 戲曲作家와 映画 시나리오 作家들에게 黨이 戲曲創作 分野에 提示한 課題를 알려주고 그 完철을 促求하며, 둘째 劇作家들의 作品을 公演 또는 搬影하기 前에 地上에 公開하여 가부를 討論하는 場所(紙面)를 提供하며, 셋째 劇作家들 속에 唯一思想体系 確立과 共產主義的 人間型的 精神武裝에 기여한다는 것등이다.

「극문학」은 演劇·映画 分野에 큰 比重을 두고있는 北傀의 政策으로부터 劇作家들을 더욱 철저히 黨의 道具로 예속화하고, 戲曲 및 시나리오에 대한 黨的 統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發刊되는 雜誌이다.

사. 「현대문학」 編輯部

「현대문학」 編輯部는 作家同盟의 지도 官장하에 長·中篇小說, 詩集, 戲曲集, 評論集等 單行本을 編輯 發行하는 부서이다.

1966年 「현대문학」 編輯部는 編輯長 筆者, 編輯員(편성원이라 稱함) 김하열, 박종모, 임병순, 허춘식, 이은자, 이수복, 이영도등 8名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1962年부터 1966年 上半年까지 「현대문학」 編輯部에서 發行한 中·長篇小說은 「석개울의 새봄」1·2部(천세봉작)·「대

하는 흐른다」(천세봉 작) · 「고난의 역사」(천세봉 작) · 「시대의 탄생」1·2部(석윤기 작) · 「절사들」(석윤기 작) · 「개마고원」(황건 작) · 「새벽길」(황건 작) · 「아들딸」(황건 작) · 「계명 산천은 밝아 오느냐」(박태원 작) · 「시련 속에서」(윤세중 작) · 「용광로는 숨인다」(윤세중 작) · 「조국」(박응걸 작) · 「청천강」(이근영 작) · 「첫수확」(재관, 이근영 작) · 「회답」(김홍무 작) · 「먼 해구에서」(이정숙 작) · 「포화 속에서」(김재규 작) · 「탄부일가」(김승권 작) · 「숲은 설레인다」(김병훈 작) · 「세번째 봄」(이상현 작) · 「청춘의 고향」(현희균 작) · 「서산대사」(최명익 작) 등이다.

「현대문학」編輯部에서 發行하는 單行本들은 長·中篇小説은 2~50,000部, 詩集은 10,000部, 戯曲, 評論集은 2~3,000部 内外이다.

北境는 中·長篇小説·詩集等 單行本을 「교과서」와 같이 取扱하므로 그 發行部數들이 比較的 많은 편이다.

때문에 單行本으로 發行할 作品들을 엄선한다.

5. 作家들의 日常生活

가. 戰場에 나가는 作家의 生活

○ 起床·아침식사·出勤

일부 作家들은 문화인아파트·個人住宅에 살기도 하나, 大部分의 作家들이 平壤市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作家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작가아파트에 살고 있는 作家들을 基準으로 일과 生活을 살펴 보기로 한다.

起床은 새벽 5時半~6시에 한다.

起床時間이 되면 작가아파트 棟別로 된 「人民班」 班長이 손종을 치고 다니며 깨우거나 「청소하러 나오시오!」하고 소리치며 다닌다. 이 신호를 받으면 매 가구당 1명씩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앞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대개 家長인 作家들이 모인다. 班別로 該當 청소구간(아파트 周辺·道路等)을 約 20~30分間 清掃한다. 흔히 作家들이 나가 清掃하는 동안 그들의 아내들은 아침식사를 準備한다.

아침식사를 위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밥工場」(밥만 만들어 정해진 費用을 받고 쌀과 바꿔주는 곳)으로 가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바꿔 온다. 이때 점심 분까지 바꿔와야 한다.

국은 「국工場」에서 만든 국을 販賣員이 밀차에 싣고 다니며 파는 것을 사야 하는데 야채국은 5錢, 고기국(기름 두어점 정도

쁜 것)은 1.0 錢씩 받는다. 집에서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으나 국거리들을 사기 어렵고 귀찮기도 해서 대개 사서 먹는다.

반찬은 대개 食料品 商店에서 미리 사 두었다가 먹는다.

아침식사를 準備하면서 주부는 託兒所·幼稚園에 맡길 아동을 除外한 식구들의 점심 「곽밥」(도시락)을 싣는다. 점심식사를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침식사 메뉴는 대개 밥, 국, 무우짬지, 콩치, 김치 정도이다.

作家들은 該當 職場에 夏期에는 8時, 冬期에는 8時 30分까지 出動해야 한다. 出動하면 出動簿에 「수표」(싸인)를 하고 勤務에 임한다.

○ 職場에서의 勤務生活

作家들은 거의 事務職場에서 일한다.

大部分 新聞社·雜誌 編輯部·學校들에서 일하고, 黨·政權機關·社會團體·工場·新聞 編輯部들에서 약간 명이 일하고 있다.

午前 勤務時間은 4時間이다. 50分 일하고 10分씩 쉬도록 되어있다.

점심식사는 집에서 싸들고 온 「곽밥」으로 한다. 職場 근처에 있는 식당을 利用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糧票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점심을 식당에서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출장시에 쓰다남은 糧票가 있어도 친구가 訪問할 때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準備가 있어야 하므로 아끼고 잘 쓰지 않는다.

北韓에서는 出退勤 時間에 「곽밥」을 들지 않은 사람은 극히 보기 드물다.

作家도 例外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한끼는 곽밥을 먹어야 하므로 곽밥은 身體의 일부분과 같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귀찮은 휴대품이다.

점심 休息時間은 1時間 30分~2時間(겨울~여름)인데 곽밥을 먹은 뒤 約 1時間의 오침시간을 준다. 그러나 낮잠을 잘 수 있는 場所를 特別히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 會議室 건의자, 책상, 숙직실 등이 午寢場所로 된다.

이렇게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밤 늦도록 勤務시키거나 各種 會議, 學習會 등에 効果적으로 參加시키기 위한 措置이다. 그렇지만 일이 밀릴 때는 낮잠을 잘 수가 없으며, 특히 오침장소가 불편하여 편알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겨울에는 주워서 잘 엄두도 못내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職場 責任者나 黨秘書等 일부 責任幹部들만이 자기 事務室에 다침대를 놓고 편히 잘 수 있어서 부하들을 늦게까지 부려 먹을 수 있는 「힘」을 보충하게 된다.

午後 勤務時間도 4時間이다.

○ 課外勞動과 各種 會議

職場에서 정규적인 勤務時間이 끝나면 課外勞動을 하거나 各種 會議를 한다.

課外勞動은 緊急, 復旧作業 또는 勞動者들의 「突擊戰鬪」를 支援

하는 勞動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동원된다.

평상시에도 勤務日課가 끝나면 하루 2時間 學習을 해야한다. 이 學習會의 類型을 보면, 金日成主義 研究班 學習會·黨政策 學習會·회상기 학습회·金日成 敎示와 略伝 學習會·金正一 德性學習會 (그후 추가)·時事討論會·其他 수시로提起되는 黨指示學習會 등이 있다.

學習 2時間이 끝나면 各種 會議을 한다.

北韓에서는 各級 黨團體 總會와 委員會·社勞靑 總會와 委員會·職業同盟 總會와 委員會·農業動勞者同盟 總會와 委員會·女性同盟 總會와 委員會·思想檢討會·부서별 黨 分組會·各種 報告會·群衆大會等 雜多한 會議들이 있다.

作家들은 거의 黨員들이므로 黨 總會 또는 委員會, 黨分組會議 그리고 職業同盟 總會와 委員會 등에 參加한다.

女流作家인 경우는 女性同盟의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야 한다.

會議가 雜多하게 많으므로 매일 1~2간씩 치뤄야 한다. 그래서 밤 10時~11時에 退勤하게 된다.

흔히 12時를 前後해서 잠자리에 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職場에 다니면서 文學作品의 創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形便이다.

일요일에도 흔히 「努力勸員」을 強要 당하므로 글을 쓸 수가 없다.

○ 創作休暇

北傀는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이 創作課題를 完遂해 내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期間의 創作休暇를 준다.

創作休暇는 45日 間으로 되어 있으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該當 作家가 맡은 創作課題에 따라 流動的인데, 中篇小說 以上の 部피를 쓰게 되어 있는 作家들에게는 90日까지 줄 경우도 있다. 그러나 45日을 超過할 경우에는 作家同盟 常任委員會의 要請이 있어야 하고 그 要請에 대한 中央黨 文學藝術部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作家들은 創作休暇 期間의 行先地에 대해 사전에 報告를 해야 하며 創作休暇 期間이 끝나면 休暇期間 創作生活 報告를 作家同盟 該當 分課委員會에 提出해야 한다.

創作休暇 期間에는 工場·企業所·協同農場에 나가 取材活動을 할 수도 있다. (其他는 作家들의 創作生活 參照)

나. 「解放作家」의 生活

「解放作家」란 職場에 나가지 않고 創作活動만을 하는 作家들에 대한 俗稱이다. 北傀는 이러한 作家群을 現地派遣作家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解放作家」들 中에는 現地(工場·企業所·協同農場)에 派遣되지 않은 作家들이 많으므로 正確한 表現이 아니다.

「解放作家」들의 日常生活도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과 大同小異하다.

다만 職場 대신 郡城市·各道の 支部들에 마련된 「創作室」에 出勤하여 作品을 쓴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創作室」欄 参照)

「解放作家」들은 月給을 타지 못하므로 原稿料로 生活한다. (原稿料欄 参照)

原稿料를 타지 못해 生活이 어려운 作家들은 作家同盟 該當 分課委員會에 申請하여 月 50 원의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부금은 原稿料를 타는대로 갚아야 한다.

「解放作家」들은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에 비해 工場·企業所·協同農場 가까이 상주하고 道支部 所屬이므로 取材活動이 용이하고 作品創作에 몰두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中堅作家級 以上이 되어야 「解放作家」로 불려 나갈 수 있다.

其他 出退勤時間, 勤務時間(創作時間), 오침, 「각밥」휴대, 學習會 및 各種 會議 參加 등은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과 마찬가지로이다.

「解放作家」들은 作家同盟 新人指導部에서 割當한 1~2 名의 新人 文學徒들을 個別 指導해야 하며, 그들을 作家로 養成하면 事業 実績을 올린 것으로 認定을 받는다.

다. 作家들의 黨組織 生活

作家들은 全員이 黨員이다.

文芸總 委員長 李箕永이 無所屬으로 되어 있으나, 政策上 그렇게
나 둔 것이고 내막적으로는 黨員으로 黨 生活을 하고 있다.

「解放作家」들은 作家同盟 各道支部 分細胞 所屬이므로 作家同盟
黨委員會議 유일적인 指導下에 黨 組織生活을 하고 있으나,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은 該當 職場에서의 黨 組織生活도 하고 作家同盟
黨委員會의 指導를 받는 黨 組織生活도 해야 하므로 2重的인 黨
生活을 하고 있다.

그러나 作家同盟 黨委員會에서는 創作生活에 대한 党的인 指導를
주로 하기 때문에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의 勤務生活에 대해서는
間涉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金日成이 作家들에게 重要한 「敎示」를 하였거나
黨에서 作家들에게 重要한 要求를 提起했을 때 作家들을 소집 黨
總會나 委員會를 갖는다.

1963 ~ 64 年에 걸친 作家들의 思想檢討 時, 作家同盟 黨委員
회는 作家 全員을 소환, 黨 總會를 열었다.

그러므로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은 2重的인 黨 組織生活마저 強
要당해 심한 精神的인 고통을 받고 있다.

라. 作家들의 歲拜風習

1960 年代 初까지 作家들이 정초에 歲拜를 다니는 風習이
있었다.

師弟間에 歲拜하는 일도 있었지만 주되는 歲拜 對象은 韓雪野와 李箕永이었다.

정월 초하루에 韓雪野와 李箕永은 자기 집에 음식을 장만해 놓고 歲拜하러 오는 作家들을 기다렸고, 作家들은 午後에 메를 지어 歲拜를 하러 갔다.

그러면 정월이나 대청마루에 음식상을 크게 차려 놓고 모두 모여 앉아 韓雪野 또는 李箕永의 일장연설을 들은 뒤 한동안 놀고는 하였다.

대개 韓雪野의 집을 먼저 찾아 갔었고 그 다음 李箕永을 찾아 갔다.

李箕永의 새해 祝賀演說은 길고 장황하기로 유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韓雪野와 李箕永(韓雪野보다 年長者)의 回甲 祝賀 報告會를 모란봉극장에서 성대히 치뤄주고 祝賀宴까지 베풀어 주던 때라 作家들의 歲拜風習도 이상한 것으로 取扱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2年末, 韓雪野 肅清以後 자취를 감췄다.

다만 李箕永과 가까운 후배 作家들이 정초에 歲拜를 가는 風習은 그 後에도 지속되었었다.

마. 名節 特記

北傀가 정한 名節은 1月1日, 4月15日(金日成生日), 5

月 1 日 (國際勞動節), 9 月 9 日 (北傀政權 創建日), 10 月 10 日 (黨 創建日), 12 月 27 日 (社會主義憲法 制定日) 等이다.

1976 年부터 2 月 16 日 金正一의 生日을 名節로 定해 대대적인 祝賀行事를 벌인 일도 있다.

北傀 軍에서는 4 月 25 日 (從前에는 2 月 8 日) 을 創軍日로 名節 行事를 하고 있으며, 各 産別 名節日이 따로 있다. (例하던 鐵道 節은 鐵道部門 勤勞者들의 名節)

北傀는 名節에 全 住民에게 特別 配給을 준다.

이 特別配給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家戶당 돼지고기 1 ~ 2 킬로그램 (家族數와 職場에 따라 다름), 물고기 2 ~ 3 킬로그램 特別히 配給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 作家들은 住民들에게 주는 特配量과 같은 配給을 받으나, 中堅作家 以上 級으로 「中央供給對象九号」 該当者は 좀더 많은 양의 特配를 받는다.

即 肉類 3 ~ 5 킬로그램, 물고기類 5 ~ 7 킬로그램, 白米 5 ~ 7 킬로그램, 사과등 果實類 1 ~ 2 상자, 雪糖 1 킬로그램, 과자류 약간을 받는다.

이는 名節때 訪問하는 손님을 接待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나마도 地方에 있는 作家들은 「惠沢」을 받지 못한다.

1 年에 5 ~ 6 차례 고기와 물고기, 白米, 과일, 과자 등을 약간 더 주는 것으로 中堅作家들에게 선심을 보여, 그들을 더욱 效果的으로 부러먹기 위한 얄은 수작이다.

바. 「革命戰蹟地」 踏査

「革命戰蹟地」란 北傀가 金日成과 그 부하들이 1930年代 抗日鬪爭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운 것처럼 조작해 놓은 곳을 말한다.

晋天堡, 三池淵, 千峰, 白頭山, 茂山地区 等 兩江道 일대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았다.

作家들은 義務的으로 이 「革命戰蹟地」들을 踏査해야 한다.

대개 2~3년에 한번씩 10~15명으로 構成된 作家 踏査隊가 「革命戰蹟地」들을 돌아본다.

北傀는 이 「革命戰蹟地」를 踏査시키기 위해 白頭山 꼭대기까지 自動車가 오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다.

作家들의 「革命戰蹟地」 踏査時 차편은 兩江道 惠山市까지 열차 편이며 거기서부터 트럭 편으로 되어있다.

이 트럭 짐칸에 다거나 도보로 數百里 踏査 길을 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革命戰蹟地」 踏査는 큰 고역으로 되고 있으며, 한번 돌아본 作家들은 될수록 이를 피하려고 애쓴다.

한달 남짓한 동안 산길을 걸거나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다녀야 하는 踏査를 달가워 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革命傳統物」 主題의 創作課題를 받은 作家들 가운데는 어짜피 取材를 해야 作品을 쓸 수가 있으므로 자진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北僞가 作家들을 「革命戰蹟地」 踏査에 내모는 것은 첫째 「金日成의 革命思想」으로 武装시키고, 둘째 金日成의 발자취를 조작한 것이긴 하지만 實物을 통해 認識시키므로써 저들이 要求하는 作品을 쓰도록 하기 위한데 目的을 두고 있다.

사. 作家들의 娛樂

作家들이 利用할 수 있는 娛樂 道具들로는 장기판·탁구대 등이 高작이다.

北送된 僑胞들이 늘어 가면서 바둑판이 장만되기도 했으나 바쁜 나날에 바둑을 둘 수 있는 時間이 없으므로 잘 利用되지 못한다.

作家아파트가 대동강에 인접해 있으므로 한 때는 낚시질(北送僑胞들에게 얻은 낚시대와 道具利用)을 趣味生活로 삼은 作家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동강은 禁魚地域이므로 安全員들의 단속을 받아 공공연히 낚시질을 할 수는 없었다.

안전원들이 나오지 않은 새벽에 잠시 하고는 고만 두어야 한다.

作家들도 일반 住民들과 마찬가지로 娛樂이나 趣味生活를 누리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生活을 하고 있다.

아. 飲 酒

作家들은 떠분하고 지루한 生活과 누적되는 불만을 풀기 위하여 술을 자주 마신다.

소주는 그런대로 살수 있으나 麥酒를 사기는 매우 어렵다.

麥酒는 商店에 진열되지 않고 生麥酒를 파는 정도로 보급되어 있으므로 몇잔을 사서 마시려고 해도 장사건을 이룬 販売店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대개 批判의 対象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며, 옥류관에 가서 고가의 술을 사 마시게 된다.

中·長篇小說이나 詩集·評論集 등의 原稿料는 比較的 많은 편이므로 原稿料를 받으면 編輯員들과 친한 作家들과 함께 옥류관이나 식당에 가서 술을 사마시는게 常例처럼 되어있다.

그렇다고 마음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중에 말을 잘못해도 批判의 対象이 되므로 긴장을 풀지 못하고 늘 神精을 써야 한다.

그래서 대개 술을 사다가 집에서 혼자 마시거나, 극친한 친구를 불러 같이 마신다.

이렇게 마시는 것도 이웃에서 자주 마신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잦아지면 批判을 받게 된다.

술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것이 作家들의 처지이다.

그렇지만 다른 職種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比較的 자주 마시는

形便이카는 하다.

北傀는 음주시 不評不滿이 자주 나오므로 1963年 末부터
64年 上半期까지 作家들에게 「금주령」을 내린 일도 있었다.

6. 作家들의 創作生活

가. 創作計劃

o 方向提示

年間 創作方向은 作家同盟 常任委員會에서 作成, 中央黨 文學 藝術部의 批准을 받아 作家同盟 分課委員會를 거쳐 매 作家들에게 하달된다.

創作方向은 黨에서 提示된 原則 卽 「革命傳統物」 3割, 「戰爭物」 3割, 「社會主義 建設物」 2割, 「祖國統一物」 2割이라는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該當 年度의 黨 政策에 따라 약간의 流動性을 가지며, 黨의 要求를 考慮한 具體的인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다.

實例로 「革命傳統物」인 경우에 三池淵의 戰蹟地를 만드는 해라면 그 곳에서 展開된 「抗日 빨찌산」들의 鬪爭業績을 쓰라는 식인 것이다. 또 「강계 청년발전소」 建設에 역량을 집중하는 해라면 「社會主義 建設物」中에서 그 곳에서 벌어진 努力成果를 取材 創作하라는 方向이 提示되며, 輸送問題 解決에 重點을 두는 해라면 輸送戰士들의 위훈을 取材 創作하라는 식인 것이다.

年間 創作方向은 매우 具體的으로 提示되며, 每 作家들은 創作計劃 作成에서 이 方向에서 벗어져 난 것을 取扱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方向 外의 것이 作成 提出되면 削除를 당하며, 심히 어긋날 때에는 作家들의 思想을 批判하는 資料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作家들은 作家同盟에서 提示한 方向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創作計劃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 創作方向은 文芸總出版社를 비롯한 文芸作品 取扱 出版機關과 公演團體들에게도 하달되어 그해 編輯 및 公演計劃 作成을 규제한다.

또한 出版機關·公演團體와 作家들 間의 原稿請託, 그의 接受 등에도 影響을 미친다.

創作方向은 前年度 4·4 分期初에 하달되며, 하달후 새로운 問題가 提起되면 수정 또는 補完한다.

○ 創作計劃

創作計劃은 하달된 創作方向에 따라 每 作家들이 作成 該當 分課委員會에 提出한다. 計劃 提出期日は 方向이 하달된 期日에 따라 流動的이나 대개 前年度 11 月末頃 提出된다.

매 작가들은 月別·分期別·年別 創作計劃을 作成하는 바, 作成하기 前에 所屬 分課委員會와 計劃量과 主題 選定을 協議한다.

이때 分課委員會는 主題의 高른 割當, 該當作家의 能力, 環境 등을 考慮하여 取扱할 主題와 量을 정해준다.

그러나 이는 片面일률적인 것이 아니며, 拘束力을 가진 것도 아니다.

다만, 主題의 重復과 量을 調節하기 위한 協議인 따름이다.

每 作家들이 創作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長篇小說을 쓸 사람의 計劃은 매우 간단하다. 1篇이 年間計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長幕戲曲이나 叙情叙事詩를 쓸 作家들의 경우도 複雜하지 않다. 그러나 短篇小說·短幕劇·短評·짧은 翻譯物 특히는 叙情詩를 쓸 作家들은 여러편을 써야 하므로 複雜하게 된다.

職場을 가진 作家는 年間 短篇小說의 경우 3~4篇, 叙情詩의 경우 8~10篇, 中·長篇小說이나 叙事詩(장시)인 경우 1篇, 短幕劇 3~4篇, 評論(단평) 4~5篇 정도를 創作計劃에 써넣으면 되고, 「解放作家」는 그 2倍 정도를 써넣으면 된다. (長篇小說의 경우는 1篇)

創作計劃은 일단 批准을 받아 成立되면 該當 作家의 「生産」課題로 되어 반드시 完遂해야 되므로 매우 신중히 세우지 않을 수 없다. 創作計劃 外에 作品을 創作 發表한다고 問題를 삼지는 않으므로 대개 計劃은 알맞게 세우고 그보다 더 쓰려는 傾向이 있다. 職場을 가진 作家들이 作品을 한편이라도 더 쓰려는 것은 原稿料가 적지 않은 副收入으로 된다는데도 理由가 있다.

○ 創作計劃의 提出과 批准

每 作家들은 創作計劃을 作成 所屬 分課委員會에 提出한다. 該當 分課委員會에서는 이를 綜合, 檢討하여 重複 또는 方向에 어긋나는 것을 수정하도록 한뒤 綜合計劃을 作家同盟 常任委員會에 提出한다.

作家同盟 常任委員會(實務部署는 組織部)에서는 各 分課委員會에

서 올라온 創作計劃들을 綜合·檢討하여 作家同盟 創作計劃을 만들
어 中央黨 文學藝術部에 提出한다.

中央黨 文學藝術部에서는 이를 檢討한 後 秘書局에 提出, 思想担
當秘書의 批准을 받는다.

思想擔當秘書의 批准을 받으면 비로소 創作計劃은 確定되며 効力
을 갖는다.

作家同盟은 해마다 創作計劃의 實踐狀況을 綜合하여 總和(作家同
盟 中央委員會에서 한다)를 해야 하며, 그 報告를 作成, 黨 文學
藝術部에 提出해야 한다.

이 總和報告에 의해 作家同盟과 每 作家들의 黨的 課業의 執行
実績 評價를 받게 된다. 評價는 量的인 責任 完遂도 重要視하지
만, 특히 質的으로 우열을 가리는데 重點을 두고 進行된다.

여기서 成果作이라고 認定된 作品名과 作家名이 소위 「朝鮮中央
年鑑」에 收錄된다.

나. 作家들의 取材活動

○ 現地取材

北傀는 作家들의 現地取材를 매우 重視한다.

『……勞動階級의 英雄的 性格이 가장 直接的으로 또는 날카롭게
드러나는 事件들은 그들의 모든 정열이 부여되는 創造的 勞動과
연결된 生活속에 存在한다』(1965年 文藝總黨總會 決定書)고

主張했다. 作家들은 時間이 있을 때마다 工場·企業所·協同農場에 나가 取材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그렇게 取材를 하지 않고서는 黨에서 認定을 받을만한 作品을 쓸 수도 없다.

「革命傳統物」 主題의 作品을 쓸 作家들은 소위 「革命戰蹟地」나 「사적지」로, 「戰爭物」 主題의 作品을 쓸 作家들은 소위 「戰爭英雄」들이 生活하는 軍隊나 일터로, 「社會主義 建設物」 主題를 쓸 作家들은 勞動現場으로 가서 取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現場에 나가는 作家들은 대개 「創作休暇」期間에 現地取材를 나간다. 이 部類中 記者 職責을 가진 作家는 수시로 現場을 接하고 있으므로 매우 유리하다.

一般的으로 이 部類에 속한 作家들이 現地取材를 나가려면 所屬 職場에서 發行하는 「出張證明書」와 作家同盟 中央委員會에서 發行하는 「信任狀」 그리고 通行証·衛生防疫証·糧券 등을 지참해야 한다. 作家同盟에서 發行하는 「信任狀」을 가지면 「특수공무」로 取扱되므로 「특수공무」 대표구에서 차표를 살수 있는 편의를 保障 받는다.

일단 道 所在地에 내려가면 作家同盟 道支部와 道黨 宣傳煽動部의 協助를 받을 수 있다. 이 協助를 받아야 該當 工場·企業所 또는 協同農場에서 우대를 받으며, 必要的 取扱活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取材活動은 當時의 特性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該當 黨 委員會 宣傳部에서 包括的인 說明을 듣고 取材 對象자들이

生活하는 職場으로 내려가 대상과의 個別 談話 또는 対象들과의
집체담화를 하게 된다.

必要的인 경우는 対象들과 침식을 같이 하거나 勞動을 함께 하면서
取材할 수도 있다.

現場에서의 勞動 參與는 義務的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 対象들의
勞動 體驗을 本人도 體驗으로 알아야 한다는 要求에 따라 몇일간
勞動現場에서 勞動을 할 때가 많다.

取材時에는 該當 職場(또는 協同農場) 初級黨 秘書, 作業班 分
細胞 秘書, 黨 分組長들의 意見을 敬청하는 것이 常例로 되고 있
다.

取材期間은 每 作家들이 必要의 与件에 따라 정하는데 대개
10~15日 정도이다. 재차 같은 対象을 取材할 수도 있다.

「解放作家」들의 取材活動도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의 경우와 大
同小異하다.

다만 取材對象 가까이 生活하고 있으므로 같은 地域 안의 取材
活動에 複雜한 手續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創作室長(創作室 參
照)의 承認下에 수시로 取材活動을 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取材活動을 마친 作家들은 取材活動 承認者에게 取材結果를 報告
해야 한다. 흔히 구두로 報告하지만 특이한 問題 發見時는 報告
書를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問題란 取材時 發生
한 事故, 取材 對象地 유고 또는 対象들의 불순사상 發見, 対象들

이 虛偽報告를 비롯한 상부 기만 事例發見 등을 말한다.

○ 新聞·圖書에서의 取材活動

新聞들과 各種 書籍들에서의 取材는 必須不可欠의 것이다.

이 取材를 위하여 作家들은 도서관들을 利用한다.

北韓에는 소위 「國立中央圖書館」과 12個의 各道立(직할시)도서관, 173個의 市·區域·郡立 圖書館들이 있다. 이러한 圖書館들에서의 取材活動은 比較的 자유롭다.

특히 北傀는 作家들에게 南韓의 政治·經濟·社會相을 비방하는 소위 「祖國統一物」 主題의 단평, 評論, 長·中篇小說, 短篇小說, 戯曲, 詩들을 씌우기 위해 韓國에서 發行되는 各種 書籍, 雜誌, 新聞들을 볼 수 있는 「特權」을 준다.

해마다 年初에 「國立中央圖書館」에서 發行한 黃色閱覽카드를 作家들에게 주는데, 이 黃色閱覽카드를 가지면 韓國의 書籍·新聞들이 소장된 特殊閱覽室에서 必要한 書籍과 新聞을 볼 수 있다.

韓國에서 發行한 新聞들은 約 15日後, 雜誌들은 1個月 後에 入手, 비치된다. 新聞은 서울에서 發行하는 新聞 일체가 雜誌는 「야담과 실화」에 이르기까지 大部分이 入手된다.

어느 것이고 볼 수는 있으나 閱覽한 書籍이나 新聞名이 黃色閱覽카드에 収録되므로, 「祖國統一物」을 쓰지도 않는 作家들이 韓國에서 刊行된 것들을 자주 볼때 思想을 의심받게 된다.

그래서 「祖國統一物」을 쓰지 않는 作家들은 아예 南韓에서 發行되는 書籍이나 新聞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黃色閱覽카드는 해마다 交替된다.

다. 創作室

創作室은 作家同盟 道(직할시)支部들이 있는 開城市와 9個 道 所在地에 도합 110개군에 設置되어 있다. 創作室은 該当地域內 作家들이 執筆하는 場所이다. 「解放作家」들은 누구를 莫論하고 創作室에 정상적으로 出勤하여 執筆을 하고, 정해진 時間에 退勤하여야 한다.

地域과 季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出勤은 8時, 退勤은 午後 6時(그후 會議·學習會 3~5時間)이다.

工場·企業所·協同農場과 其他 取材 對象地에 나가 取材活動을 하는 期間에는 出勤하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取材 對象地의 日課대로 生活해야 한다.

創作室에 出退勤하는 作家가 短期 取材를 나갈 必要가 생기면 該当地域 支部長의 承認을 받고 創作室을 떠날 수 있다. 創作室의 運營責任者인 室長은 各 道支部 支部長이다.

創作室에 무단 欠勤하거나 무단 朝退를 하면 道支部 黨會議에서 호된 批判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欠勤한 날자만큼 食糧配給 量을 잘리운다. 病欠인 경우에는 該当地域 病院에서 發行하는 진단서를 支部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創作室은 北傀가 作家들을 一般 事務員들과 같이 組織生活의 틀

속에 묶어놓기 위하여 設置된 것이다.

北傀는 作家들을 組織化하기 위하여 創作을 위한 執筆을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하며, 모든 事務員들과 마찬가지로 일과 生活의 規律을 지키라고 要求하였다.

그리하여 1962年末 作家同盟 各道(직할시)支部들에 創作室을 設置하고 「解放作家」들을 모두 여기에 망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創作室에서의 集團生活은 作家들의 創作 能率을 저하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에 北傀는 作家들의 黨 生活 強化로 創作 부진을 克服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作家들에 대한 黨的 統制를 強化하였다. 그러나 統制가 심하면 심할수록 作家들의 創作 能率은 떨어졌고 不評과 不滿, 반감만 높아 갔다.

심지어 小說家 이상현, 황 건, 詩人 김우철, 戲曲作家 박태영을 비롯한 여러 作家들이 創作室 生活을 거부하고 自宅에서 創作을 하다가 黨에서 苛酷한 批判을 받는 일까지 생겨났다.

그리하여 中央黨 文學藝術部에서는 創作室 問題를 再檢討한 끝에 長篇小說, 長幕戲曲을 쓰는 中堅作家 一部에게 自宅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規制 措施를 緩和해 주었다.

-1966年 規制에서 풀린 作家들은 小說家 황 건, 이갑기, 이상현, 석윤기, 김병훈, 戲曲作家 박영보, 김세륜 등이었다. (職場에 나가는 作家들 除外)

創作室에서는 作家들이 執筆만 할뿐 아니라 創作된 作品의 合평 회도 하며, 作家가 要求할 때에는 勸 討議까지 한다.

라.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빠」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빠」는 1964年7月 소위 「革命的 大作」을 創作해 내라는 金日成의 구두 指示에 의하여 中央黨 文學藝術部의 人選으로 組織되었다.

組織 當時 構成員은 評論家 엄호석 (責任者), 장현준, 박연승, 강승수 (金日成의 外四寸弟), 詩人 이 맥, 정문향, 小說家 황 건, 김홍무, 석윤기, 김병훈, 戲曲作家 이종순 등 11名이었다.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빠」의 事業은 주로 長篇小說・長篇 敘事詩・長幕戲曲 및 시나리오 創作에 대한 指導였다.

指導 구루빠에서는 이러한 部類의 作品을 創作하려는 作家들로부터 主題와 줄거리들 서면으로 接受하고 創作 可否를 決定하며, 創作 可能한 作家들을 個別的으로 措置하여 作品의 슈제트 構成등을 구두로 청취한 뒤 「구루빠」의 집체적인 意見을 提示한다.

그리고 초고가 提出되면 具體的으로 檢討하여 修正案을 提示하며, 그 수정을 監督한다.

몇 차례 수정을 해도 시원찮은 作品은 「구루빠」指導 對象에서 除外해 버린다.

北傀는 이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빠」의 運營을 위하여 平壤市

중구역 所在 대동문 아파트 3層의 小會議室과 五個 號室을 配當 하였다.

小會議室은 「구루빠」의 집체 討議 場所이고, 號室들은 플롯 및 構成 修正, 초고 修正(但 時日內에 될 수 있는 것) 등의 意見을 받은 作家들이 修正을 하는 場所이다.

1964年부터 66年 사이에 「구루빠」의 指導를 받는 作品들은 長篇小說 「고난의 역사」(천세봉), 「아들딸」(황 건), 「시대의 탄생」1·2部(석윤기), 「햇빛만리」(유 벽), 「회사스겨우의 등불」(김근오), 「숲은 설레인다」(김병훈), 「戰爭과 人間」(이갑기), 「탄부일가」(김승권), 「세번째 봄」(이상현), 「포화 속에서」(김재규), 「처녀지에서」(진재환), 「계명 산천은 밝아 오느냐」(박태원), 「첫시련」(전주설), 戲曲作家 박영보, 이종순의 戲曲 2篇, 시나리오 1篇, 박세영의 長篇 叙事詩 1篇을 비롯한 다수 作品들이다.

그리고 그 期間 「구루빠」의 指導를 거쳐 發行된 作品은 長篇小說 「고난의 역사」, 「아들 딸」, 「시대의 탄생」1·2部, 「포화 속에서」, 「숲은 설레인다」, 「탄부일가」, 「계명 산천은 밝아 오느냐」, 등이다. 이 作品들은 모두 3만~5만部씩 發行되었으나 大作이라고는 말할 수조차 없는 졸렬한 것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천세봉 작 「고난의 역사」와 석윤기 작 「시대의 탄생」이 나은 편이었으나, 「고난의 역사」는 주인공을 金日成 아닌 金 策(北傀 初代 副首相, 6·25 當時 戰線司令官, 戰死)을

모델로 설정했다 하여 苛酷한 批判을 받았고, 「시대의 탄생」은 2部가 출현하며 戰爭에 대한 評價에 그릇된 점이 있다는 批判을 받았다.

「革命的大作創作指導구루빠」란 한마디로 中・長篇小説・長篇 叙事詩・長幕戲曲 및 시나리오를 創作할만한 中堅作家들의 創作活動을 黨이 要求하는 方向에 一致하도록 指導・統制・監査하기 위한 黨의 創作 道具이다.

이 「구루빠」의 統制를 받는 作家들은 指導 對象이 된 作品의 구상・구성・초고 執筆・修正에 이르기까지 삼하게 干涉을 받아 創作 스타일과 개성마저 무참히 유린 당한다. 특히 초고 執筆後의 修正은 3~5回나 거듭되어 수천매의 원고를 새로 쓰지 않으면 안될 고통을 強要 당한다. 이토록 作家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스타일과 개성마저 유린하는 곳에 좋은 作品이 나올리가 없다.

北傀가 「구루빠」를 통해 作家들을 몹시 괴롭혔으나 大作은 커녕 쓸만한 作品조차 나오지 않았다.

7. 作家들의 苦悶

북한 작가들은 작가아파트에 수용 당해 일상 생활에서도 통제 받아 창작 및 취재의 不自由로 받는 苦悶, 당의 문예정책 특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특 속에 묶여 제약을 받는 苦悶, 「창작실」 생활 강요·「혁명적대작창작구루빠」의 심한 통제 때문에 생기는 苦悶, 창작 계획과 그의 총화 등 창작 과정에 대한 구속으로 생기는 苦悶, 편집부 및 검열 부서에서 내세우는 요구 때문에 생기는 苦悶, 2중적인 黨조직 생활 때문에 생기는 苦悶 등 심한 정신적인 시련을 겪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형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日常生活에서의 苦悶

작가 생활은 고도의 정신 노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작가들의 일상 생활은 창작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일상 생활에서 규칙적인 통제를 받으면 문학 정신의 나래를 펴기 어렵다. 「인민반」 생활의 강요, 「5호강담 선전원」의 감시와 통제, 규칙적인 창작실 생활 등은 고도의 정신 노동의 장애 요인으로 된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만한 「레크레이션」이나 기타 대안이 없다. 오직 술만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때

름이다. 자연 작가들 속에는 「주태백이」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비판을 받는 수요가 적지않다.

실례를 들면, 장편소설 「시련 속에서」 「용광로는 숨 쉰다」 등을 쓴 소설가 윤 세중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윤 세중의 부인은 작가 아파트 인민관에서 늘 비판을 받는 사람의 하나였다. 불평 불만이 많고, 게으르며, 반항적이라는 게 비판의 표적이었다.

윤 세중의 부인은 너무 심한 비판을 받아 신경이 쇠약해져 결국 정신 이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에 윤 세중은 아침 저녁으로 술을 과음하는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그래서 위궤양이 악화되어 1965년 사망하였다.

나. 「國或主義」와 작가들의 苦悶

북한에서 문학의 도식주의란 문학 작품 창작에서 무조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강요하여 생겨 난 類型이 비슷한 작품들을 가리켜 쓰는 말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역사적 구체성 속에 진실한 디테일로 묘사하되, 중심 주인공을 共產革命의 투사들로 설명하며 그가 革命的 發展 속에 성장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

키도록 강요 당하고 있는 作家들의 作品이 비슷해질 수 밖에 없다.

실례로 소설의 경우, 소위「혁명성」이 강한 주인공이 공산혁명과 공산사회 건설에서 이러저러한 난관에 부딪치지만 金日成이 黨에 충실하려는 의지로 난관 극복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성공하고자 한다는 식의 줄거리가 유행한다.

그래서 슈제트 (인간 관계)도 혁명적인 주인공이 반동들과 싸우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나 결국은 반동들을 이겨 낸다는 식이거나, 긍정적인 주인공과 그만 조금 못한 부정적인 주인공이 등장하여 서로 다투다 결국 긍정적인 주인공이 부정적인 주인공을 설득, 강화하여 함께 공산혁명이나 건설의 대열에 충실한 전사로 된다는 식으로 짜여진다.

바로 이러한 작품의 圖式이 유행하게 되자 작품들은 대중에게 잘 읽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북괴는 이를 극복해 보려고 「도식주의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도식주의는 퇴치되지 않아 최근에도 그를 반대하는 문학 평론들이 신문이나 잡지들에 빈번히 실리고 있다.

이러한 文學의 圖式主義는 북괴 독재통치 하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이다.

문학을 黨의 한 구성 부분으로 삼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 자체가 도식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틀에 맞춰 문학 작품을 창작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자들이 도식주의를 퇴치하라고 요

구하고 있으니 二律背反인 것이다.

다. 「革命傳統」 主題 作品 副作의 苦悶

적지 않은 작가들이 金日成을 神에 가까운 超人間的인 힘을 가진 存在로 묘사하라는 강요에 회의를 품거나, 어쩔 수 없이 偶像化 作品을 쓰는 일에 대해 良心의 苦悶을 느끼고 있다.

이는 金日成의 人間됨을 깊이 알게 되거나, 金日成의 과거 행적을 취재하는 과정에 허위 날조 真相을 알게 될 때 생기는 必然的인 현상이다.

그러하여 金日成을 무조건 신봉했던 과거를 뒤우치거나, 그러한 개인을 위해 문학을 매맞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 놓거나, 반항하는 일이 일어난다.

문예총 위원장이던 韓雪野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韓雪野는 8·15 해방 직후부터 金日成에게 아부아침하면서 「수령을 따라 배우자」·「만경대」·「역사」등 여러편의 장·중편소설과 수필들을 창작하여 金日成을 「영웅화」하는데 가장 큰 공적을 세웠다.

그 대가로 黨 중앙위원회 위원·「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세계평화옹호위원회」이사·「교육상」·문예총 위원장·작가동맹 위원장 등을 두루 겸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作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허위 날조된 자료로 金日成을 찬양하는 내용은 자취를 감춰 버리고, 문학 작품의 예술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편소설 「형제」에서는 고전 음악을 보존 발전시키려는 민족 음악가의 예술지상주의적인 성격이 묘사되고, 「문학신문」에 연재한 詩調들에서는 꽃과 애완동물, 자연과 인간의 유대 등이 순수하게 노래되기도 하였다.

아러한 作品 세계의 변화는 그가 주을요양소에 가 있던 시인 閔丙均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심적인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韓雪野는 그 편지에서 『나는 그동안 배에 기름진 사람에게 나의 문학을 뱉겼었다. 이제 더는 배에 기름진 사람을 위한 글을 쓰지 않기로 했다. 나도 이제 나의 문학을 찾아야 겠다』고 썼다.

良心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앞길을 새로 한 작가의 결심이였다. 결국 이 편지가 단서로 되어 韓雪野는 숙청을 당했으나, 그래도 末年에 자기 文學을 되찾으려고 한 몸부림을 하고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韓雪野가 말년에 느낀 것과 같은 고민은 뜻 있는 여러 작가들도 겪고 있을 것이다.

「革命傳統」 주제 作品 창작에서 당하는 작가들의 또다른 고민은 날조된 戰蹟을 무조건 그대로 믿으라는 강요를 당하는 것과 그나마 등장하는 주인공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도 없다는 데에 있다.

허위 날조란 사실을 뵈히 알면서 자신이 그것을 진실로 믿어야 하며,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는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이러한 괴로움을 안고 작품을 창작했다 할지라도, 그 작품에 등장시킨 주인공이 북괴 지도층의 비위에 거슬리면 호된 비판마저 받게 되어 괴로움을 가중시킨다.

現 작가동맹 위원장 千世峰도 그러한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다.

千世峰은 1965 ~ 1966년에 장편소설 「고난의 역사」 1, 2부를 창작 발표하였다.

이 「고난의 역사」는 1930년대 ~ 40년대 초까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다는 金策의 一代記를 그린 작품이었다.

金策은 북괴 초대 副首相을 지냈고, 6.25 당시 戰線司今官으로 있다가 戰死한 자로 북한에서 人品이 金日成보다 낫다는 소문까지 돈 자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역사」에서 千世峰은 金策을 「抗日鬪爭의 英雄」으로 형상화하였다. 물론 金策의 「抗日鬪爭」이 金日成의 領導 아래 진행되었다고 썼다.

그러나 金策을 「英雄化」한 이 소설이 金日成을 상대적으로 格下시켰다는 트집이 잡혔다.

千世峰은 작가동맹 당 총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고난의 역사」는 회수 도서 목록에 올라 모두 회수되었다. 千世峰은 당 총회에서 자기 비판을 잘한 덕분에 그대로 위원장 자리에

머무르긴 했으나 3년 여 심혈을 기울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 갔으며 그가 겪은 괴로움도 컸다.

그렇다고 작가들은 장·중편소설에서 金日成을 중심주인공으로 내세우기도 어렵다.

金日成을 극도로 찬양해야 할 텐데 그럴만한 공적도 별로 없고, 사람됨도 신빙치 않으며, 그를 묘사해 나가다가 자그만한 실수가 있어도 호된 비판을 받고 중형을 받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党에서 韓雪野의 일부 작품은 그대로 살리라고 지시를 하고, 韓雪野가 쓴 장편소설 「만경대」와 「역사」를 약간 수정하여 창작자 무기명으로 출간하고 있는 것도, 韓雪野가 숙청된 후 17년이 지났으나 金日成偶像化에 기여 할만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소위 「革命傳統」 주제 작품을 창작하라는 강요를 당하고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심한 고민 속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 주는 실례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라. 戰爭主題 作品創作의 苦悶

6. 25 南侵戰爭 당시 북괴군 장병들의 「英雄的」인 鬪爭 모습을 형상화하라는 戰爭主題 작품 창작의 강요도 작가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다.

그 괴로움은 사람들, 특히 同族을 마구 학살한 만행을 가장

「英雄的」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라는 강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라는 요구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우선 북괴는 6.25 戰爭이 北侵에 의해서 挑發되었다고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엄연히 敗戰한 전투도 勝利한 것으로 歪曲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好戰性을 주입하는 方向으로 쓰라고 강요한다.

진실을 外面하고 허위를 조작할 때 作家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참을 수 없도록 심하다.

김 재규는 장소설 「포화 속에서」 (필자 편집)를 다섯차례나 개작하는 고초를 겪었다.

북괴의 최고 표창인 「金日成賞」 수상자인 석 윤기도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필자 편집)을 쓸 때 어느 쪽에서 戰爭을 挑發했느냐는 문제를 두고 무척 고민을 했었다.

「北에서 兩侵했다」·「南에서 먼저 北侵했다」는 두가지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보니 역시 「南에서 먼저 北侵했다」는 것은 믿음이 가지를 않았다.

석 윤기와 필자는 서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였다.

『기념비적 작품이란 작품을 후세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전쟁 초기의 역사적 진실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있네』

창작 계획대로 작품을 써 달라는 필자의 요구(독촉)에 석 윤기가 한 말이었다.

결국, 석 운기는 「南에서 먼저 北侵했다」는 자료들을 모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나 그가 겪은 고민은 매우 컸다.

마. 「社會主義建設」主題 作品創作의 苦悶

「社會主義建設」主題 作品 創作에서는 긍정적 주인공과 부정적 주인공간의 갈등 설정 문제부터 作家들을 괴롭힌다.

소위 「社會主義建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비타협적인 갈등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갈등이 전형적이라는 黨의 요구로 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과거 사회제도 아래서는 소위 「착취자」와 「피착취자」·「억압자」와 「피억압자」간에 비타협적인 계급 鬪爭이 존재하였으나, 「착취자」들이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는 과거 「남은 사상 잔재」와의 鬪爭, 혁신과 보수 간의 鬪爭, 黨 政策의 정확한 이해와 그릇된 이해 간의 갈등, 사업에서 「옳은 方法」과 「그릇된 方法」간의 갈등 등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여 계급 鬪爭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괴 치하에서는 이미 「타도」된 세력과의 鬪爭, 「남은 사상 잔재」와의 鬪爭이고, 시야를 넓혀 한반도 전체라는 전지에서 볼 때 「미제국주의」와 南韓에 있는 「반동세력」과의 鬪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社會主義 建設」主題 作品들의 갈등 설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들에서 소위 「파괴분자」들과의 鬪爭을 主題로 하는 것은 벌써 낡고 圖式的인 것이라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낡은 사상잔재」라는 관료주의·형식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보수주의와의 鬪爭, 「옳은 方法」과 「그릇된 方法」간의 鬪爭 등이 주되는 갈등으로 내세워지게 된다. 최근에는 「옳은 方法」과 「그보다 더 옳은 方法」간의 갈등도 취급되는 형편에 떨어졌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남편이 하고 있는 方法도 옳은 方法이었으나, 그보다 더 좋은 方法을 아내가 생각해 내어 그를 실현하려고 한다. 처음 남편은 아내의 方法에 동의하지 않고 엇나갔으나, 아내의 설득과 감화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내를 도와 나르게 된다는 식이다.

한편 作家들은 「社會主義建設」主題 作品을 쓰기 위해 現場에 나가 노동자 농민을 만나 보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과 불만, 반감들을 알게 되어 그를 逆으로 미화하라는 黨의 요구 때문에 심한 고민을 겪는다.

眞實을 쓸 수 없도록 통제 당하는 고소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作家들의 피로움인 것이다.

바. 「祖国統一」主題 作品創作의 苦悶

南韓의 현실을 歪曲, 非難 증상함으로써 北韓 주민들 속에 南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祖国統一」主題 作品 創作은 주로 南韓出身 作家들에게 配當된다.

南韓에서 생활한 체험이 있으므로 비교적 리얼하게 쓸 수 있으리라는 데서 그런 配當제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南韓 出身일수록 非難의 선전 내용이 얼마나 허황한지를 알 수 있다. 또 南韓에서 발간되는 잡지나 신문들을 볼 때도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도 있다.

南韓을 非難 증상하는 「祖国統一」主題의 作品을 쓸 과제를 받게 되면 큰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사말적인 것을 확대 誇張하여 문학 作品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강요를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非難가 요구하는 줄거리만을 더듬어 公式主義에 빠지게 되거나, 사말적인 면만을 誇張하여 비진실한 作品을 「생산」하는 형편에 떨어지게 된다.

南韓의 현실을 비난하는 수많은 소설들이 나왔으나, 非難가 「성과적」이라고 내세울만한 作品이 한편도 없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해마다 「祖国統一」主題의 作品 創作 과제가 떨어져, 그 과제를 받는 作家들을 괴롭히고 있다.

사. 翻譯作家들의 苦悶

번역작가들은 자주 변경되는 번역작품 과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이는 북괴의 先進文化를 받아 들이는 政策이 수시로 변경되는 데서 오는 병폐 때문에 생겨난다.

실례로, 북괴는 1964년 文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세계문학전집」 35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작가동맹 외국문학 분과위원회 산하 번역작가들에게 번역과제를 분담해 주었다.

번역작가들의 수가 부족하므로 우선 러시아文學, 프랑스文學, 獨逸文學, 中國文學, 英國文學 가운데 사실주의 내지는 「批判的寫實主義」 범주에 속하는 作品들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고골리의 「죽은 녀」, 푸쉬킨의 서정서사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안나카레이나」·「부활」·파제에프의 「괴멸」, 고리끼의 「어머니」, 솔로호브의 「고요한 돈」등 러시아文學과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모파상의 단편들, 플로베르의 「보바리 夫人」등 프랑스文學, 괴테 등의 독일文學, 魯迅·郭沫若 등의 中國文學, 셰익스피어 등의 英國文學 등이 최초로 번역과제로 분담되었다.

그러나 1965년 말, 북괴는 갑자기 몇개 作品을 제외시켰다.

번역작가 송 고천이 맡은 플로베르의 「보바리夫人」도 그 중 하나였다.

송 고천은 무려 1년 7개월이나 고생하여 2,300매 정도를 번역해 놓고 있었다. 그러한 勞苦가 「보바리夫人」은 自然主義的 경향성이 농후하므로 제외한다는 계획 변경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다.

송 고천은 화김에 번역한 원고들을 불이 뿔뿔 타는 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송 고천이 번역 원고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을 안 중앙당. 문학예술부에서는 송 고천의 행위가 일종의 반항이므로 작가동맹 당 총회에서 그의 사상을 검토하는 비판을 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송 고천은 党 총회에서 자기 비판을 잘한 덕분에 구제되긴 했으나, 피나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 가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빌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있는 힘을 다 바치고도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노릇이다.

8. 作家들 속에 일어난 事件・事故

南韓 出身인 林和・金南天이 간첩죄에 몰려 처형 당하고 李泰俊이 숙청 당했으며, 文壇의 巨物인 韓雪野와 그 추종자들이 숙청 당한 事件들은 이미 앞에서 개략 서술하였다.

이 밖에 개별적인 작가들이 일으킨 事件이나, 저지른 事故들 중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詩人 金宇皙 自殺事件

金宇皙은 평안 북도 신의주 출신으로 일제 시기 「海潮」 同人으로 활동한 中堅詩人이다.

그는 장편 서사시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정시를 발표하여 북한 文壇에서도 重鎮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1963년 초, 韓雪野 숙청 당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의 하나인 閔丙均 (「나무깃벌」등 서사시를 쓴 中堅詩人)이 韓雪野와 결탁했다는 「罪」를 뒤집어쓰고 숙청 당하자 党的 苛酷한 처사에 정면으로 반발하였다.

그는 63년 초의 文人 숙청이 문학을 무덤 속에 파묻어 버리려는 무자비한 탄압이라는 말을 서슴 없이 하고 다녔다.

중앙당 문학예술부에서는 작가동맹 당총회를 소집하여 金宇皙을 비판대에 세우고 폭독판 비판을 가하도록 하였다.

金宇皙은 「자기 비판」을 거부했으며, 자기 말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판의 열이 절정에 오른 같은 해 12월 초에 오랜 친구인 李園友에게 『... 문학예술은 죽었다. 내 詩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마당에 더 살아가는 두얼 하겠는가』하는 유서를 남기고 평양역으로 나가 달려 오는 열차 밑에 몸을 던지고 自殺 하였다.

金宇皙의 죽음은 작가들 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래서 党에서도 부득이 작가들의 사상을 검토하는 党會議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으로 자신의 긍지를 지킨 詩人다운 최후였다.

나. 詩人 金鉄과 朴明子

詩人 金鉄은 1954년 軍 服務時에 「갈매기」라는 抒情叙華詩를 발표하여 일약 文壇에 들어섰으며, 除隊한 뒤에도 「성과작」을 연달아 내놓아 장래가 촉망되는 시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1963년에는 「문학신문」 편집국장으로서 발탁되어 일하기도 했다.

그는 불 같은 정열과 인정 그리고 정의감이 강하여 동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

그런 金鉄이 1964년 초, 党에 「도전」해 나서 말썽을 일으켰다.

이 「도전」은 작가동맹 당총회에서 비판을 받던 文藝總 출판사 女記者 朴明子를 옹호하고 나선데서 비롯되었다.

朴明子는 백계 러시아인과 한국여인 사이에 태어난 소련 2세로 北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韓雪野가 北京을 방문했을 때 郭沫若이 추천하여 평양으로 데리고 온 신인 작가였다. 파란 눈, 갈색 머리카락, 하얀 살결이 이방인의 색채를 짙게 풍겼다.

그날 당중회에서는 朴明子の 자유주의적 경향과 당의 상업 정책을 비난한 언동에 대해 비판이 벌어졌었다.

朴明子が 과일상점에 들렀을 때 좋은 사과들은 다 외국에 수출하고 짜드러기만 판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었다.

朴明子は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고, 당위원장은 비판을 회피한다고 더 호통을 쳤다.

이럴 때 김철이 일어나 박명자를 두둔하는 말을 한 것이었다.

『朴明子 동무가 당의 상업 정책을 비방하는 말을 무의식 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드시피 明子 동무는 그 말을 뱉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의식 중에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明子 동무는 아직 여기 사정에 어두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党 생활총화란 黨員의 잘못을 고쳐 주려는 게 아닙니까? 덮어주고 잘못만 꼬집고 욕박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党委員長이 정신 있느냐고 호통을 쳤고, 金鉄도 이에 맞서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朴明子에게 향했던 비판의 화살은 金鉄에게 돌려졌다. 그러나 金鉄은 완강히 저항했다.

사흘 동안 회의를 거듭한 끝에, 金 鉄은 과오를 범한 朴明子를 두둔했고 黨에 반항했다는 「죄목」으로 繼 黨 처분을 당했다. 「문학신문」 편집국장 직에서도 쫓겨나 강제 청년발전소 건설장 노동자로 강제 배치를 당했다.

金 鉄의 아내는 반당분자로 숙청 당한 남편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 소송을 했고, 그것이 성립되어 金 鉄을 따라 가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차릴 사이도 없이 저질러진 일이었다.

동료 작가들 가운데는 金 鉄의 출신 성분이 농부이므로 언젠가 숙청 당할 것을 짐작하고 일부러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이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자기가 옳다고 보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반발이었다.

金 鉄이 혼자 강제 청년발전소 건설장에 내려 간 뒤, 朴明子는 자진하여,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건설장으로 金 鉄을 찾아 내려갔다.

한토막의 「러브 스토리」 같은 얘기지만, 그 뒤 2년이 못가서 金 鉄과 朴明子가 서로 갈라져, 朴明子는 동남 지구로 옮겨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가슴아픈 얘기다.

다. 詩人 黃河一의 反抗

金 鉄과 비슷한 길을 걸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兩 韓 出身

詩人 黃河一이다.

黃河一은 필자와 서울 徽文中學校 同窓으로 평양에서도 자주 만나고는 했었다. 1948년에 越北하여 「金日成綜合大學」 語文學部를 나왔다.

한때는 詩人으로서 재능이 뛰어나 장태가 촉망되었었다.

그러한 黃河一이 1960년 함경남도 오로군 협동농장들에 취재를 다녀와서 그 곳에서 사귄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다.

黨에서 그 여자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 과거 대지주의 딸이었다. 작가동맹 黨委員長은 黃河一을 불러 반동성분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작가 대열에 남아 있을 수 없다며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黃河一은 자기가 작가 대열에서 쫓겨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기고 두달 후에 결혼을 했다.

결국 黃河一은 작가동맹 정맹원 자격을 박탈 당하고 흥남에 있는 본궁화학공장 노동자로 쫓겨났다.

그때 黃河一의 이름은 널리 알려진 티여서 본궁화학공장 문학서클원들이 그와 자주 접촉을 하였다. 黨에서는 黃河一의 영향이 두려워, 다시 그를 자강도에 있는 위원광산 광부로 쫓아 버렸다.

黃河一은 위장병을 앓고 있는 몸이었다. 습기 찬 지하 막장의 중노동은 그의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1965년 위장병으로 지하 막장에서 숨을 거뒀다.

라. 「回想記」 執筆拒否事件

북괴는 1957년부터 소위 「抗日武装鬪爭 참가자들의 回想記」 執筆에 작가들을 동원했다.

당시 「回想記」執筆에 동원된 作家들은 小說가로 천 세봉, 박웅걸, 황건, 이상현, 김병훈, 박효준, 김홍무, 윤세충(사망), 백철수, 이정숙, 김북향, 박대민, 김근오, 김형구, 김재규, 유근순, 이운영, 변희근, 김규엽, 이북명, 석운기, 이갑기, 신진순, 최학수, 최명익, 유도희, 김영석, 엄홍섭, 강현구, 현덕, 유항림, 박훈, 박태원, 안희남, 천칭승, 석인해 등이었고, 시인으로 정서촌, 정문향, 조벽암, 이호남, 김복위, 최영도, 김조규, 박산운, 이효운, 이맥, 김학연, 안용만 등이었으며, 희곡 작가로 신고송, 한성, 김광현, 남궁만, 유기홍, 백인준, 오철순이, 아동문학가로 강효순, 김정태, 이원우, 윤복진, 김경태, 정기영 등이었다.

희곡작가 朴泰泳도 처음에는 이에 동원되었으나 본인의 거부로 제외되었다.

「回想記」의 執筆을 위한 취재는 黨 역사연구실에 소장된 소위 「항일투사」들의 자필 수기를 분담된 대로 보는 것과 대상 인물을 찾아가 얘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재는 소위 「抗日鬪爭」을 날조 찬양하기 위한 골간을 만들기 위한 소재들을 얻는 데 불과했다.

黨이 분담해 준대로 여러가지 허위 조작을 해야만 했다.

희곡작가 박태영과 시인 朴山雲은 이에 반발했다.

수기에는,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 수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黨에서는 이들에게 黨을 거역하는 害黨分子란 딱지를 붙여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

시인 朴山雲은 黨의 비판에 굴복하고 黨이 요구하는 글을 쓰겠다고 했으나 朴泰泳은 끝내 비판을 접수하지 않았다.

결국 朴泰泳은 작가 대열에 숙청 당해 協同農場 농장원으로 쫓겨났다.

마. 複雜한 異性交際

韓雪野가 女秘書를 농락하고, 아이를 배게 되자 자기가 양성한 신인 小說家 진재환에게 시집을 보낸 일이나 現地 파견작가들이 문학서클원인 처녀를 개별지도 한담시고 자주 만나서 농락한 일을 비롯하여 異性關係 「事故」들이 자주 일어났다. 지저분한 얘기가므로 그중 몇가지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 변희근과 이정숙

小說家 변희근은 작가동맹 조직부장까지 지낸 中堅小說家로 小說을 많이쓰는 작가에 속하는 사람이다. ((최근에도 장편소설 「생명수」 (1978년 발표)등 소설들을 쓰고 있다.))

1962년 경 변희근이 홀몸인 女流小說家 이정숙의 집에 자주 드

나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술하에 아들 형제를 두고 있는 변희근이 노처녀 이정숙의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黨에서도 알게 되었다.

黨에서는 社会安全部에 의뢰하여 변희근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社会安全部員들은 변희근이 이정숙과 같이 자고 있는 자리를 덤쫓았다.

곧 작가동맹 당총회에서 변희근과 이정숙을 비판하는 검토 사업이 벌어졌다.

변희근과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

변희근은 작가동맹 조직부장 자리에서 쫓겨나 동남비료공장 現地 派遣作家로 배치 당했고, 이정숙은 평양방직공장 派遣作家로 배치를 당했다.

이들을 이 정도로 관대하게 봐 준 것은 둘다 북한 출신 작가들이었고, 이정숙의 친척이 중앙당 고위 간부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변희근은 그후 다시 회복되어 道支部長이 되기도 했다.

○ 洪源德 醜行事故

1961년 경, 동남비료공장 신문 주필로 있던 小說家 洪源德이 공장 문학서클원인 처녀 2명을 작가로 양성해 준다고 자주 접촉하면서 醜行을 저지른 「事故」이다.

北韓에서는 남녀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비행을 「事故」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洪源德은 醜行이 탄로되자 스스로 작가동맹 黨委員會를 찾아 비판을 받았다.

洪源德은 北韓 出身 作家였고 미혼자였다.

두 여자 중 아이를 낳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 비판을 「뼈저리게 잘 했다」고 하여 정맹원에서 후보생맹원으로 격하시켰을 뿐 그대로 구제되었다.

북괴는 作家들의 구성에서 北韓 出身 作家들이 南韓 出身 作家들보다 훨씬 적으므로 될수록 「구원」해 주는 입장에서 있다.

반면, 南韓 出身 作家들에게는 매우 무자비하였다.

○ 女流詩人 金貴蓮의 醜行

金貴蓮은 中堅詩人으로 作家 아파트에서 工場 기능공인 친조카와 同居하고 있었다. 나이 40이 넘었지만 얼굴이 반반하고 화장을 질게 하여 30 안팎으로 보이었다. 거동이 얌전하여 성실하다는 評을 받기도 했다.

그런 金貴蓮이 동거하고 있는 조카와 醜行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폭로된 것은 조카의 애인인 같은 工場 女職工이 눈치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남몰래 알아 본 끝에 작가동맹 黨委員會에 알려 드러났다.

金貴蓮은 곧 작가동맹에서 축출 당해 황해 북도 송림시에 있는 창해제철소 노동자로 쫓겨났다.

이 밖에도 문예총출판사 부주필이던 원웅건이 교정부 여기자들

사무실에서 농락하다 들킨 일을 비롯하여 作家들 속에 적지 않은 醜行 「事故」가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作家들도 그 사회에서는 「人氣」있는 직업이며, 소녀들이 부러워 하고 「존경」하는 입장에 있어서 복잡하고 지저분한 異性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류에 속하다는 것만 부언해 둔다.

9 . 異 質 的 인 風 土

가. 作品 「 饑 饉 」

1963년 韓雪野를 숙청한 직후, 북괴는 韓雪野의 余毒을 뿌려 뽑는다고 하면서 作家同盟 黨總會 (후에는 文芸總 黨總會)를 소집하여 作家들에 대한 思想檢討를 진행하였다.

이 思想檢討會는 매일 오후에 당회의를 열어 진행하는 형식으로 1964년 중순까지 무려 1년 6개월 간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시간도 빼앗기고 정신적으로도 무척 시달리어 作品 創作에 큰 支障을 받았다. 創作과제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진전궁궁하였다.

1964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作品 「 生産 」이 극히 감소되어 文芸雜誌와 신문들에서는 作品이 없어 절절 매었으며, 「 作品饑饉 」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결국 신문 주필들과 출판사 사장들이 중앙당 문학예술부에 어려운 실정의 해결을 진정하게 되었다.

중앙당 文學藝術部에서는 부득이 회의를 중단하고 作家들을 靜·休養地로 파견, 급히 作品을 쓰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作家同盟에 내렸다.

매 작가들에게 創作할 作品 과제들이 분담되고, 열명 1개조로 하는 소조들이 조직되었으며, 소조별로 지정된 靜·休養地로 출발하였다. 創作 기간은 1개월이었다.

당시 필자는 같은 소조 작가들과 함께 강제 독로강 기슭에 있는 별장(후루시초프 방문을 예측하여 지은 별장)에 갔었다. 1개월 간에 단편소설 1편을 쓸 창작과제를 받았다.

호텔 식으로 지은 별장에서는 특식을 대접했고 마당에는 탁구대도 놓여 있어 놀기도 좋았다.

한개 호실 당 2명의 作家들이 들어 앉아, 가는 날부터 원고지를 퍼놓고 일들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思想檢討會에서 당한 精神的 고통과 신경과민의 긴장성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에서였던지 글은 도무치 되지를 않았다.

하기는 문학 作品이 환경이나 개선되었다고 마구 創作되는 것은 아니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마당에서 탁구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성급한 作家들이 創作도 안될 바에는 마음을 탁 들고 쉬거나 하자는 뱃짱으로 마당에 뛰쳐 나간 것이었다.

소조 책임자가 잔소리를 하였으나, 밖에서 노는 作家들의 수는 자꾸 늘어만 갔다. 하기는 일부 소심한 作家들은 다시 벌어질 思想檢討會에서의 비판을 생각하여 끝내 방 안에 틀어 박혀 있기도 했다.

해방감에 젖은 한달은 빨리 지나 갔다. 마지막 4~5일 동안에 미리 생각해둔 줄거리의 단편소설을 써들고 돌아왔다.

대개 創作 과제를 해 내기는 했으나 그런 식으로 쓴 作品들이 좋을리는 없었다.

이리하여 作品 부족 현상을 바로 잡기는 했으나, 作家들이 난발되어 作品들의 질은 한층 더 떨어졌다.

이러한 일은 주기적으로 일어나 作品의 질을 갈수록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이와 같이 作品 飢饉은 文學藝術을 철저히 어용화하여 黨의 도구로 이용하는 共產獨裁 통치 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作家들은 黨에서 부여하는 創作 과제를 완수하라는 강요를 당해 마음에도 없는 글을 난발하게 되며, 그러한 글의 저질성과 무가치성은 당으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자주 위축되며 思想檢討會와 같은 캠페인이 있을 때는 더욱 위축되어 作品을 전혀 쓰지 못한다. 결국 作品 飢饉이라는 奇現象이 反復된다. 北韓 作家들은 이러한 生活속에서 신경 과민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나. 作家 「勞力動員」

作家들도 모내기철에 15 ~ 20 일, 추수기에 15 ~ 20 일 간의 「農村支援戰鬪」와 한달에 1 ~ 2 회 日曜勞動에 動員된다. 「農村支援戰鬪期間」에는 하루 4 ~ 5 시간 정도만 취침하고 나머지 시간을 勞動에 바쳐야 하는 심한 고역을 겪는다. 육체 勞動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한 重勞動을 강요 당하여 苛酷한 고통을 겪는다.

1965년 詩人 이백이 모내기를 하다가 뇌일혈로 논판에서 쓰어진 일도 있었다. 다행히 심한 편이 아니어서 다시 회복되기는 했으나, 作家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革命的 대작창작지도 구루빠」 성원들과 거기서 심의하고 있는 作品을 쓰는 작가들은 「勞力動員」에서 제외된다.

다. 後閱

북괴는 文芸雜誌, 單行本, 新聞들을 발행한 뒤, 내용과 문장 그리고 단어에 이르기 까지를 후열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後閱은 해당 편집부와 「정무원」 출판총국 검열부 그리고 해당 作品을 쓴 作家들이 실시한다.

後閱 과정에 발견된 잘못에 대하여는 출판총국에서 종합하여 일반 新聞과 방송인 경우에는 중앙당 선전선동부에, 문예잡지, 文學新聞, 단행본의 경우에는 중앙당 文學藝術部에 보고한다.

결함을 범한 당사자는 과오의 輕重에 따라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後閱에서 엄중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배포를 중지하며 이미 배포되었다면 모두 회수한다.

실례로, 1966년 「朝鮮藝術」에 「金日成 원수(元首)」가 「金日成 위수」로 된 것이 後閱에서 발견되어 이미 배포한 雜誌들을 모두 회수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金日成과 관련된 어휘나 문장에 잘못이 생기면 무조건 회수하며 그 잘못이 어디로부터 생겨 났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제를 가한다.

後閱 제도는 북괴가 作品 출판에 대하여 2重 3重의 검열만으로도 부족하여 발행된 것을 또다시 검토하게 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作品들에 대한 검열, 초교 재교지에 대한 검열, 출판 직전 게라지에 대한 검열을 하는데 이는 출판 분야에 이른바 「暗害分子」들이 숨어 있다가 책동할것이 두려워 취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後閱은 북괴가 文學 分野와 출판 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실증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 集体創作

북괴는 金日成과 党에 대한 讚歌, 共產 제도에 대한 頌歌 등은 어느 개별적인 詩人の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읊을 수 없는 것이므로 集体的으로 創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金日成이나 党 그리고 共產 제도의 부분적인 면들은 개별적인 詩인이 쓸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찬양하거나 찬송하는 경우는 여러 詩인들이 힘과 재능을 합쳐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의 生日맞이 頌歌나 党 大會 또는 党 創建日에 바치는 장편 서정서사시 등을 集体創作시키고 있다.

이러한 集体創作을 위하여 작가동맹 시분과위원회에서는 5~7명의 詩人들로 集体創作組를 만들고 그중 유능한 詩人을 組長으로 임명, 제시된 제목의 詩를 쓰도록 한다.

集体創作組는 함께 모여 앉아 구상, 구성을 하며, 그것을 해당 참가 인원의 수대로 쪼개서 創作시켜 초고를 만든다. 이 초고를 集体的으로 檢討하고 修正 또는 보완을 하여 완성시킨다.

최근에는 일부 장·중편소설과 희곡, 영화 시나리오 등도 集体創作을 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장편소설 「만경대」 (韓雪野의 동명소설)를 集体創作이란 이름을 붙여 내놓았으며, 「피바다」등 무기명의 희곡 作品들도 내놓았다. 무기명의 作品은 거의 集体創作인 것이다.

마. 軍 所屬 作家

북괴는 일부 作家들을 軍에 入隊시켜 「人民軍總政治局」 소속으로 軍隊에 관한 作品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 作家 박태용, 희곡작가 김세륜, 詩人 정동찬, 이수복 등을 비롯한 10여명의 作家들이 軍 所屬 作家로 일하고 있다.

軍 소속 作家는 그의 경력과 作家로서의 비중에 따라 中尉로부터 中佐의 軍事称号(계급)를 받는다.

軍 소속 作家는 대개 軍隊 生活을 체험한 젊은 作家들이며, 成分이 「좋은」 作家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新聞 「朝鮮人民軍」, 軍 文芸誌, 「2·8 영화촬영소」의 시나리오, 「人民軍 협주단」의 가극, 연극, 공연 등에 쓰여진다.

軍 소속 作家들은 軍事秘密을 알고 있으므로 일반 作家들과의 접촉을 될수록 하지 않도록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 문예지나 新聞에 작품을 실는 것도 統制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人民軍總政治局」의 승인이 있으면 일반 文芸誌와 신문 그리고 단행본에 글을 실을 수가 있다.

이들은 作家同盟 黨 총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바. 素材 求乞

직장에 나가는 作家들이 「해방작가」들에게 素材를 求乞하는 일이 많다.

직장에 나가는 作家들은 자기 職務에 쫓겨 素材를 찾아 낼 시간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文學은 人間學이므로 素材의 대상은 人間이다. 직장에 나가는 作家들도 사람들을 접하기는 하나, 복귀가 文學 作品의 주되는 주인공으로 삼으라는 노동자, 농민은 접하기 어렵다.

자연 境地에 자주 나가는 「해방작가」들에게 素材를 求乞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만 짧은 創作 휴가 중에 맡겨진 創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작가」들도 저마다 맡은 創作課題가 있으므로 素材를 아끼며, 극친한 사이가 아니면 잘 나눠 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직장에 나가는 作家들이 당하는 고충의 하나가 있다.

실례로 小說家 박응결 (文化相을 지냄)이 함경남도에 취재를 하러 내려가 현지 생활을 하던 千世峰 (現 作家同盟 委員長)에게 素材 求乞을 한 일이 있다.

천세봉은 처음에 素材를 나눠 주려고 하지 않았으나 박응결이 여러 차례 찾아가 애걸하는 바람에 함경남도 안전국장을 하던 조회의 자료를 나눠 주었다.

당시 천세봉은 農村 協同化를 배경으로 한 「석개울의 새봄」이란 장편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으므로 나눠 줄만한 여유가 있었다.

박응결은 천세봉한테서 구걸한 素材로 장편소설 「조국」을 創作 발표하였다.

小說家 김승권이 탄광 생활을 오래한 小說家 진재환한테서 求乞한 소재로 장편소설 「탄부일가」를 썼고, 小說家 현희균이 필자한테서 받아 간 소재로 중편소설 「청춘의 고향」을 쓴 것을 비롯하여 소재를 求乞하여 쓴 小說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남에게 求乞한 素材로 作品을 創作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作品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 지는 것이기도 한다.

자신이 체험하지도 못한 생활을 배경으로 씀이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그린다는 것은 「천재적」 재능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북괴는 作家同盟에서는 이러한 素材 求乞 현상이 초래할 부작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마저 단속하면 직장에 나가는 作家들이 創作 과제를 완성해 내기 어려우므로 모르는 척 눈 감아 주고 있는 實情이다.

10. 拉北·越北 作家藝術人들의 그後

내가 북에서 만난 南韓出身 作家藝術人들로는 作家들로 春園 李光洙·尙虛 李泰俊·仇甫 朴泰遠·朴八陽·趙壁岩·宋影·朴世永·安漢·林和·金南天·李箕永·安懷南·林虎杵·鄭曙村·金朝奎·申鼓頌을 비롯한 수십인이요, 演芸人 또한 黃徹·沈影·崔承喜·文芸峰·裴勇·朴永信·申不出 등 십여인을 헤아릴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6.25 때 납치 당해 간 이들도 있고, 6.25를 전후하여 越北한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이미 숙청 당해 고인이 되었거나 비참한 생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겨우 숙청을 모면하고 근근히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극소수나마 북괴에 아부하여 상당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북괴에 이용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머지않아 이미 희생된 이들의 전철을 밟으리라는 비극적 전망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전망은 몇몇 저명 문화인들이 밝은 길을 더듬어 보면 명백해진다.

春園 李光洙는 1950년 납북된 후 慈江道滿浦郡別午里 산골짜기 작은 동기와 집에 연금되어 있었다.

그때 春園을 감시하고 뒤에 평양으로 인솔해 온 崔貞園이라는 보위부원이 나중에 문학도가 되었는데 그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春園은 폐병이 도져서 아침저녁으로 울렁거리며 모진 고생을 겪었다고 한다.

아침에 상쾌한 바깥 공기라도 쉼터고 집 문을 나서려 하면 삼작문 앞에 선 보초가 총창을 번득거리며 가로 막고는 했다.

春園은 『요 앞 개울까지만 다녀 오리다』했고 보초는 『아바인 어께 그리 자유주의가 많소!』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혀 들었을 때 春園이 언젠가 수필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쓸 세상은 아니지만 혼자만 세상을 버리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쓴 귀절이 생각났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 春園을 평양으로 압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崔貞國은 滿浦線 열차 편으로 호송을 했는데, 같은 열차 안에는 拉北된 政治人들인 安在鴻, 嚴恒燮, 趙素昂, 吳夏英 등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모두 감시원들이 붙어서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눈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春園은 평양에 당도하는 절로 모란봉 기슭 거림리 반포굴 집에 수용 당했다.

春園에 대한 포섭 공작은 당시 중앙당 선전선동부장 金昌滿과 책임지도원 崔貞國의 지도 하에 文芸總 위원장 韓雪野와 이기영이 담당 진행했었다.

金昌滿은 먼저 春園을 감홍리에 새로 아파트가 준공되자 그리로 옮겨 우대하였다. 당시 春園은 물랐을 거지만 감홍리 아파트에는 安在鴻·趙素昂·嚴恒燮등 인사들도 수용되어 있었다.

春園은 韓雪野와 이기영의 끈질긴 설득 공작에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나중에는 金昌滿이 직접 찾아 들어 『정 그렇다면 우리 대남 공작을 돕기라도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魏鶴野는 春園의 방문을 나서며 『제버릇 개주라!』고 욕질을 했고, 이기영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구... 폐병 골골하며 저 고집인가...』하며 한탄했다.

春園의 포섭에 실패한 金昌滿은 春園이 南韓出身 作家들에게 미칠 영향이 두려워 그를 瀋州 吉林省 韓人 自治區로 추방하였다. 그러나 春園은 호송당해 가던 도중 피를 토하고 쓸어져 北京 肺結核 병원에 급송되었고 그 병원 문턱을 넘어보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었다.

『...從心所欲하여 하는 일이 곧 인류 구제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이것은 내 생애에 일관된 이상이다.』(春園의 수필 「戀履」에서)

春園은 共產主義의 찬서리를 맞고 비참히 쓸어졌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도 그의 높은 이상을 발살하지는 못하였다.

春園은 자기의 이상을 여러 계층의 심층에 심어주고 共產主義 복정이 유행하는 만리 이국땅에 묻힌 것이다.

우리 「겨레의 정신」·「겨레의 얼」을 문학 정신으로 삼고 新文學을 개척한 창시자의 한 사람인 春園은 머나 먼 이국 땅, 묘비도 없는 무덤에 사모친 원한과 못다한 말을 가슴에 안고 외로히 묻혀 있다.

春園과는 달리 북괴에 아무 굴종하고 충성을 바쳤으나 이용 당할 대로 이용만 당하고 오히려 숙청이라는 된서리를 맞고 희생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尙虛 李泰俊·申不出·崔承喜·林和·金南天 등을 들 수가 있다.

李泰俊은 그의 아들 이유백이 나와 서울 徽文中學校 동기동창인 연고로 그가 서울 성북구에 살 무렵부터 면식이 있는 터였다.

그런 尙虛를 내가 북에서 만난 것은 1958년 초, 咸興콩크리트 불록공장 뒷마당에서였다.

그때 그 뒷마당은 破古鉄 수집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破古鉄 수집 労働者로 자기 이름이 적힌 표말이 꽃혀 있는 古鉄 무더기 곁에 헤어진 작업복 차림으로 처량하게 서 있던 尙虛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하다.

尙虛 李泰俊이란 이름은 왕년에 저명한 小說家로 장편소설 「황진이」·「마의태자」 그리고 「文章講話」등 두툼한 책자들에 빛났었다. 그 이름이 그제는 깨진 쇠조각을 찍히는 표말에 찍어져 있었다.

尙虛는 1947년 共產主義에 대한 환상을 품고 越北했다. 그리고 북괴 치하에서 충실히 일해 文芸總 副委員長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순수문학에 젖은 尙虛를 그 사회가 오래 용납해 둘 리가 없었다.

1957년, 尙虛는 반동문학을 복구하려고 책동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숙청 당해 咸南日報社 校訂員으로 쫓겨났다.

북괴는 그가 복구하려 했다는 반동문학의 대표적인 作品으로 「두죽음」이란 단편소설을 들었다.

이 小說에서 尙虛는 戰場에 쓸어져 있는 국군 병사의 시체와 북

과 인민군 병사의 시체를 두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戰爭이 빚어낸 비참한 희생으로 묘사하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비운을 개탄했었다. 바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북괴 인민군 병사의 시체는 소위 「祖國解放戰爭」에 목숨을 바친 것이므로 英雄的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해야 되며, 국군 병사의 시체는 소위 「미제고용병」의 시체이므로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묘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尙虛는 이런 북괴 지도층의 논리에 대해 반발했으나 오히려 더 가혹한 비판을 받고 강제 추방 당했다. 李泰俊의 숙청에서 칼을 들고 앞장 선 자는 韓雪野였다.

어쨌든 그후 尙虛는 校訂員 자리나마 1년도 못채우고, 거기서도 반동분자로 호된 비판을 받고 쫓겨나 함흥공크리트 블록공장 倣古鐵 수집 노동자로 강제 배치 당한 것이었다. 그후 1965년 경 중앙당 문화부 (대남 심리전 참모부)로 소환 당해 영양으로 올라 왔다는 일설이 있으나 이는 필자가 확인해 보지 못했다.

漫談家 申不出은 李泰俊과 또다른 길을 걸었다.

申不出은 1947년 越北한 뒤, 李承晩정권을 才談과 漫評으로 신랄하게 공격한 공적을 인정 받아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으며, 「申不出만담연구소」도 차려 받아 후배를 양성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申不出은 아부아침의 능수였다. 그는 당시 文芸總 委員長이던 韓雪野의 줄개로 되어 그에게 충성을 다 바쳤고 雪野의 회갑 잔

치 때는 축하 詩調를 지어 읊기도 하였다. 심지어 화장실에 다녀 온 韓雪野의 구두 코에 오줌 방울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제 손수건으로 닦아 줄 정도로 아부했다면 申不出의 처세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韓雪野가 1962년 말 숙청 당하자 申不出도 韓雪野의 추종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호된 비판을 받고 숙청 당해 降仙製鋼所 노동자로 쫓겨났다.

그러다가 1965년 북괴가 대남 심리전 방송에 다시 申不出을 이용하려고 평양으로 소환하는 바람에 일시 구제되었다. 이에 申不出은 다시는 모진 노동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韓國에 대한 비방 방송을 악랄하게 감행했었다. 그러나 그 후 북괴 지도층은 申不出의 이용가치에 한도를 느끼고 또다시 자유주의 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咸南 광천군에 있는 검덕광산 광부로 쫓아냈다.

주인의 발길에 채이면서도 그 발목에 다시 감겨 드는 것은 개의 생태이다.

申不出은 벼라별 치욕을 다 당하면서도 아부아침을 일삼다가 제 정신마저 잃어버리고, 결국 개만도 못한 신세에 떨어진 타기할 성격의 지닌 인간이었다.

영화배우 文芸峰은 또다른 규제를 받았다.

文芸峰은 8.15전 韓國的인 정서가 그윽히 서린 담담한 얼굴로 영화제에 등장하여 유명해진 여인이다.

羅雲奎와 공연한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水仙花」들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 앞날이 밝다는 칭찬을 받았다.

文芸峰은 1947년 남편인 林宜奎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의 작자)를 따라 越北한 후 北韓 영화계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1952년 극영화 「빨찌산 처녀」를 비롯한 여러 편의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공로로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또 「조
·소문화협회」 중앙위원 겸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위원으로 발
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괴 치하에서 자란 배우들이 늘면서 자연 南韓 출신인
그녀의 역할은 퇴조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文芸峰의 연기가 너무 애상적이라는 비
판이 자주 벌어졌다.

중앙당 문학예술부에서는 文芸峰을 소위 「여성혁명투사」의 역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당시 중앙당 사상담당 부위
원장이던 金昌滿은 文芸峰의 성격을 「革命的으로 개조」하라는 지
시를 내렸다.

그리고 文芸峰의 성격 개조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林宜奎를 배
제하기 위하여 이혼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文芸峰은 남편 잘 섬
기기로 이름 난 여자로 이 강요를 거절했다.

이에 金昌滿은 林宜奎를 폐병 치료차 요양을 보낸다는 구실을
붙여 朱乙은천으로 쫓아 보내 文芸峰을 견리시키고 「예술영화촬영
소」 당 사상검토회를 열어 文芸峰의 사상과 성격을 뜯어 고치려고

시도하였다. 그래도 文芸嶺의 성품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을 쥐리시킨 金昌滿의 비정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반감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는 했다.

金昌滿은 노발대발하여 文芸嶺의 영화 출연을 일체 금지시켜 버렸다.

共産 獨裁 통치자에게 이용 당할 대로 이용당하다가 그 이용가치의 상실과 함께 매장 당한 불쌍한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이 밖에 1958년부터 자유주의 분자로 비판을 받기 시작해서 1965년에 몰락한 무용가 崔承禧의 경우도 그렇고, 1953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시인 林和, 金南天과 1959년 반당종파분자로 몰려 숙청 당한 安漢의 경우도 그렇다.

그러나 북괴는 그 어떤 인물에게 아직도 이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짜내는 식으로 무자비하게 부려 먹는다.

仇甫 朴泰遠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仇甫는 해방 전 서울 청계천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풍속을 리얼하게 묘사한 「川辺風景」으로 저명해진 小説家이다.

그는 北으로 가서도 리얼한 小説 여러편을 발표했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1963년 경부터 視力이 더욱 약해지더니 1964 초에는 완전히 눈뜬 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북괴는 이런 朴泰遠에게도 창작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創作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식량배급을 잘리게 되는 것이다.

朴泰遠은 피눈물을 뿌려 가며, 자신이 부르고 부인이 받아 쓰는 식으로 창작과제로 부여된 장편소설을 탈고하였다. 바로 그 小説이 『제명 산천은 밝아 오느냐?』라는 긴 제목을 가진 역사소설이다. 그후 朴泰遠은 크런 식으로 단편소설을 쓰며 굳건히 연명하고 있다.

拉北·越北者 얘기가 나온 길이니 내가 알고 있는 拉北 또는 越北 政治人들의 그후 소식도 서술해 놓겠다.

1954년 평양에서 남북 정친이들인 安在鴻(전美軍政庁 民政長官)·趙素昂(2代 議員)·吳夏英(과도立法議員)·嚴恒燮(民主議院의원)·元世勳(과도立法議員)을 비롯한 20여인이 中區域 巖上洞 단독 주택들에 따로따로 연금되어 있는것을 목격하였다.

남북된 著名人士 백여명이 휴전 후 巖上洞과 西區域 감홍리에 옮겨졌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으나 직접 확인하기는 처음이었다.

살이켜 보면 6.25때 북괴가 납치해 간 사람은 84,532名에 달했다. 그중 남자가 78,377명, 여자가 6,355명이었다.

남북인사들 가운데는 安在鴻, 趙素昂, 宋虎聲(전국방경비사령관)·吳夏英, 金奎植(과도立法議員·의장)·尹奇燮(과도立法議員·부의장)·元世勳, 丘德煥(2대 민의원)·崔麟(천도교道領)·鄭寅普(審計院長·역사학자)·李光洙, 金僊(시인)·金東煥(시인)·朴建雄, 金孝錫(전내무부장관)등 著名人士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南勞黨 「국회푸락치사건」에 가담한 金若水, 姜旭中, 崔泰奎, 李文源, 盧鎰煥, 裴重赫 등도 북괴로부터 공로를 인정 받지 못하고 남북인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경상동 단독 주택들에 수용되어 있던 이들은 安在淵, 趙素昂, 吳夏英, 嚴恒燮, 元世勲, 尹奇燮, 丘德煥, 金孝錫, 鄭寅普, 金若水, 姜旭中, 崔泰奎, 李文源, 盧鎰煥, 裴重赫과 전 制憲議員들인 金庚培, 鄭光好, 申性均, 金景道, 2代議員인 白象圭, 前在日居留民團長 朴烈, 前대한부인회위원장 朴勝浩 등 21명이었다.

북괴는 이들을 제 1차 포섭대상자로 삼고 세뇌공작을 벌였다.

이 공작에는 당시 북괴 당 검열위원장이던 李孝淳과 사회과학부장 河仰天의 지도 하에 당시 북괴 과학원 원장 洪命熹(소설「林巨正」의 저자·사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李克魯 여성동맹 부위원장 丁七星 등 南韓出身 고위 간부들이 동원되었다.

북괴는 이들을 동원, 남북 정치인들과 개별 접촉을 벌이게 하는 한편, 일부 인사들을 소위 「인민경제대학」 특설반에 입교시켜 共產主義 敎育을 실시했는데, 첫입교생은 嚴恒燮·金孝錫·金若水였다.

남북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포섭당한 사람은 宋虎聲이었다.

宋虎聲은 1951년, 북괴군 22여단장(22여단이란 국군 장병으로 북괴군에 포로된 국군 출신 소위「해방전사」와 越北 軍人으로 조직된 여단)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버티다가 1954년 河仰天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 「의거자 정치학원」 교장으로 취

임하였다. 그러나 李孝淳과 河仰天도 다른 남북인사 포섭에는 고배를 마셨다.

우선 安在鴻의 포섭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河仰天은 安在鴻의 마음을 들러 놓으려고 좋은 집에 그를 옮기고 어린애가 하나 달린 가정부를 하나 붙여 주었다.

河仰天은 이 가정부를 安在鴻의 아내처럼 불러 주고 어린애를 아들이라고 하며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회유에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사실 安在鴻은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끔찍히 아껴 주고 냉혹한 그 사회에서도 父情을 베풀었는데, 북괴는 이러한 인간애를 저들의 목적 달성에 이용한 것이었다.

북괴는 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제3차 당대회」를 열고 「祖國 統一에 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 남북인사들을 이용해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56년 7월 남북인사 200여명을 망라한 소위 「재북평화 통일추진협의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하였다. 安在鴻은 이 창립대회에서 개회사를 했는데, 북괴가 써 준 것을 읽은 것이었다. 북괴가 조작한 결정서에는 南北 간의 협상에 의한 統一問題에 대한 것들보다도 南韓 當局을 비방 중상하는 욕설 투성이었고 마치 남북인사들 모두가 충실한 共產主義者나 된듯이 날조한 문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安在鴻은 趙素昂, 嚴恒燮, 吳夏英, 宋虎声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최고위원으로 서술되었다.

남북정치인들 가운데 무모할 정도로 불만을 걸어로 터뜨려 놓고 북괴와 날카롭게 대립한 사람은 趙素昂, 嚴恒燮들이었고, 묵직한 저력으로 끈질기게 버틴 사람은 바로 安在滯이었다.

이런 安在滯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인 1965년 3월 1일의 일이다.

한편 1958년 말 북괴 최고 검찰소에 趙素昂·嚴恒燮이 간첩죄로 기소되었다. 과거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할때 「藍衣社」에 관련되어 중국 국민당의 정보원 노릇을 했고, 그 뒤에도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反黨反政府음모계획」도 했다고 뒤집어 씌웠다.

북괴는 嚴恒燮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 反黨反政府음모계획에 대한 자백서를 써우고, 趙素昂·尹奇燮·宋虎聲·元世勳 등도 관련되었다는 자백을 시켜 이들 정치인사 모두를 구속하였다.

趙素昂의 시체가 大同江上에 떠오른 것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59년 초여름이었다.

북괴는 趙素昂이 「反黨反政府음모」와 「간첩죄」가 폭로되자 大同江에 투신 자살했다는 말을 유포시켰다.

나머지 嚴恒燮·尹奇燮·宋虎聲·元世勳 등은 教化所(감옥)에 일단 수감되었으나 그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 밖에 북괴는 전 입법의원 朴建雄을 美軍 브라운 少將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는 등 거물급 남북인사들을 차례로 제거했다.

金若水를 비롯한 南勞黨 「국회무락지사건」 가담자도 예외없이 원서

리를 맞았다.

制憲국회의원을 지낸 吳沢寬 목사는 평양시 대동군에 있는 남북 인사 수용소에 감금 당한 신세이면서도 「재북평화 통일촉진협의회」에 가입하라는 북괴의 강요를 완강히 거절했다.

북괴는 吳沢寬 목사가 끝내 협력을 거부하자 그를 平北 護州 벌목장 노동자로 추방하였다.

그 밖에도 유명인사로 과도立法議院 의장을 지낸 金奎植은 1950년 12월, 만포진까지 끌려 들어가 거기서 肺癆病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엔 한국위원인 金演麟은 1956년 평양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회원 자격 심사를 받던 도중, 도피를 기도했다는 이유로 총살 당하는 등 비통한 최우를 다친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또한 중앙청 住宅局長이던 李弘洙를 비롯하여 局長들인 朴鍾萬·趙文濟·趙秀俊·車周弘 같은 이들은 북에 끌려 가자마자 강제 노동수용소 또는 敎化所에 수감되어 가혹한 중노동을 강요 당해 뼈만 남도록 고역을 겪었다.

그리고 종교인들인 기독교 연합회 총무이던 南宮赫과 목사 朴炫明·方薰·宋昌根들은 「인민대중의 정신을 마취시키는 야편」과 같은 존재로 지탄을 받고 平壤敎化所에 수감 당한 후, 다시는 햇볕마저 보지를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11. 나 의 길

가. 韓雪野와 나

北韓에서 나는 홍남비료공장 노동자 出身 作家라는 취급을 받았다. 남로당 계열로 숙청 당해, 홍남비료공장 노동자로 쫓겨났던 내가 어떻게 北韓의 作家가 되었으며, 作家들의 틈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개략 언급하려고 한다.

1957년, 나는 홍남비료공장 보수직장에서 鷹工으로 노동을 하고 있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흔들거리는 발판을 올라가야 했고, 工場 建物들이 성냥꽂만하게 내려다 보이는 질안공장 백십미터 굴뚝 위에서 첩판을 두드려야 했으며, 옷깃이 닿기만 해도 삭아떨어지는 유산 탱크의 냉각판들을 뜯거나 조립해야만 했다.

연공이란 하루 노동 시간의 절반나마를 높은 곳에서 보내야 하는 노동 직종이다. 그 해 나와 함께 일하던 서른 다섯명의 작업반원들 가운데 일곱명이 높은 데서 떨어져 두명이 죽고 다섯명 병신이 되었다. 나도 높이 십오미터인 주물 직장 합장 위에서 일하다가 거꾸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보름동안 공장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다. 쇠붙이들이 뽀족뽀족한 주물 직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때 아래에서 본 한 동료는 『저치 죽었구나!』하고 눈을 감았다 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鑄物砂 위에 떨어졌다. 떨어지자 벌떡 일어나서 장승처럼 우뚝 서 있더니 무너지

듯 쓸어져 버렸다고 한다.

내가 불쑥 일어난 것을 보고 높은 작업반장이 『도비(연공)는 도비다!』라고 소리쳐서 뒤에 두고두고 쓴웃음 짓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공장 안에 가득 찬 숨 막히는 유산가스, 해풍에 밀려 늘 노동자 합숙소 위로 누런 머처럼 드리운 질안 공장의 지독한 연기, 설새 없이 쿵쿵거리는 기계들의 동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육체와 신경을 해쳤다. 토끼를 길러도 닳새를 못넘겨 죽고, 가로수 잎사귀들은 한여름철에도 누렇게 시들은 채 가지 끝에 매달려 간들거렸다. 한밤중 명치끝이 막히는듯 답답하여 합숙방 침대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가 심호흡을 하고는 시커먼 가래와 피를 토해 놓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해 유월, 어느날 오후, 직장장실에서 나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수 직장 연공으로 2년 남짓 노동을 했지만 직장장이 자기 방으로 나를 부른 일은 한번도 없었다.

의아한 마음으로 직장장실에 들어서니 두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공장 당 선전부 지도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장 지배인이나 입을 수 있는 고급 양복으로 단장한, 얼굴과 몸집이 두툽한 낯모를 사람이었다.

『이 동뭍니다.』

선전부 지도원이 나를 가리키며 인사를 시키자 그 사람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건너다 보더니,

『나, 李北鳴이오』

하고 자기를 소개했다.

李北鳴은 日政 때 바로 이 흥남비료공장을 배경으로 한 『질소비료공장』이라는 소설로 문단에 나선 小說家요, 당시 北韓 作家 同盟의 부위원장이었다.

『옷을 갈아 입어야 겠군』

李北鳴이 혼잣말처럼 웅얼 거린 소리였다. 그 때 내 차림새는 무척 초라했었다. 유산 방울에 구멍이 송송뚫려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누더기 작업복을 걸치고 기름때가 꼬이지 흐르는 작업모와 마대로 만든 멩어리 장갑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공장에 韓雪野 동지 오셨소! 동무 만나 보시겠다йка 열피딩 옷을 갈아 입소!』

당 지도원의 이런 말을 듣고 나는 탈의실로 갔다.

당시 韓雪野는 당 중앙 위원·「최고 인민회의」상임 위원·교육 문화상·作家同盟 위원장 직을 겸직한 고관이어서 한낱 노동자로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 韓雪野가 무엇하러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韓雪野라는 인간과 나를 연결시킬 아무런 단서나 유대도 찾을 수가 없어서 왜 그가 나를 부르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공장 당 조직원실에서 소파에 몸을 깊숙히 파묻고 있는 韓雪野를 본 순간, 내가 받은 첫인상은 전방지고 불쾌한 대상이라는 느낌이였다. 고집스럽게 뻗뻗이 일어 선 백발의 상고머리, 교활하게 반짝이는 세모진 눈, 알뜰한 입술, 네모진 턱이 그의 기름한 얼굴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韓雪野는 나를 유심히 건너다 보더니 곁에 서 있는 李北鳴에게 물었다.

『이 동문 무얼 썼소?』

『청년문학에 안전머란 단편소설을 실었습니다.』

『안전머?』

韓雪野는 다시 내게 얼굴을 돌렸다.

『리 동무라구 그랬던가?』

『네』

『그 소설 왜 썼소?』

왜 썼느냐? 싱거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길다.

나는 아주 상반되는 두가지 꿈을 품었었다. 하나는 정계에 뛰어 들어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들이 펼쳐진 목장에서 글을 쓰면서 지내는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었다.

8.15 해방 후, 급변하는 정세와 정치 일색의 서울 거리는 첫번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나를 유혹했다.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고 『도쿠다큐이찌』의 『자본주의 해부』를 비롯한 赤書들을 탐독했다.

좌익 청년단체인 『인애청』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시초가 되어 南勞黨에도 들어 갔다.

6.25 동란이 일어 난 1950년에는 서울에서 「민청」 지도원

노릇을 했고, 9.28 이후에는 태백산으로 들어가 소위 『남반부 유격대 제1지대』 분대장으로 『빨치산』이 되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 산생활에서 동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얼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하며, 내가 왜 총을 들고 그 엄동설한 속을 헤매야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줄도 몰랐다. 다만 그 길로 가야만 내 꿈이 실현되리라 믿는 빛나간 확신만을 안고 살기 풍기고 피로 얼룩진 대열을 따라 다녔다.

1951년 北으로 철수하는 『빨치산』 대오에 섞여 처음 北韓 땅을 밟았다. 황해도 서흥 땅에서 『중앙당 서울 정치학원』을 수료하고 『중앙당 서울 지도부』 재정경리부 지도원이 되었다.

당시 재정경리부장은 중앙당 비서 겸 서울지도부장 李承燁과 동서지간인 李仁同이었다. 이인동은 1925년 共産黨 창당 멤버로 서울에서 許憲이 「전경」위원장을 지낼 때 부위원장 직에 있던 사람이다. 李仁同이 밑에서는 1년 남짓한 동안 짧은 세월 일했지만 그후 그는 北韓에서 내 후견인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52년 말경, 南勞黨 계열에 대한 피 비린내 풍기는 숙청의 태풍이 몰아쳤다.

李承燁·李康國·林和·趙一鳴·李勝源·裴哲·白亨福·孟鍾鎬·趙鏞福·薛貞禎·李重業 등 11명에게는 死刑이, 金雨天·尹淳達에게는 15年 刑이, 李源朝에게는 10年 刑이 내렸다.

그리고 南勞黨 계열의 대부분이 아오지 炭田과 강서 벽돌공장

으로 끌려갔다.

이 때 李仁同은 李承燁의 소위 『간첩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포섭되어 모란봉 극장에서 崔庸健의 지휘하에 열린 비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댓가로 구제되었다.

나는 李仁同의 후견으로 아오지 炭田에 끌려 갈 신세를 모면하고 戒備군에 강제 편입 당했다.

그 후 1956년 80,000명 제대 군인들 속에 섞여 군대에서 나와 내가 배치를 받은 곳이 바로 동남비료공장이다.

첫번째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비로소 나는 내가 지난 날 어떤 길을 걸어 왔으며,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희망의 불은 꺼지고 들끓던 심장은 재처럼 타버려 싸늘하게 식었다.

그래도 나는 그 사회에서 희망을 다시 찾고 심장의 활기를 되살리는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찾은 길이 문학에로의 지향이었다. 그 길은 내 두번째 꿈에 가까운 것이었다.

高所 작업을 하다가 失足하여 떨어졌으나 안전띠에 매달려 목숨을 건진 동료 연공을 보고 안전띠에 생명을 인간을 그린 것이 『안전띠』라는 단편소설이었다...

이 긴 이야기를 韓雪野에서 다 들려 줄 수는 없다.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

『쓰구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썼습니다.』

『어떤 충동?』

『몇마디루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방지군!』

韓雪野는 날카로운 눈매로 나를 한동안 쏘아 보더니 고개를 李北鵬 쪽으로 돌렸다.

『이 동무 합치면 몇이오?』

『여섯입니다.』

『여섯? 적군! 그 세배는 되어지!』 뒤에 안 일이지만 이들은 앞으로 作家가 양성할 노동자 出身 문학도를 고르고 있는 것이었다.

韓雪野는 홍남지구에 취재 차 내려 왔다가 李北鵬이 지목해 놓은 그런 대상 두명을 만났다. 그 중 하나가 나왔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作家同盟 소설분과로부터 후보명원으로 가맹할 서류 소속을 밝으라는 통지서와 새로 설립된 『평양문학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作家同盟 가맹 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대학 응시에는 압초가 많았다. 문학과 35명, 신문과 35명 도합 70명을 뽑는 입시에 무려 천 오백여명의 응시자들이 둘러 들었다.

나는 20대 1을 넘는 경쟁자들을 보고 아연했고, 로어와 역사 과목 시험에 백지를 내고는 스스로 실망하여 홍남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뜻 밖에도 8월 중순 홍남구역 사회안전부 안전원이 대학에서 의뢰 받은 신원조회를 하려고 나를 찾아 왔다. 안전원은 내 후견인이 누구냐고 따졌고 나는 李仁同을 내세웠다. 李仁同은 그 때 당중앙위원회 위원 겸 직업총동맹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있었다.

8월 말경 나는 평양문학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평양으로 올라 갔다.

대동강 기슭 연광정 맞은 편에 있는 3층 건물이 대학 청사였다.

대학 초대 학장에는 韓雪野요, 부학장에 어문학자 신구현과 시인 趙壁岩이었고, 교수들로는 평론가 安含光·嚴虎石·尹世平·金昌錫·소설가 朴泰遠·崔明翹·黃健·尹時哲·시인 朴世永·朴八陽·鄭曙村·金朝奎·李燦 등 北韓 문단의 중진들이 모두 망라되었다. 시간 강사까지 합치면 무려 80여명으로 스승의 수가 학생 수보다 많았다.

대학 시절에 중견 作家들과 깊이 사귀게 되었고, 2학년 재학시 내가 創作한 중편소설 『독로강 여울』이 인정되어 作家同盟 정맹원으로 가맹하여 作家들 속에 어울리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방송위원회 기자, 연구원생, 作家同盟 출판사(후에 분예총 출판사) 편집장, 作家 생활 등 北韓 땅에서 새로운 사회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 作家芸術人 爾清

1961년 9월, 북괴 勞動黨 제4차 대회에서 金昌滿이 사상당 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뒤, 作家 芸術人들의 머리 위에는 피 비

비판내 풍기는 숙청의 선봉이 회오리쳤다.

이 숙청의 선봉은 소위 「낮은 인테리」들 가운데 반동적인 요소를 지닌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자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그 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오랜 라이벌인 金昌滿과 韓雪野 사이의 암투가 정면으로 격돌하여 강력한 당적 지도권을 가진 金昌滿이 韓雪野 계열을 무차비하게 제거하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1962년 3월에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문예총(북괴 문학예술총동맹의 약칭) 당 총회에서 첫번째 비판 대상으로 연단에 끌려 올라 간 사람은 作家同盟 부위원장 徐萬一이었다.

徐萬一은 친소계열로 韓雪野의 직계는 아니었으나, 韓雪野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作家同盟 사업이 잘 안된 것으로 규탄하려면 우선 그의 활다리처럼 일한 부위원장들부터 쳐넘겨야 하므로 첫 대상으로 지목된 것 같았다. 번두리를 먼저 올려 놓고 한복판을 내리쳐서 단번에 무너져 앉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金昌滿은 주석단에 틀고 앉아서 직접 회의를 지도하며 徐萬一에게 『빠쿠샤 같은 놈!』이라는 걸직한 욕설을 퍼부어 作家藝術人들을 긴장으로 떨게 하였다.

회의에 공개된 徐萬一의 죄상은 신인 지도 育成 사업에 태만하여, 作家들의 구성 성분을 개선하라는 당의 지시를 외면했으며, 부화방탕한 여성 행각만일 삼았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여성 행각의 상대로 들춰진 것이 무용가동맹 위원장 崔承禧였다.

崔承禧를 늘 따라 다니던 한 무용수가 나서서 崔承禧가 1956년 동구 공산권 여러 나라를 순회 공연할 때, 그 해 9월 「루마니아」 作家同盟 회의에 참석했던 徐萬一과 합류하여 호텔의 한방을 같이 쓰면서 정을 통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남모르게 간통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모두 골통이 썩었어! 崔承禧 동무, 동무 남편 지금 어디 있소?』

金昌滿은 연단으로 끌려 나온 崔承禧를 노려 보며 물었다. 崔承禧는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뿔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崔承禧의 남편인 安漠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는 金昌滿이 더 잘 안다. 북괴 「문화선전성」 부상(차관급)을 지낸 안막은 1959년 4월 반당 종파분자로 불려 교화소(감옥)로 끌려 들어 갔었다. 崔承禧의 무용극 대본을 도맡아 써 주던 안막의 교화소 행은 그녀의 팔다리를 끊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崔承禧는 金日成과 金昌滿에게 애걸복걸하여 안막을 비공식으로 교화소에서 끌어 냈다. 그 후 안막은 崔承禧가 사는 문화인 아파트 구석방에서 연금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金昌滿의 입에서 반말이 튀어 나왔다. 그래도 崔承禧가 입을 다물고 있자 金昌滿은 눈에 살기를 띄우고 『구데기 같은 년! 화냥년! 썩어 문들어질 년!』

하는 글에 옮겨 놓지도 못할 욕질을 기관총성처럼 연달아 퍼부었

다.

내 서너줄 앞자리에 앉았던 한 여성이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회의장 밖으로 뛰쳐 나갔다. 崔承禧의 딸 安聖姬였다.

崔承禧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손으로 가리고 연단을 내려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회의장 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장내를 둘러 보는 金昌滿의 살기가 번뜩이는 눈길에 내 근처를 스쳐 지나 갈 때 나는 등골에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구. 崔承禧·徐萬一...그 밖에 또 몇몇 분자들이 우리 作家 芸術人 대열을 어지럽혀 놓구 있소! 이 번에 그런 자들을 모조리 잡아 내서 우리 대열을 깨끗이 해야 겠소! 그 미꾸라지들을 여기 앉은 당원 여러 동무들이 잡아내야 하오!』

金昌滿의 이런 말에 作家 芸術人들은 그 불벼락이 자기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마음 조이며 가슴을 움추렸다.

金昌滿이가 문예총 당 중회에서 설치던 서슬 푸른 기세로 보아서는 수많은 作家 芸術人들이 비판대에 끌려 나가 호된 사상 검토를 받고 무자비하게 숙청 당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납게 몰아친 숙청의 선봉은 그 폭을 그리 넓히지 않은 채 잦아들었다.

崔承禧는 무용가동맹 위원장 자리에서 철직 당해 무용연구소 안

무가로 떨어졌고, 徐萬一은 作家同盟 부위원장 자리에서 좌천 당해 외국 문학 출판사 번역원으로 쫓겨났다. 몇몇 芸術人들이 비판대에서 호된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가혹한 숙청은 없었다.

뒤에, 문학대학 재학 시 같이 있었던 金昌滿의 아들 金夏한테서 들어 알게 된 일이지만, 金日成이 金昌滿을 불러 숙청의 폭을 너무 넓히지 말고 우선 作家同盟에 집중하여 作家 대열부터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숙청 선봉이 평온하게 살아 왔던 것이 아니라 더욱 광폭한 폭풍을 몰아 올 태풍 전야의 고요가 깃든 것이었다.

다. 韓雪野의 末路

1962년 8월, 내가 문예총 출판사 현대문학 편집부(단행본 발행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학신문」에 연재한 韓雪野의 중편소설 「형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려고 그의 집을 찾아 간 일이 있었다.

韓雪野의 저택은 평양시 중구역 만수동 양지바른 언덕 위에 아담한 독립 가옥이었다. 응접실, 서재, 방 서넛의 건물이 손바닥만한 마당과 화분을 가꾸는 기름한 온실에 둘러 싸여 있었다. 마당에는 까만 불가(승용차)가 서있었다.

韓雪野는 자기 소설에 몇군데 수정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내 말을 듣고, 『누구 의견이야?』

하고 대뜸 거칠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출판중국 검열부에서 내려 온 의견입니다.』

『내 건 검열해? 문학이란 문자두 모르는 자들이!』

『별게 아닙니다. 조금만 손 대시면 되겠습니다.』

『흥! 고치던 말던 자네들 마음대루 해!』

내가 원고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자 韓雪野는 손짓으로 나를 눌러 앉혔다.

『동무 흥남 출신이지?』

『네』

韓雪野는 함흥 지구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 지역에서 등용된 作家들에게 유난히 큰 관심을 쏟는다.

『요새 글 많이 쓰구 있나?』

『편집 사업이 바빠서 동맹에서 받은 창작과제두 변변히 해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안됐군! 편히 앉아』

『네』

『담배 피워』

나는 사양했다. 잠시 후 韓雪野는 서가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두 쪽의 그림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 그림 좀 봐 줘』

하고 부탁을 했다.

두들 다 韓雪野의 흉상을 그린 초상화였다. 그러나 두쪽의 그

림은 너무나 다른 얼굴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었다.

『오른 쪽 건 정관철이가 그린 거구 왼편 건 변박사가 그린 거야』

『변박사라뇨?』

『일전에 다녀 간 소련 미술 아카데미 원사 있잖아?』

『네에 』

韓雪野의 얼굴을 사진처럼 방불하게 그린 것은 북괴 미술가동맹 위원장 鄭寬徹의 그림이었다. 변박사의 그림은 얼핏 보기에 만 사람의 초상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韓雪野의 성격을 예리하게 표현한 그림이었다. 변박사는 韓雪野의 고집·자만·아침·의지들을 도려내어 얼굴에 메닥질해 놓았다.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동무 의견을 묻는 거야』

『둘 다 잘된 것 같은데요...』

『솔직하지 못하군! 정관철이 건 내가 아냐! 저 그림, 저게 나야! 변가는 내 마음 속에 감춰 둔 것들을 찍어 냈어...』

나는 韓雪野의 심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변박사가 그린 자기 초상을 노려보는 그의 날카로운 눈에는 적의마저 이끌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이런 韓雪野의 몸 가까이에 폭풍이 다가 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었다.

金昌滿의 지휘와 조종에 의한 韓雪野에 대한 공격은 1962년 3/4분기 作家同盟 사업을 총화하는 同盟 당 총회에서 개시되었다.

3/4분기 同盟 事業을 총화하는 당 총회는 作家同盟 회의실 (前 白善行의집)에서 열렸다.

당 회의 때 흔히 그러하듯이 정면에 차려진 주석단에는 韓雪野와 회의 지도 차 내려 온 중앙당 문학예술부 문학과장 徐俊吉, 作家同盟 당위원장 李北鳴, 作家同盟 서기장 朴雄傑이 자리잡고 그앞으로 나란히 놓인 4인용 나무의자들에 作家들이 뻥뻥하게 마주 앉았다.

먼저 韓雪野가 연단에 나서서 3/4분기 作家同盟 事業에 대한 총화보고를 하였다. 그는 作家들의 創作 成果로 小說·시·희곡·평론·번역문학·고전문학등 분과 별로 우수한 作品을 열거하고 시인 대열의 길, 양적인 성장을 실례를 들어가며 화려하게 늘어 놓았다.

韓雪野의 보고가 끝나자 먼저 트론 신청을 하고 연단에 나선 사람은 소설가 權正雄이었다.

權正雄은 검덕광산 직맹위원장으로 일하다 문단에 나온 신인 소설가로 뒤에 「문학신문」 주필로 등용된 사람이다.

權正雄의 토론은 뜻밖에도 韓雪野의 보고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예리한 반박이었다.

『…同盟 事業은 아주 즐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고에서 지적된 성과들은 이미 2/4분기 총화에서도 언급된 것들입니다. 당은 우리 작가들에게 思想革命·文化革命의 첨단에 서서 革命的인 作品을 보다 높은 질적인 수준에서 創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同盟委員長 韓雪野 同志의 해이나태한 생활과 안일한 事業 작품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韓雪野가 우들거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바람에 權正雄의 말은 끊기었다.

『저게 어디서 끌어먹던 아이야? 주둥이가 달렸다고 함부루 떠벌여두 되는 줄 알아!』

韓雪野가 노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으나 權正雄은 얼굴 색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원 등지들! 보십시오! 당 회의에서 이렇게 언권을 짓밟는 법이 어디있소! 난 토론을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는 연단을 내려 제자리로 돌아갔다.

회의장 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韓雪野를 맞대놓고 그토록 도전한 일은 없었다. 作家同盟 내에서 韓雪野는 불가침의 존재였다. 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문예총 위원장, 作家同盟 위원장, 소위 「세계 평화옹호위원회」 위원 겸 북괴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들을 겸직하고 있는 그였다.

팽팽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잠시 후 朴雄傑이 주석단

제자리에 일어서서 창백한 표정으로 韓雪野를 나무랐다.

『雪野 동지! 당 회의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바루 보셔야죠』

『뭐야?』

韓雪野가 또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들이 날 잡올라구 짚어! 朴雄傑이! 널 作家루 키워 준 게 누구야! 배은망덕한 놈!』

朴雄傑도 韓雪野의 손때가 묻은 사람이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기만 할 분 감히 대꾸를 하지는 못했다. 회의 지도자인 중앙당 문학과장 서준길은 팔장을 낀 채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그도 당 중앙 위원인 韓雪野와 맞설 수 없는 처지였다. 서준길은 한동안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휴회를 선언했다.

회의장 앞파당으로 물레 나간 작가들의 눈빛은 가지가지였다.

동정·비웃음·비난·무표정·공포... 여러 감정들이 얽힌 눈·눈들이었다.

동정자는 숙청의 회오리 바람 속에 자기를 부지하지 못할 것이며, 비웃음과 비난의 눈임자들은 이 틈에 韓雪野와 그 동조자들을 치고 한자리 승진하려고 들 것일 때 무표정한 눈의 임자들은 바람이 지날 때 쓸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풀대처럼 그냥 그 자리에 사태를 방관하며 머물러 있게 될 것이었다.

韓雪野는 담배를 끄나물고 주위에 모여든 측근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韓雪野 주위에는 소설가 李貞求·李北鳴·白哲秀, 시인 朴八陽·閔丙均·金字哲, 평론가 엄호석·한형원(韓雪野의 장

남) 한옥(차남), 희곡작가 宋影·韓星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말인지 주고 받고 있었다.

반시간 쯤 지난 뒤, 作家同盟 앞마당으로 까만 「불가」한대가 굴러 들어 왔다. 내려 선 사람은 중앙당 文學藝術部長 高革이었다. (高革은 뒤에 부수상까지 지냈으나 숙청 당했다.)

高革은 作家들의 인사를 전성으로 받으며 서준길만을 동반하고 급히 同盟 당위원장실로 들어 갔다.

잠시 후, 朴雄傑과 權正雄이 불러 들어가고, 그들이 나오자 金昌滿의 아들 金夏와 韓雪野의 아들 한형원·한옥, 시인 민병균이 차례로 불러 들어 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 자신 또한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 안에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회의는 다시 속개되지 않았다.

저녁에 내가 일하는 현대문학 편집부장실에 金夏와 한옥이 찾아 들어 왔다. 그들은 평양문학대학 시절에 강사로 나와 어울린 일이 있어서 틈만 있으면 자주 내 방에 들리고는 했었다.

둘다 「金田成綜合大學」 語文學部 教授로 일하고 있었고, 이때금문학 평론도 써서, 내 방에 들어 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소파에 마주 앉아 담배를 피워 문 두사람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金夏는 金昌滿을 닮은 데라고는 조금도 없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고, 한옥은 韓雪野를 빼놓은듯이 많은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서로 성격은 판이했지만 모스크바 「꼬리끼문학대학」을 함께 다닐 때 우정을 굳힌 가까운 친구지간이었다.

『高革 부장 요구는 무리야』

김하가 던져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어가 무리야?』

이렇게 묻는 한옥의 말은 신경질적이었다.

『그럼 너, 아버지 당 회의에서 비판할 작정야?』

김하가 되묻자 한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비정한 짓이야!』

『뭐가?』

『수령에 빠진 아버지의 허연 머리를 던져 너만 살아 날려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해지!』

『오해!』

『김하. 당적 입장에 서느냐? 당의 적이 되느냐? 둘 중 하나야!』

『옥이! 네 맘 속에 애정은 바닥이 났구나?』

『애정! 그렇진 않지! 하지만 당의 적을 사랑할만큼 내 애정은 관대하질 못해!』

『미쳤군! 들았어!』

그것으로 그들의 대화는 끊어졌다.

김하는 金昌滿이가 생모를 버리고 젊은 후처를 데리고 사는 일을 두고 늘 개탄하며 그런 아버지를 용납하는 당 지도부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라 韓雪野를 동정하는 말을 한 것이 당연했으나, 늘 자기 아버지를 공경해 오던 한옥이 그토록 표변하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비정한 아들이다.

그 이른날, 韓雪野와 그 추근자들을 공격하는 당 총회는 평양시 党 會議室로 자리를 옮겨 다시 열렸다.

高革이 會議를 지도했다. 이제는 作家同盟 事業을 잘 안했다는 程度의 비판을 넘어 서서 反動 反党 分者로 규탄하는 노골적인 공격의 독화살이 겨누워졌다. 한옥도 자기 아버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高革은 韓雪野의 反党的 行爲의 증거물로 우편 검열 시에 압수한 민병균에게 韓雪野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제 나도 내 자신 文學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배에 기름진자들을 위해 사는 것은 그만 했으면 된 줄로 안다. 비록 배는 늙어지만 남은 여생은 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 보겠다...』

高革은 이 대목이 바로 「수령」과 党에 대한 배신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韓雪野가 개성에서 反動 지주의 처였던 여자를 후처로 맞아 들인 일, 여비서들을 농락한 일, 作家同盟 내 幹部 등용에서 지방주의를 범한 일 등을 들어 反動的 죄상으로 지탄했다.

비판의 화살이 불비처럼 韓雪野의 머리 위에 쏟아졌으나 雪野는 끝내 완강히 반발했다. 자기 비판을 강요하는 高革의 끈질긴 독촉과 韓雪野의 反抗이 무섭게 맞서서 불꽃을 튀기었다.

『할 말 없소!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버린 이 자리에서 말은 해 무얼 하오! 진실은 金昌涵과 당신이 녹점하구 있지 않

소!』

『…作家 동무들! 아들더러 애비를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비정한 사람이오?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해 살자는
마음을 가졌다는 내가 비정한 사람이오!』

韓雪野는 이런 식이었다. 아무리 예리한 비판의 칼을 휘둘러도
날이 들지 않았다.

會議는 열흘이나 계속되었지만 韓雪野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지쳐 버린듯 불이 꺼진 야윈 얼굴을 푹 수그리고
초라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날 會議에서는 韓雪野를 출당 처분하고, 모든 공직에서
철직시킬 것을 黨 中央委員會에 건의(中央 委員의 出黨은 中央委
員會 전원회의에서만 決定할 수 있다)하는 決定書를 채택하였다.

그 해 12월 10일.

勞動黨 中央委員會 4期 5次 전원회의에서 韓雪野의 出黨이 決
定되었고, 모든 공직에서의 철직이 선언되었다.

바로 그 이듬해인 1963년 2월 韓雪野는 전재산 몰수 처분을
당하고 慈江道(前 평안북도의 일부) 시중군 중인협동농장의 농장
원으로 쫓겨 났다.

韓雪野의 추종자로 비판을 받은 만담가 申不出은 강선제강소 勞
動者로, 소위「인민배우」이던 裴勇은 평안북도 도립극장 배우로,
「인민배우」 이서향, 作家 김혁·林宜奎(文芸峰의 남편) 등은 公演
및 創作 活動 禁止 처분을 받았다.

韓雪野의 장남 한형원(당시 시나리오 창작사 부주필·후에 숙청됨)과 차남 한욱(김대 교수·후에 숙청됨)는 아버지를 비판한 댓가로 제 자리에 머물렀다.

아버지를 벼랑 아래로 떠밀어 내는 일에 한몫 들어 잔명을維持한 인간쓰레기 들이었다.

라. 현대판 「焚書坑儒」

韓雪野와 그 측근자들을 숙청하는 會議가 끝나자 作家 芸術人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조였던 가슴을 쓸었다. 그러나 그도 잠시, 1963년 3월 중순부터 作家 芸術人들 속에 남아 있는 韓雪野의 反党的 思想의 여독을 뿌리 뽑는다는 이른바 「思想檢討會」가 시작되었다. 이 「思想檢討會」는 作家 芸術人들이 모두 차례로 연단에 나가 자기를 비판하고 상호비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자기 비판과 「호상비판」은 創作 및 公演 活動에서 黨 政策의 貫徹,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실현·사회주의적 사실주의 創作 方法 原則의 준수를 어떻게 해 왔으며, 잘못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었다.

作家 芸術人들은 오전에만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오후에는 「思想檢討會」장소 (當時 文芸總 會議室)로 가서 精神的인 시련을 겪어야 했다. 會議場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은 마치 용광

로 속처럼 숨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웠다. 이런 「思想檢討會」가 土曜日과 日曜日만을 빼놓고 그해 연말까지 계속되어 作家들은 괴로움에 지쳐 글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였다.

1963년 말, 作品 기준으로 文芸誌와 「文學新聞」이 휴간할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 「思想檢討會」에서 가혹한 비판을 받은 作家들은 小說家로 李北鳴·李根永·嚴興燮·趙貞國·黃健·金英錫·이상현·윤시철·安懷南·李貞淑·변희근·강현구·현덕·朴燠·千青松·유근순이고, 시인으로 이찬·박세영·朴虎杵·朴八陽·趙壁若·石光輝·白仁俊·李庸岳·金宇皙·朴山雲·馬禹竜·金舜石·金常五·추민·계북·金貫蓮·李秉哲·陽雲閑·김복원이요, 희곡 작가로 宋影·조영출·南宮滿·朴泰泳·韓星·윤두헌·신고승·韓泰泉이고, 평론가로 김명수·엄호석·윤세평·김하명·安含光들이었다.

이들 중 趙貞國·신동철·추민·계북·馬禹竜·김귀련·이병철·석광휘·박태영·김명수·윤세평·윤두헌 등은 作家 자격을 박탈 당하고 工場 기업소 勞動者 또는 협동농장의 농장원으로 쫓겨 났다.

그해 韃靼野를 비롯하여 숙청 제거된 作家들이 쓴 서적들을 모두 回收하라는 지시가 中央黨으로부터 떨어졌다.

회수 도서 목록이 부록으로 붙은 「도서 회수 지시서」가 산간벽지에까지 하달되었다. 도서관·학교·기관·가정들에 있는 숙청당한 作家들의 책이 회수되어 文芸總 出版社 뒷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시인 金宇皙이 철도 자살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金宇皙은 「海潮」동인으로 일제 시기 創作 活動을 시작하여, 북
과 치하에서도 서사시 「나의 祖國」을 비롯한 수많은 시들을 쓴
중견 시인이었다. 그는 作家同盟 평안북도 지부에 소속된 시인이
었으나 「思想檢討會」를 치루려고 平壤에 올라 와 있었다.

「思想檢討會」에서 金宇皙은 唯美주의적(唯美主義的)인 경향이
농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에 金宇皙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동문학 作家 李園友에게
들어서 안 일이지만,

『이건 시 아닌 구호를 쓰라는 거지 뭐냐?』

『회의구 뭐구 판두고 고향에 가야겠다!』

며 金宇皙은 큰 한숨을 쉬었다 한다.

『그래두 그 친구가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소!』

하며 이원우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했었다.

金宇皙은 平壤驛에서 달려 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
다.

그의 자살 사건은 作家들 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비난이 비난을 낳아 모두 이성을 잃고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드
러내 놓은 사람들 속에 차거운 냉수를 끼얹어 번쩍 냉정을 되찾
고 자신들을 돌이켜 보게 한 파문이었다. 고향과 육질로 연단에
끌려 나간 사람들을 비판하던 「열성분자」들마저 입을 다물고 침
울해졌다.

더구나 文芸總 청사 뒷마당에 作家들을 모두 모아 놓고 회수해
다 쌓아 놓은 책더미에 불을 질렀을 때, 충천하는 불빛을 받은
作家들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이그러졌다.

불타는 책, 作家들의 처절하게 이그러진 얼굴, 치솟는 불길과 겹
은 연기타래, 불꽃 튀는 소리... 진시황도 무색케 할 현대판 「분
서경유」의 참담한 광경이었다.

作家들은 사흘 동안이나 불타 갯더미로 변한 그 폐허에서 자신
들이 생애를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언제 그런 비참한 봉변을 당
할지 모를 위구심을 느끼고 가슴을 떨었다.

北韓 指導層은 바로 그러한 공포와 긴장을 바래 作家들을 불지
르는 책더미 앞에 모아 놓았을 것이다.

라. 李泰俊의 아들

1964년에 들어 서면서 「思想檢討會」는 다시 열릴 것이라는
암시만을 남기고 휴회로 들어 갔다.

바로 그해 3월 중순 경, 李泰俊의 아들 이유백이 나를 찾아
왔다.

이유백은 나와 서울 휘문중학교 동기 동창생이었다.

그는 1947년 아버지를 따라 越北하여, 50년 6.25 남침 戰爭
시 피뢰군에 나갔다가 54년에 제대한 뒤 「金日成綜合大學」 철
학부에서 4년 간 공부를 했다. 그러나 李泰俊이 反動 作家로

숙청 당하게 되자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황해 북도 봉산군 대룡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쫓겨 났었다. 그런 이유백이 초라한 모습으로 자작 단편소설 두편의 원고를 들고 「청년문학」(作家同盟 機關雜誌)에 실도록 교섭해 달라고 찾아 온 것이다.

李泰俊이 숙청 당해 함흥콩크리트블록크공장 勞動者로 쫓겨가 있을 동안 같으면 이유백이가 감히 자기 作品을 「청년문학」에 실어 달라고 가지고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李泰俊은 그때 북괴 대남심리전의 총참모부인 中央黨 文化部 創作 제1실 전속 作家로 올라와 있어서 이유백도 自己 小說을 雜誌에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냘픈 희망을 품게 된 모양이었다.

편집원들에게 돌려 가며 원고를 읽혀 보니 모두 실을 수 있는 作品이라고 평했다. 내가 보기에든 이유백의 단편소설들은 기성 作家들의 作品만을 실는 「朝鮮文學」에 내놓아도 손색이 있을 정도로 잘 써져 있었다.

나는 大學 동창생인 中央黨 문학예술부 문학과 지도원 최철웅을 만났다.

이유백의 소설을 「청년문학」에 실으려면 문학과와 승인을 받아야만 했었다.

최철웅은 黨 幹部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무척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대학시절에 한 합숙방에서 같이 덩쿨던 사이라 그런 대로 따뜻한 말로 내게 충고를 했다.

『큰일 날 짓하지마! 李泰俊은 필요해서 데려다 쓰구 있지만

그 죄과를 벗겨 준 건 아냐.』

『아까운 作品인데...』

『무어가 아까워? 최 동문 黨의 신인지도 정책을 잊었군! 배만수 책임지도원한테 그런 소리했다간 큰 코 췌다!』

배만수 책임지도원이란 文學藝術 분야의 신인지도사업을 책임지고 지도 관장하는 사람이다.

배만수는 이유백의 小說에 대한 내 말을 듣자 대뜸 호통을 쳤다.

『정신이가 훌 나갔당이! 동무 思想 다시 檢討해야 췌당이! 언제부터 반동작가 아들을 옹호하게 됐음게?』

원고를 이유백에게 돌려 주는 내 가슴은 모래알로 후비는듯 쓰라렸다.

이유백은 울었다.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小說家 安懷雨도 눈시울을 붉히며 어색하게 안경테를 어루 만졌다.

그후 내 심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韓雪野의 숙청을 둘러싼 事件들, 「思想檢討會」와 金字塔의 자살 事件, 文芸總 청사 뒷마당에서 불타 버린 잣더미와 그 폐허에 흩날리던 잣가루, 이유백의 방문과 풀이 죽어 돌아가던 칙통한 그의 뒷모습, 정신적인 통제에 이그러진 作家들의 얼굴들... 이런 가지가지 일이 내 심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또한번 나를 돌이켜 보았다. 코피를 쏟아가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않고 편집 事業에 전념한 열성분자, 1964년과 65년

두해 동안에만도 황건의 「아들딸」·석운기의 「시대의 탄생」·김재규의 「포화 속에서」·김승권의 「탄부일가」·현희균의 「청춘의 일터」를 비롯한 장·중편소설들을 편집해 내면서도 자기 소설을 아홉편이나 쓴 「열성분자」가 살과 뼈를 깎여 뼈때하니 마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게 바로 나였다.

인생 행로에서 다시 세운 희망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쓴 소설이 출판될 때마다 「기형아」를 귀여운 아들로 創作하여 좋아하거나 하고, 편집 발행한 장·중편소설 판권에 편집인으로 자기 이름이 찍힌 거나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기 生活에 만족했던 출떨린 인간이 바로 나였다.

참으로 인간다운 生活은 없었다.

한옥이 자기 아버지를 비판하는 비정한 행위를 할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저 방관만 했고, 「思想檢討會」에서의 무자비한 욕설을 그저 킷전으로 흘려 들었고, 金宇皙의 자살을 남의 일로만 스쳐 보내고, 수많은 作家들의 생애가 담긴 책더미가 불타버릴 때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분노를 그저 눌러 참기만 했고, 정으로 얽힌 동창생 이유백의 고민을 조금이나 덜어 주지 못한, 또 그러려고 애써 보지도 않은 生活이었다.

이미 그 사회에 「나」는 없었다.

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육체가 맹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를 다시 돌이켜 본 그 날부터 마음 속에는 그 사회를 등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싹텄다.

잃어버린 자신을 구원해 보자는 마지막 안간힘이 가슴 속에 꿈틀거렸다.

그러던 중 1965년 나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직업총동맹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李仁同이 양강도 人民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좌천당했다.

그의 이봉 가치가 바닥이 나자 숙청한 것이었다.

그가 좌천 당하자 나는 큰 불안을 느꼈다. 그의 보증으로 일정한 지위에 오른 자들에 대한 재심사가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아니나다를까 그해 7월 평양시 黨委員會 조직부장의 호출장을 받았다.

시당 조직부에서 열흘 동안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과거 경력, 보증인과의 관계로부터 作品 創作 실태와 편집 事業 내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것이었다.

주로 세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慰問檢討와 비판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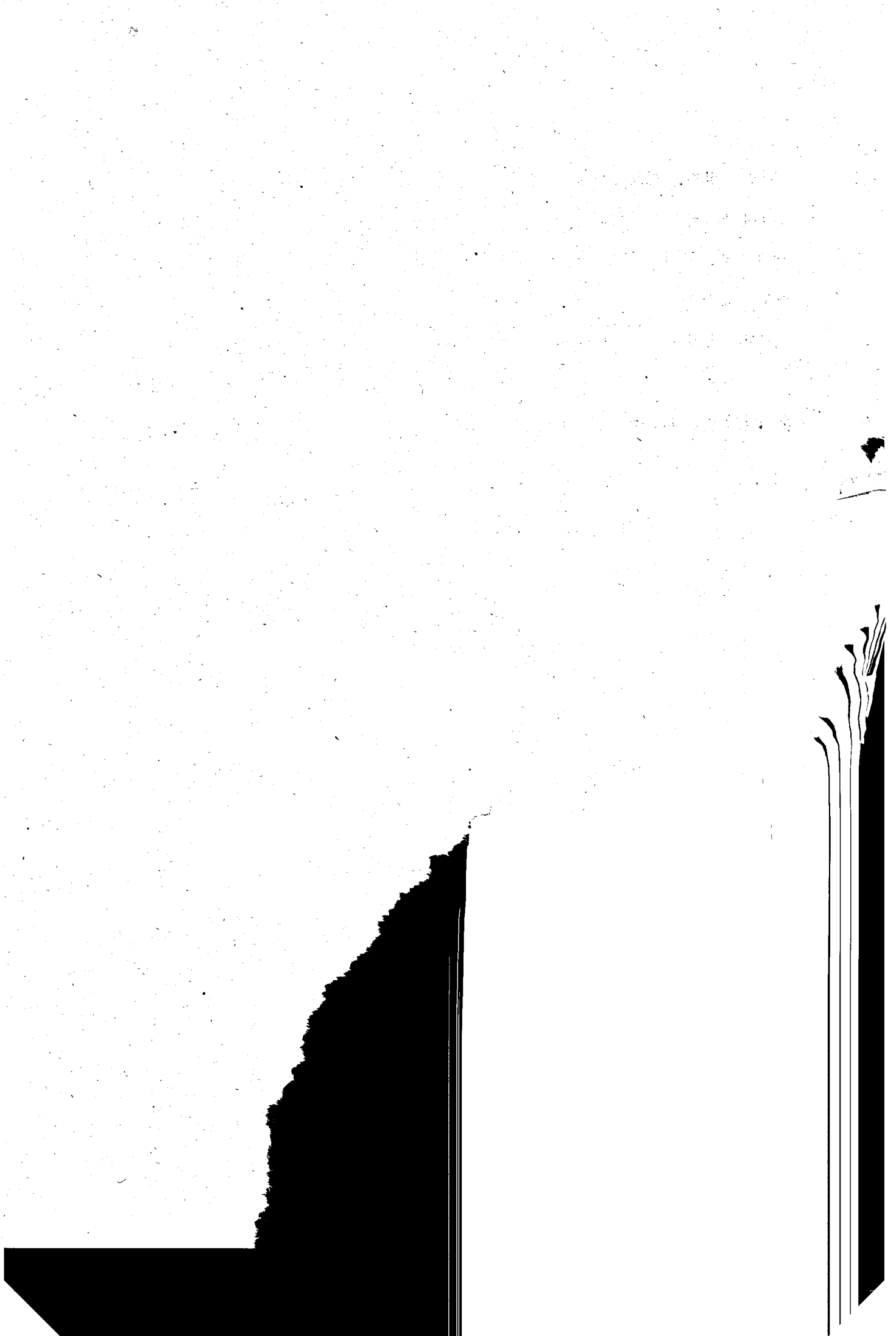
세가지 문제란 첫째 「남반부유격대 제1지대」와 中央黨 서울지도부 재정경리부에 있을 때 남로당 제열의 「죄상」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것, 둘째 평양 文學大學 재학시 남을래 연애한 것이 뒤에 드러났는데, 대상자와 결혼은 했지만 그때 兇을 속인 것, 셋째 단행본 편집 사업에서 兩韓 出身 作家들을 우대했다는 것들이었다.

나는 심한 思想 檢討를 받고 자기 비판을 했다.

심사가 끝날 무렵, 조직부장이 「남반부 해방」을 위한 「革命 鬪爭」에 나설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黨이 나를 그 일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다.

黨이 내세운 과업이라면 무조건 접수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65년 10월 中央黨 조직지도부장 명의로 된 소환장을 받았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6년 7월에 南派되었다.



- ABSTRACT -

Living Conditions of the Writers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classified the writers into novelist, poet, play writer critic children's literature writer and translation writer, etc. There are about 350 writers in total in North Korea.

The mission assigned to the writers is to lead or encourage and agitate the mass of people by means of literature as required by the political party based on the literature and art policy of the party.

The study consists of 10 chapters in order to describe the living conditions and status or activities of such writers.

Chapter 1 contains how to become the writers, type of writers such as candidate member of league and its regular member, the writers who have occupation and so called 'Liberation Writer' and remuneration for the writers, etc.

In Chapter 2 the author described the organization of the writers' league, its mission and function, distribution of the writers by section/field and by region, procedures for

enrollment to the league, actual situation of controlling the writers, the relation with 'the General League of the Literature and Arts' and the relation with the department of literature and arts.

In Chapter 3 the author worked on the literature and art policy of the party, supervision and control on the literature, and actual status of concrete control on creative writing and practice.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editing department of 'the Literature Newspapers', 'the Chosun Literature', 'Literature of the Youth', 'the Children's Literature', 'the Poem and Literature', 'the Play Literature' and 'the Modern Literature' are handled in Chapter 4.

Chapter 5 describes the daily life of the writers who works on a certain job and 'the Liberation Writers', the writers' living situation in the organization of the party and some special ways of their living, the living conditions such as recreation and drinking, etc.

In Chapter 6 the actual general status of the creative life, such as news coverage activities, process of writing,

life in the creative office and the control on so called group guidance for creation of the revolutionary masterpiece including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creation, is described.

The actual cases are given in Chapter 7 regarding the agony in daily life, the schematism and the agony of the writers, the agony in creation of the works mainly on 'revolutional tradition', the agony in creation of the works mainly on 'war', the agony in creation of the works with major title of building 'socialism', the agony in creation of the works with the major title of '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and the agony of the translation writers, etc.

The various incidents and events/cases, such as the event of the poet KIM Woo Cheol's suicide, the case of the poet KIM Cheol and PARK Myong-Ja, the case of protest by the poet HWANG Ha-il, the event of rejection for writing 'Memoire/Recollections', and complicated dealing between the other sex/es, etc., are described in Chapter 8.

The author described some phenomena such as lack of works, occurred in the middle of 1960's, actual situation of the writer's labor, post inspection, collective creation, assignment of the writers to the military forces, etc. in Chapter 9

The fate of the writers who were kidnapped and gone by themselves to North Korea is described in Chapter 10. The tragic life of the writers went from South Korea, who were cruelly purged, including Choon Won LEE KWANG Soo, Sang Heo LEE Tae-Joon and KU Po PARK Tae-Won, are handled in this Chapter.

The author added how the author became a writer in North Korea and the life experience as a writer there. The author stated in this story of his own experience the large purge on the writers and artists in early of 1960's and the event of the modern type burning of the books.

It was emphasized in the foregoing statements that the writers in North Korea have been forced to become the waiting maid/yes-men of the party by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and they are living in the circumstance that their individual character and the artistic nature have been trampled down.

There exists no true/real literature in the place where the individual character, style and art are trampled down. It is matter of course that the sentences of propaganda and agitation, which can not be considered as true literature,

have been produced in such place.

Here it is the very agony of the North Korean writers, and sometimes the writers try to conduct the movement to drown such agony. However, such movement is suppressed by being hammered down by the dictatorship.

It is not only the issue of the North Korean writers but also the problem to be settled by all of our people to save the literature in North Korea.

